

메가 부동산
"35년의 풍부한 경험과 신용"
문미애
대표 / Principal Broker
703.534.4989

WWW.UMNLOAN.COM
소중한 주택 융자,
신뢰와 전문성을 갖춘 회사
유나이티드 몰게지 내이션과
함께 하십시오!
NMLS# 2425871
1-833-846-4004

중앙일보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장미원 부동산
Associate Broker
VA / DC / MD
703.486.6082

JJ Watch & Jewelry Repair
금은
매입 합니다
703.691.1993
11706-L Fair Oaks Mall, Fairfax, VA 22033

대표전화 : (703)281-9660 dc.koreadaily.com

The Korea Daily

COPYRIGHT 2024 제 691379호 Wednesday, September 10 2025 A

“미국 줄타기 외교 경고에 한국은 총력 대응”

이재명 “미국 조치 부당한 침해”
“체포·구금 정당, 자진출국 아닌 추방”

국무회의를 주재한 이재명 대통령이 조지아 공장에서 벌어진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마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정면으로 대치하는 모양새로 비춰지고 있다.

한국정부는 미국 측에 최고 수위의 유감과 우려를 전달했고, 재발 방지를 위한 협상 테이블도 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호관세 마무리 협상 등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번 체포 및 구금 사태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항의했다.

그는 또한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크리스티 농 국토안보부 장관이 플로리다 오초피에 있는 ‘엘리게이터 알카트라’즈 임시 이민자 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로이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그런 방식으로 해서 저희가 총력 대응을 하고 있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정부는 조선업을 비롯한 기업 투자 활동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점을 미국 정부도 알고 있는 만큼, 조만간 미국 백악관과 협상 테이블을 꾸릴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오히려 역공을 당할 수 있다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서는 한국이 미중 패권전쟁 와중에 줄타기 외교를 벌이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 미국이 경고를 보낸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한 특검의 오산 미군 공군기지 압수 수색에 대해 미국의 불만이 여전히 풀리지 않았다는 신호로 읽히기도 한다.

김옥채 기자

▶ 2면 ‘줄타기 외교’로 이어집니다

“중국인 때문에 주택가격 폭등”

일본 신문 보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국가비상사태 선포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 가격 폭등 원인이 중국인 등 외국인의 주택 대량 구매 탓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9일 미국에서 주택 가격이 급등해 매매건수가 줄어든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인 부자들이 여전히 왕성히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NAR) 자료에 따르면 작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외국인 구매 기준주택은 7만8100채로 전년 동기 대비 44% 증가해 2010년 이후 가장 크게 증가했다.

외국인 구매 건수 중 중국인이 15%로 가장 많았다.

중국인의 평균 주택매매가격 7만9600달러 전체 평균인 40만3100달러보다 훨씬 많아, 주로 고급주택 매매 현상이 뚜렷했다.

중국인 주택 구매는 주택가격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도심 지역에 집중

됐다. 중국인은 주로 캘리포니아, 워싱턴, 뉴욕, 하와이, 애틀란타 등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올 캐쉬 거래’를 선호했다. 중국인 구매 건수의 70% 이상이 올 캐쉬 거래였다. 이같은 현상 탓에 정착 미국인들은 급등한 주택 가격 탓에 구매 기회를 잃고 있다.

최근 기준주택 평균매매가격은 42만2400달러로 4년 만에 40% 이상 상승했다. 팬데믹 이후 모기지 금리마저 급등해 최근 30년 고정 모기지가 6.5%에 이른다.

NRA는 “모기지 금리가 급등해 미국인 실수요자 부담이 가중된 반면, 외국 부유층이 대출 부담없이 올 캐쉬 거래로 주택을 사들이고 있다”고 밝혔다.

텍사스 등 일부 주에서는 영주권이 없는 외국인의 투자목적 부동산 구매를 금지하는 법률을 시행하고 있다.

보수 진영에서는 “외국인 부동산 소유가 주택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국가 안보를 해치고 있기 때문에 모든 주가 외국인 주택 구매를 적극 규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윤서 기자

은퇴자 44% “소셜연금 반만 줄어도 생계 위협”

은퇴자 상당수가 소셜연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어 혜택이 줄어들 경우 생계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전국은퇴연구소(NRI)가 발표한 ‘2025 소셜연금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가운데 74%는 평생에 걸쳐 연금기금이 고갈될 수 있다고 우려했고

83%는 제도의 장기 지속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특히 응답자의 44%는 “월 소셜연금 수령액의 절반만 받자 못해도 생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답했다.

현재 소셜 연금은 2034년 고갈이 예상되면서 자동으로 약 19%의 삭감이 불가피하다.

평균 월 수급액 2006달러(올해 7월 기준)를 기준으로 하면 연간 약 4573달러의 손실이 발생한다.

은퇴자 대부분이 별도의 저축이나 투자 여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노후 생존권을 위협하는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이은영 기자

한인1세 영어 미숙 비율 51%

이민단속 주의해야

연방대법원이 외모와 언어 등을 근거로 이민단속을 허용함으로써, 당장 영어에 미숙한 한인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연방 센서스국이 한인 이민자의 영어 숙달도를 조사한 가장 최근 조사 ACS(2018-2022년)에 의하면 한인 가구의 약 30.3%가 영어 구사 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영어에 익숙한 한인 2,3,4세 가구를 모두 포함한 것이다.

하지만 가정에서 한국어를 사용하는 한인 가구, 즉 한인 1세로 구성된 가구의 경우 미숙 비율이 51%에 달했다.

워싱턴과 캘리포니아와 뉴욕 등 한인 밀집 지역에서는 전국 평균보다 높아서 각각 35%와 54% 이상이었다.

한인 밀집 지역일수록 영어 사용 환경이 제약되는 탓에 그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민정책연구소(MPI)의 2015년 조사에서는 한인들의 영어 미숙 비율이 55%에 달했다.

김윤미 기자

퍼스트 홈케어
WWW.FIRSTHCO.COM
571.549.6789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 통증 전문 병원
교통사고
원장 Dr. 김동국 D.C.
410-480-00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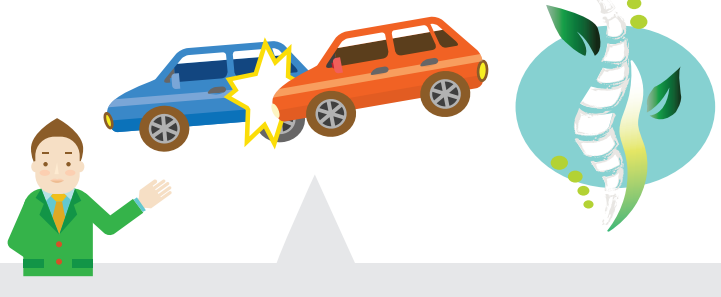
편한나라 척추신경
교통사고 디스크
엘리콧시티
410-480-2331
락빌
301-279-6960
원장 송영성, D.C.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골든 벨라 보석상
결혼 예물 전문
G.I.A. 다이아몬드
보석금 고가 매입
순금 아가 팔리지 않음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MD Ellicott City Snoopy Pet Grooming
강아지 그루밍 배우실분
강아지 그루머 구합니다.
410-988-5523

교통사고



엘리콧시티 교통사고 | 상해전문병원

모커리 척추병원

목·허리통증 전문 병원

Q. 교통사고가 나면 무엇을 먼저 해야하나요?

A. 사고로 인하여 몸에 물리적 혹은 정신적 피해를 입으셨다면 우선 그 분야의 전문 의료진의 도움으로 X-ray, 근전도 검사 및 다양한 정밀 검사를 통해 어디가 어떻게 손상을 입었는지, 어떤 치료를 받아야하는지, 또한 후유증의 여부를 먼저 파악한 후 그에 알맞는 치료를 받으시는게 우선순위가 되겠습니다. 저희 클리닉에 방문하시면 변호사 선임, 자동차 수리, 보험처리등에 관한 일반적인 상담을 해드립니다.

Q. 자신의 과실로 사고가 났습니다. 치료받을 수 있나요?

A. 매릴랜드주에서는 교통사고 후 누구의 과실의 여부를 떠나 타고 계셨던 차량의 보험으로 혹은 본인의 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노폴트(No-fault)보험이라고 하며 PIP(Personal Injury Protection)이라고 불립니다. PIP커버는 기본 \$2,500이며, 금액은 보험에 따라 다릅니다. 본인 보험의 혜택으로 병원에 가서서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치료하면 보험금이 올라가나요?

A. 내 보험을 사용하면 보험료가 올라간다고 생각이 당연히 할지도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보험회사에서 보험료를 올리거나 한다면 정해놓은 여러가지 상황에 따라 올릴 수도 있겠으나 내가 과실하지않은 교통사고로 인해 노폴트 보험을 사용했다고 해서 무조건 보험료가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상대방이 과실을 하고 내 보험료가 올라간다면 문제가 있지않을까요?

사고후 서류 처리

변호사 선임
통역 및 교통편 제공

치료 전문 LMT마사지

테라피스트가
함께합니다

각종 보험

BlueCross
BlueShield

CareFirst BlueCross BlueShield

원장 Dr. 김동국 D.C.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 Sydney University in Australia
- Maryland & Washington Boards Licensed
- Practiced in Blue Spring Chiropractic
- Whiplash Injury Specialist
-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vical and Lumbar
- Manipulation Specialist

연구결과에 의하면 **교통사고와 직장사고** 등 상해에 관한 후유증은 20년까지 지속된다고 합니다. 지난 3년안에 **본인** 혹은 **상대방** 잘못으로 교통사고를 당하신 모든 분들께 **무료 상담**을 해드립니다.

Mocurry Chiropractic | 9275 Baltimore Nat'l Pike, #104 Ellicott City, MD 21042 **410-480-0083**

시카고 주방위군 투입 임박

트럼프 “전화 기다리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시카고의 전화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는 시카고를 고칠 것”이라며 ‘범죄 소탕’을 명분으로 미국 제3의 도시 일리노이주 시카고에 대한 군 병력을 투입할 뜻을 재차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후 국토안보부는 시카고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 주도의 불법 이민자 체포 작전에 돌입했다고 밝혔고, 미 연방 대법원은 로스앤젤레스(LA) 등에서 이뤄진 군 병력을 동원한 ‘트럼프식’ 단속을 일단 허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 백악관에서 진행한 종교자유위원회 회의에서 “우리는 시카고에 들어가 (불법 이민자 범죄를) 바로잡고 싶다”며 “왜 시카고가 우리에게 ‘제발 도와달라’고 전화하지 않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아주 짧은 기간에 50건의 살인과 수백 명의 총격 피해가 발생했는데, 주지사가 ‘범죄는 괜찮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정말 미친 짓”이라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시카고에 대한 군 병력 투입 방침에 “독재자들은 침묵 속에서 번성한다”며 정면으로 반발하고 있는 민주당 소속 JB 프리츠커 일리노이의 주지사를 염두에 둔 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프리츠커 주지사를 직접 언급하며 “그는 연방 정부의 도움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혔다”며 “나는 시카고 주민을 해치는 게 아니



무장한 주방위군이 워싱턴의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관에서 순찰을 하고 있다.

라 돕길 원하고, 오직 범죄자만 당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일리노이 주민들과 함께 물체 보호를 요구해야 하고, 더 늦기 전에 당장 행동하라”고 촉구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군 병력 투입에 앞서 국토안보부(DHS)는 이날 시카고에서 불법 이민자의 음주 뺑소니 사고로 숨진 사건을 거론하며 이민자 단속을 위한 ‘미드웨이 블리츠 작전’을 개시한다고 밝혔다.

DHS는 성명을 통해 “범죄자와 불법 이민자는 프리츠커 주지사와 그의 피난처 정책(불법이민자 수용 정책)이 자신들을 보호하고 미국의 거리를 자유롭게 확보하게 해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시카고와 일리노이로 몰려들었다”며 “우리는 이들을 겨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DHS는 앞서 지난 6일에 보스턴에서

‘패트리엇(애국자) 2.0’으로 명명한 불법 이민자 소탕 작전에 돌입했다.

일리노이 주지사와 시카고 시장은 모두 미국 야당인 민주당 소속이다. 특히 시카고는 민주당 소속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이기도 하다. 지금까지 트럼프 행정부는 LA를 시작으로 워싱턴에 군 병력을 투입했고, 시카고와 보스턴엔 ICE가 주도하는 이민자 단속 작전을 벌이고 있다. 이들 도시는 모두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다.

워싱턴포스트(WP)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강력한 단속 전략에 대한 지지세가 약화되면서 이민 문제와 관련한 갈등이 불거졌지만, 민주당 역시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강력한 조치가 강성 지지층 결집을 위한 목적일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태화 기자

워싱턴 지역 단신

스미소니언 우다·헤이즈 항공우주박물관 확장

버지니아 페어팩스 카운티 찬틀리에 위치한 스미소니언 우다·헤이즈 항공우주박물관이 4만4천 스퀘어 피트를 확장하는 공사를 시작한다. 박물관 측은 1992년 개관 이후 첫 대규모 확장공사로, 북쪽 전시 공간

을 확장해 새로운 전시실과 참고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사는 2028년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당국에서는 모두 6천만달러 이상의 예산을 책정했으며 모금활동을 계속한다고 밝혔다.

VA 의사 처방전 있어야 코로나 백신 접종

버지니아에서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접종하려면 의사 처방전이 필요해 혼선이 초래되고 있다. 연방질병예방통제센터(CDC) 백신자문위원회가 18일부터 양일간 회의를 거쳐 최종 결정을 내릴 예정인 가운데, 이날 회의에서도 의사처

방전을 요구할 가능성이 상당하다. 특히 고령자 등 노약자들은 백신 접종을 위해 의사 처방전을 구할 목적으로 닥터스 오피스 방문이 늘고 있다. 메릴랜드는 의사처방전 없이도 CVS 등에서 접종이 가능하지만, 백신 품귀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DC 주방위군 최소 11월30일까지 주둔

워싱턴DC 주방위군 주둔 시한이 10일(수) 종료되지만, 워싱턴DC 정부는 주방위군과 연방법집행기관 요원들이 최소한 11월30일까지 주둔

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DC 소집 주방위군 955명과 타주 주방위군 1355명 등 총 2300여 명이 주둔해 있다.

VA 양로원에서 89세 여성 성폭행 당해

버지니아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 경찰국은 해롤드 레온 에드워즈 주니어(뉴저지 월 타운쉽 거주)를 성폭행 혐의로 체포했다고 밝혔다. 용의자는 지난 6일(토) 오후 8시경 파라마운트 시니어 리빙 양로원에서 89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용의자는 이 양로원에 거주하는 가족을 면회하기 위해 방문

했으나,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다. 용의자는 양로원 직원이 발견해 신고함으로써 사건 전모가 밝혀졌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당국에서는 용의자의 나이를 공개하지 않았으나 60대로 추정된다. 트 서커스 공연을 선보이는 것으로 유명하다.

레이건 공항 활주로 정비차량 탓에 회항 사태

연방항공국(FAA)는 지난 8일 오전 리퍼블릭 항공 4528 여객기가 레이건 공항 33번 활주로에 착륙허가를 받았으나, 이 활주로에 정비 차량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관제소에 통보하는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여객기는 다른 활주로를 이용해

무사히 착륙했다. FAA는 사고의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지난 1월29일 레이건 공항 근처 포토맥 강 상공에서는 관제 실수 등이 겹쳐 군 헬기와 민간 여객기가 충돌해 두 항공기 탑승객 전원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옥채 기자

▶ 1면 ‘줄타기 외교’에서 이어집니다

실제로 크리스티 놈 연방국토안보부 장관은 “체포 및 구금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맞받았으며 ‘자진출국’이라는 말 대신 ‘추방’을 사용했다. 놈 장관은 “조지아에서 진행된 작전을 통해 구금된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법을 따르고 있다는 점을 잘 알아야 하는데, 그들은 추방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정부가 자진출국 형태로 이변 사태를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수차 강조한 사실과 배치된다.

추방은 재입국이 어렵다는 점에서 자진출국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놈 장관은 또한 “일부 수감자는 최종 퇴거 명령 이후에도 계속 미국에 체류했다”고 발언해, 사전에 불법 체류자에 대한 퇴거 통보가 있었던 사실을 암시했다.

하지만 원청기업인 현대차와 LG에너지솔루션과 하청업체들은 단속 이전에 퇴거 통보를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한국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인 전문인력 대상 별도 비자 쿼터(E-4 비자) 신설을 요구하고 있으나, 트럼프 행정부가

자국민 일자리 보호 정책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극히 낮다는 예측이 우세하다.

한국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미국내 공장 완공이 지연돼 미국도 손해 볼 수 있기에 대미 투자를 망설이는 업계 분위기도 강해질 수 있어 트럼프 행정부도 전향적인 자세를 취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으나, 현지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단일한 태도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옥채 기자

워싱턴 날씨 (°F)

9월 10일(화) 72-58

11일(목)	82-57		14일(일)	84-60	
12일(금)	82-57		15일(월)	82-59	
13일(토)	83-59		16일(화)	82-59	

워싱턴 중앙일보

7023 Little River Tpke #310, Annandale, VA 22003

The Korea Daily (USPS 020-081)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and Postal holidays that fall on Mondays for \$120 including applicable Virginia Sales Tax per year by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pke., Annandale, VA 22003. Periodicals Postage paid at Annandale, VA and at additional mailing offices.
POST MASTERS: send address changes to The Korea Daily.

연순향 부동산 703-489-6926

sunnyyeon@gmail.com

RENT
센터빌 엔드유닛 타운홈
\$3,000
차고 1, 방 3, 화장실 3 1/2

RENT
헤이마켓 엔드유닛 타운홈
\$3,900
차고 2, 방 4, 화장실 3 1/2

형사법 전문 변호사

ERIK JURGENSEN

막막한 순간, 나에게 힘이 되는 변호사를 믿으세요. 현재는 물론 미래에도 영향을 끼치는 형사사건, 대응에 부족함이 없어야 합니다.

■ 음주운전 / 교통위반

■ 폭행 / 아동학대

■ 절도 / 횡령

■ 기물파손 ■ 마약

시작이 강해야 결과가 강합니다

20년 이상 한인사회를 위하여 일하고 있는 강하고 힘있는 법정 변호사, 데이빗 막스! 정확안 분석력과 정보,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실력으로 합당한 판결을 받아드리겠습니다.

저희 손을 잡으십시오. 저희에게 맡기십시오. 그리고 편히 주무십시오.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DAVID MARKS

David L. Marks, ESQ 데이빗 막스 변호사

• 20년간의 법정경력

• Rated AV-PREEMINENT

• SUPER LAWYERS

• Member of "MILLION DOLLAR ADVOCATES FORUM"

•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LAWYERS

• TOP ATTORNEYS IN VIRGINIA

에릭 저겐슨 변호사 C. Erik Jurgensen, ESQ

• TOP Criminal Lawyers by Northern Magazine

• TOP 20년간의 법정경력

형사법,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상담부터 재판까지 페어팩스 카운티 검사출신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상담 무료

교통사고 문의, 데이빗 막스 변호사와 함께하세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Connie A. Yoon
카니 윤 법무이사

Super Lawyers

David L. Marks

Martindale-Hubbell

NOTABLE

Peer Rated for Strong Ethical Standards

2009

THE NATIONAL TRIAL LAWYERS TOP 100

www.davidmarkslaw.com

703.385.1100

10513 Judicial Dr. #204, Fairfax, VA 22030

FREE

The Ultimate Accident Guide

버지니아 자동차 사고 보험 청구 세번째 가이드북 출간

이 책을 읽으시기전까지 보험회사와 연락하지 마십시오. 703-385-1100으로 연락주시면 무료로 위의 책자를 드립니다.

체류 증명 휴대하고 다니세요

연방대법원 “외모·영어 미숙 등으로 판단해 이민 단속 가능”

연방대법원이 외모와 언어를 기반으로 벌어지는 연방이민당국의 단속이 적법하다고 판결해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방대법원은 이민세관단속국(ICE)의 불법 체류자 단속 활동을 제한한 연방제9항소법원의 가처분 명령을 취소해 달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9대3으로 통과시켰다.

애초 이민단체는 외모와 언어 등을 근거로 이민자를 표적 단속하는 행위가 차별적이고 헌법에 위배된다고 소송을 제기해 항소심에서 잠정 승리했으나, 연방대법원은 적법하다고 최종 판단했다.



이민당국이 사실상 유색인종과 영어미숙자에 대해 불법체류를 의심하고 수사를 진행할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연방대법원의 보수성향 대법관 6명은 외모, 인종, 언어, 거주지, 직업 등으로 판단해 불법 체류를 의심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연방대법원은 단속 제한 가처분 명령을 해제하면서 요원이 외모 등에 근거해 합리적 의심이 있을 경우 일시 구

금하고 심문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즉, ICE 요원이 특정 개인의 외모, 인종, 언어, 거주지, 직업 등을 통해 정황상 불법 체류자로 판단되면 불심검문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민단체들은 이번 판결로 전국적으로 이민자에 대한 무차별적 단속이 가능해져 인권 침해 소지가 매우 크다고 우려했다.

이민법 전문가들은 이번 판결로 사실상 모든 한인들은 잠재적 단속의 대상이 됐다고 전했다. 영주권자는 그린카드, 시민권자는 시민권 사본이라도 지니고 다니는 것이 좋다.

특히 한인들이 다수 종사하는 각종 서비스 관련 업소에서 일할 경우 전방위적 단속에 대비해 체류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지참이 중요하다.

김윤미 기자

초인종 장난하다 살인사건?

불법 침입에 정당방위 주장

버지니아 스왓살베니아에서 발생한 초인종 살인사건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피고 측이 전혀 다른 주장을 내놓으며 정당방위를 주장했다.

지난 5월3일 마이클 보스워스 주니어 등 3명의 18세 청소년이 테일러 체이스 버틀러와 그 가족이 거주하는 집에 초인종을 누르는 장난을 치다가 버틀러의 총격으로 보스워스가 사망했다. 청소년들은 이런 모습을 소셜미디어 틱톡에 올릴 목적이었다고 진술했다.

하지만 가해자 가족은 3명의 청소년이 주택 옆 문을 통해 이미 뒷마당으로 침입하는 등 가택 침입 행위에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격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최근 열린 재판에서 피고 측 가족들은 “피해자 가족이 겪고 있는 고통을 인정하지만, 우리는 단지 가족을 보호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피고 측은 검찰 측에 청소년들이 불법 약물, 마약 관련 도구, 알코올 및 마스크를 소지하고 있었다는 정보를 범정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윤미 기자

“우회전할 때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추세요”

메릴랜드 몽고메리

위반시 벌금 90달러



메릴랜드주 몽고메리카운티 교통부(MCDOT)는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 차량 운전자가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경우 빨간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8일 밝혔다.

적신호 우회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는 운전자는 벌금 90달러와 운전면허 벌점 1점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메릴랜드 주에서는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표지판이 없는 한 적신호 우회전이 허용되어 왔다.

최근 베데스다, 프랜즈십 하이츠, 실버 스프링, 휘튼 등 인구 밀도가 높은 도심 구역과 저먼타운, 글렌몬트, 화이

트 플린트 등 지역의 지정 교차로에는 ‘적색 신호시 우회전 금지’라는 표지판이 설치되어 위반 차량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있다.

빨간불에서 우회전 금지 조치는 2023년 안전도로법(법안11-23)의 일환으로 통과되어 몽고메리 카운티 도로에서 보행자와 자전거 타는 사람의 안전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성한 기자

웨스 무어 메릴랜드 주지사, 재선 도전

캠페인 영상 통해 선언

2028년 대선 출마 포기

웨스 무어(사진) 메릴랜드 주지사가 9일 재선을 위해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공화당의 어느 후보와 맞붙게 될지 관심이 모인다.

무어 주지사는 이날 역사적인 2022년 선거 운동을 회상하는 캠페인 영상을 통해 발표가 이뤄졌다.

영상에서 그는 메릴랜드주 역사상 최초의 흑인 주지사가 되었고, 당선 이후 범죄, 세금, 예산, 중산층 문제에 대



한 노력도 언급했다.

메릴랜드 매터스에 공개된 녹취에서 무어 주지사는 “우리가 중산층을 위해 싸우는 동안 연방 정부는 공무원들을 해고하고, 메디케이드를 변경하고, 식품 가격을 인상하고 있다”고 트럼프 행정부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재선 도전 발표는 2028년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지 이틀 만에 나와 관심이 모아

지고 있다.

현재 메릴랜드주 민주당 경선에서 선두주자로 꼽히는 무어 주지사는 은퇴 교사인 랄프 자페에 이어 두 번째로 주지사 선거 출마 의사를 밝혔다.

앞서 출마 계획을 알린 자페 은퇴 교사는 1992년 이후 8번에 걸쳐 주지사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를 했지만 계속해서 고배를 마셨다. 한편, 최근 웨스 무어 주지사의 인기도를 감안할 때 재선 성공은 무난할 것이라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김성한 기자

포드, 후방 카메라 결함으로 150만대 리콜

2015~2019년형 모델

후진시 사고 위험있어

포드자동차가 후방 카메라 문제로 워싱턴을 비롯한 미주 전역에서 약 150만대 차량을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차량이 후진할 때 후방 카메라가 중앙 디스플레이 화면에 빈 이미지나 왜곡된 이미지를 표시할 수가 있어 사고 위험이 있다는 점에서 운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은 8

일 발표한 공지에서 “운전자가 차량 뒤편을 볼 수 있는 시야가 줄어들거나 왜곡되어 충돌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하며, 현재 이 문제와 관련된 사고 18건을 인지하고 있으며 부상이나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



다. 이번 리콜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생산된 링컨 네비게이터(Lincoln Navigator), Lincoln MKC, 머스탱 랜저(Mustang, Ranger), Transit, Transit Connect, Econoline, Edge, 익스페디션(Expedition), F-250 SD, F-350 SD, F-450 SD, F-550 SD 차량이 포함된다.

김성한 기자



1985
Protecting Your Dreams Since

오직 오니!

보험에 관한 모든 선택 - 오니화재

- 사업체보험
- 자동차보험
- 집보험
- 의료보험
- 생명보험

광고는 때때로

OMNI

1-866-915-6664



김진옥

척추신경전문의

- 1 최신행 의료시설 완비
- 2 최신행 X-Ray 완비
- 3 교정 및 물리치료
- 4 의료보험

703-691-3111

고객의 꿈을 실현하는



메트로시티은행

METRO CITY BANK

SBA 융자, USDA 융자, 주택 융자

센터빌 지점 571-490-7655 애난데일 지점 571-335-7163

한번고객은 평생고객



탑여행사

www.toptravelusa.com

info@toptravelusa.com

센터빌 **703.543.2322** VA
애난데일 **703.256.0606** VA
엘라콧시티 **410.480.0100** MD

항공권도매직판점

추천이 피로할 무는 부동산



갤럭시부동산

- 20년 이상 경력
- 주택 매매·렌트 전문
- 연 80 ~ 100여 채 주재원 렌트

로리 정

대표 에이전트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캠페인 출정식에 초대합니다

친애하는 한인 동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번에 버지니아주 페어팩스 카운티 브래덕 디스트릭트(Braddock District) 수퍼바이저 보궐선거에 출마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리는 캠페인 출정식에 여러분을 정중히 초대합니다. 보궐선거의 공식 선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나, 민주당 경선이 곧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출정식에서 저의 비전과 계획을 나누고자 하오니 많은 성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문일룡 페어팩스 카운티 교육위원 드림

Authorized and Paid for by Moon for Braddock District

행사 일정

- ★ 일 시: 2025년 9월 12일 (금) 오후 5시 30분 ~ 8시
- ★ 장 소: **Crafthouse**
(페어팩스 카운티 정부청사 인근 Fairfax Corner 내)
11861 Palace Way, Fairfax, VA 22030
- ★ 참석 여부: info@moonforsupervisor.com
703-687-7668
(캠페인 매니저)

* 자세한 선거 관련 정보는
www.moonforsupervisor.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에 깊이 감사 드립니다.



불안한 한국 지상사들 인력 철수·출장 중단

‘한국인 체포’ 사태 후폭풍
대체할 인력 없어 골머리
영업·생산 위축 등 불가피
지역 한인 상권에도 여파

조지아주의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한국인 323명이 체포된 사건 이후,
한국 지상사들은 인력 철수, 출장 및 파
견 중단 등 크게 위축된 모습이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곳은 단속 현장인 조지아주의 한

국 기업들이지만, 그 여파는 남가주를
비롯해 미 전역의 한국 지상사로 확산
하고 있다. 이민 당국이 앞으로 불시 단
속을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미국에 진
출한 한국 기업들은 최대한 몸을 사리
는 분위기다.

한 제조업체 관계자는 “E(투자),
I(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시민
권자를 제외한 출장 및 협력 업체 인원
은 모두 철수하라는 지침이 내려졌다”
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공장을 운영
하는 업체 관계자도 “BI(단기 상용비
자)와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소
지 직원들은 모두 본국으로 귀국시키

는 중”이라고 전했다.

인력 파견 하청업체 관계자 역시 “조
지아가 아닌 다른 지역에서도 단속에
걸릴까 봐 일부는 아예 직원들 출근을
시키지 않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현대차와 LG는 미국 출장을 중단
했으며, 다른 한국 기업들 역시 출장뿐
아니라 파견까지 보류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현대차는 이번 주부터
“필수 불가결한 경우가 아니면 미국 출
장 보류를 검토하라”고 공지했다.

한국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경제
인협회가 8일(한국시간) 공동 개최한
대미 투자기업 간담회에서도 비자 규

정 준수가 강조됐다. 한국 업체들은 기
계 설치, 수리, 유지보수 등 필수 작업
의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서부와 동부
에 식품 생산공장 4곳을 운영하는 A
업체 관계자는 “한국과 일본에서 만든
생산설비를 다룰 수 있는 전문 인력이
미국 내에 많지 않다”며 “그동안 한국
엔지니어들이 와 설치와 유지보수를
담당했는데, 앞으로 공장 운영을 어떻
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했다.

이번 단속 여파는 한인 상권에도 미
치고 있다. 한국 식음료 B업체 관계자
는 “한국 기업들의 투자로 동부지역 한
인 상권이 크게 성장했다”며 “하지만

현재는 지역 상권이 섰다운 상태라 남
품업체들도 매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이로 인해 대
안 마련 요구도 커지고 있다. 한 대기업
미주법인장은 “본사나 협력업체에서
파견한 직원들은 현실적으로 무비자
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며 “한미 투자
진흥을 위해서라도 비자 문제가 조속
히 정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기업협회(KITA·회장 김
한수)는 지난 5일 LA총영사관(총영사
김영완)과 함께 회원사에 긴급 공지를
내고 본사 직원 미국 출장 시 합법 비자
취득을 당부했다.

김형제 기자

“모든 공립학교 내 기도할 권리 보호할 것”

트럼프, 새 지침 발표 예정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워싱턴
DC에 있는 성경박물관 연설에서 공립
학교 내의 기도예에 대한 권리를 위한 새
로운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강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법무부 종교
자유위원 회의에서 “교육부는 조만간
공립학교에서의 기도를 보호하는 지
침을 발표할 예정인데, 이는 전면적 보
호”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 지침과 관련 구체적인 설명
은 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역사의 대
부분 동안 성경은 전국의 모든 교실에
있었는데, 오늘날 상당수 학교에서는

학생들의 반종교적 선전으로 세뇌당하
고 있을뿐만 아니라 일부는 종교적 신
념 때문에 처벌을 받고 있다”고 심각성
을 알렸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신앙이 약해
지면 나라도 약해지는 것 같다. 하지만
지금처럼 신앙이 강해지면 미쳐 생각
하지 못한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며 신앙 작동 방식에 놀라움을 나
타냈다.이에 대해 연방 교육부는 전국
학교에서 종교의 자유를 증진하려는
노력을 환영한다며 “학교 기도는 지난
반세기 동안 공공 생활에서 가장 논란
이 많은 문제 중 하나였다”고 지적했다.

이날 연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
리는 신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자유·가치·주권
을 수호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1960년대 초, 대법원은 주정부
가 후원하는 종교 활동을 학교에서 금
지하는 획기적인 판결을 내려 파문이
일기도 했다. 이때 판결은 학교 내에서
종교 활동을 완전 금지한 것은 아니고
일정 부분 개별적 또는 그룹으로 기도
할 권리를 유지했다. 하지만 기도를 장
려하는 데 있어 교사, 행정가, 성직자의
역할을 크게 제한했다.

학교 행사와 졸업식, 그리고 과외 활
동에서의 기도를 둘러싼 논쟁과 입법
적 갈등이 계속되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문제 해결에 팔을 걷어부치고 나선
것이다.

김성한 기자



앤드루 인(오른쪽)
공군 대위가 지난 6
월 4일 아비야노 공
군 기지에서 타드
클라크 공군 준장으
로부터 단일 작전 공
로훈장을 수여 받고
있다. [공군 제공]

한인 전투기 조종사, 훈장 받았다

중동 지역에서 파병 임무 마쳐

미사일 요격 임무에 투입돼

한인을 포함한 공군 전투기 조종사 9명
이 해군 함정 보호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해 훈장을 받았다.

군사 전문 매체 ‘DVIDS’의 최근 보
도에 따르면 공군 측은 중앙사령부 중
동 지역 작전 구역 파병 임무를 마친 제
510 원정전투비행대대 조종사 9명에게
지난 6월 단일 작전 공로훈장(Single-
Event Air Medal)을 수여했다.

훈장을 수여받은 조종사 9명 중에는
한인 앤드루 인 대위도 포함됐다.

이들은 홍해와 아라비아해를 포함
한 중동 지역에 파병돼 해군 자산을 보
호하기 위한 다양한 방공 임무를 수행
했다. 파병 기간 동안 1400회(8000시
간)에 달하는 출격을 기록했다.

인 대위는 “지난 4~5년간 F-16 전투
기를 훈련하며 익힌 능력을 실전에서
 발휘할 수 있었다”며 “해군 함정으로
향하는 크루즈 미사일을 요격하는 임
무도 수행했다”고 밝혔다.

김경준 기자

K뷰티 열광...한국행 여성 급증

WSJ,미용주사 인기 조명

캐나다 비해 가격 저렴해

뉴욕에 거주하는 브리트니 입(25)은
최근 서울을 찾았다.

소셜미디어(SNS) 피드에서 자주만
눈에 띄는 매끄럽고 탱탱한 피부의 여
성들이 모두 ‘리쥬란’이라는 주사 덕분
이라고 극찬했지만, 미국에서는 이 주
사를 맞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됐기
때문이다.

서울에서 리쥬란을 맞고 뉴욕으로
돌아온 그는 얼굴에서 광채가 나기 시
작했고 “친구들도 모두 피부가 좋아 보
인다고 칭찬했다”며 만족감을 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최근 이처
럼 미국 여성들이 피부에 탄력을 준다

는 미용 주사 리쥬란을 맞기 위해 한국
행을 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리쥬란은 연어 세포
에서 추출한 DNA 조각을 포함하는
분자 사슬인 PN으로 만들어지며 피부
재생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4년 한국에서 처음 출시된
이후 20개국에서 사용이 승인됐지만
아직 식품의약품(FDA) 승인을 받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리쥬란이 주사제가 아
닌 세럼이나 크림 형태로만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제니퍼 애니스톤이나 김 카
다시안(사진) 같은 유명 연예인들이 레
이저 시술 후 리쥬란을 국소적으로 바
르는 방법 등을 극찬하면서 리쥬란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고, 주사를 직접 맞



기 위해 한국행 비행기에 오르는 사람
들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WSJ은 캐나다처럼 리쥬란 주사가
승인된 곳에서도 가격이 너무 비싸 저
렴한 한국을 찾기도 한다고 전했다.

교통사고 / 개인파산 전문 신성재 변호사

“ 교통사고 최대보상을 위하여
변호사가 직접 법정에서 끝까지 싸워 드립니다.
저희에게 대충 합의란 없습니다. ”

- 교통사고 최대보상 · 개인상해 / 민사소송
- 개인파산 Chapter 7 / Chapter 13 (Payment Plan)

파산을 통하여 경제적 고통으로 부터 해방 되시기 바랍니다. 30년 경력의 파산 전문 변호사가 도와드립니다.

★ 신뢰할 수 있는 소송 전문 변호사 그룹 ★

DC LAW GROUP
LEGAL COUNSELORS

VA

571.999.2755
4326 Evergreen Ln. #C
Annandale, VA 22003

MD

301.775.2774
630 E. Diamond Ave, Suite F
Gaithersburg, MD 20877

Fax: 240.775.3004 / E-mail: sjshin.esq@gmail.com

같이 일하실 사무장 구합니다.
전화 또는 이력서를 이메일 sjshin.esq@gmail.com 으로 보내주십시오.



일본인 수용소 수감 67% 한국인

2차 세계대전 때 하와이 시설
일본계 미국인 강제 수용 목적
4000명 중 2700명이 한국인

연방정부가 2차 세계대전 당시 자국의 안보 위협을 이유로 국내에 거주하는 일본계 미국인을 강제 수용한 시설에 수천 명의 한국인도 수감됐던 것으로 최근 드러났다.

일본계 미국인 강제수용소였음에도 실제로는 한국인 수용자 수가 7배에 달했다는 것이다.

하와이 지역 매체 ‘호놀룰루 시빌 비트’는 지난 5일 이 같은 사실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하와이주 오아후 섬 중앙에 있는 호노울리울리 강제수용소에 수감됐던 4000여 명 중 2700명이 한국인이었던 사실이 최근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반면, 해당 수용소에 수감됐던 일본계 미국인은 불과 약 400명 뿐이었다.

이는 최근 호노울리울리 강제수용소 터가 국립사적지로 지정된 지 올해로 10주년을 맞아 하와이 한인이민연



호노울리울리 강제수용소에 수감된 한국인 명부의 일부. [하와이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구소(소장 이덕희), 하와이대학교의 공동 연구를 통해 알려지게 됐다.

이덕희 소장은 5일 본지와 통화에서 “대부분 일본군에 강제 징집돼 강제 노역을 했던 한국인들로 미국과의 전투 중 포로가 된 한국인들”이라며 “일부는 일본인이 운영하는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하다가 붙잡힌 경우도 있었다”

고 말했다.

당시 수용소로 이송된 일부 한국인은 종장 또는 자장을 입은 상태였으며, 일본군에게 학대를 당한 흔적도 있었다. 수용소 내에서는 한국인과 일본계 수감자 사이 갈등이 격화돼 양측을 분리해야 했던 기록도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준 기자

트럼프 서명 ‘외설 편지’ 공개 앱스타인 논란 재점화

(아동 성착취범)

민주당 의원들이 SNS에 편지 올려

여성 신체 윤곽선에 ‘Donald’ 서명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2019년 숨진 아동 성착취범 제프리 앱스타인(사진)에게 보낸 것으로 추정되는 외설적 그림이 담긴 편지가 8일(현지시간) 공개되면서다.

미 하원 감독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앱스타인의 2003년 ‘생일 책’에 실린 편지를 X(옛 트위터)에 공개했다. 편지엔 여성의 나체 윤곽선과 함께 ‘도널드’와 ‘제프리’가 대화하는 문장이 적혀 있다. 하리 아랫부분에는 ‘도널드 J 트럼프’란 글자와 트럼프 필체와 흡사한 ‘Donald’ 서명이 있다. 월 스트리트저널(WSJ)은 “서명은 여성 음모를 흥내낸 것 같다”고 지적했다.

트럼프가 이 편지를 썼다면 이는 기존 트럼프 주장과 배치된다. 트럼프는 지난 7월 WSJ의 외설 편지 작성 의혹 보도에 대해 “나는 그림을 안 그린다”며 WSJ 소유 주 루퍼트 머독 등을 상대로 100억 달러(약 14조원) 명

예웨슨 소송을 제기했다.

테일러 부도위치 백악관 부비서실장은 최근 몇 년간의 트럼프 서명을 공유하며 “(공개된 서명)은 트럼프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1987~2001년 트럼프가 한 이름만 적은 서명과 흡사하다”고 반박했다.

성 접대 의혹도 재점화되고 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가치가 떨어진 여성을 트럼프에게 2만2500달러(약 3100만원)에 판다”고 적은 앱스타인의 글과 사진도 공개했다. 미 정계에선 앱스타인이 작성한 정·관계 인사 성 접대 명단이 있고, 트럼프도 명단에 있을 거란 의혹이 제기돼 왔다.

법무부가 지난 7월 성 접대 명단이 없다고 발표하자, 앱스타인의 타살설과 민주당 인사들의 성 접대 의혹을 믿는 마가(MAGA) 진영마저 트럼프에 반발했다.

다만 앱스타인 범죄에 트럼프가 연루됐다는 증거가 나온 건 아니다. 미 정치전문매체 악시오스는 “마가 세력도 공개된 편지가 조작됐으며 트럼프를 지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승호 기자



맥도날드, 팁 문화에 반기

전미레스토랑협회 공식 탈퇴
구인 경쟁력 강화 꿈수 비판

85년 역사의 맥도날드가 외식업계의 오랜 팁 문화에 반기를 들었다.

맥도날드는 지난 4일 전미레스토랑협회(NRA)를 공식 탈퇴했다. NRA는 1919년 설립된 최대 규모의 외식업 이 익단체다. 최저임금 인상 반대, 팁을 고려한 최저임금 이하 급여 허용 등을 지지해왔다.

맥도날드의 NRA 탈퇴엔 팁 문화에 대한 반대 의지가 담겼다. 맥도날드 최고경영자(CEO)인 크리스 캠프친스키는 지난 2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팁 문화와 관련해 “현재 불공정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계층 근로자가



연방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팁 문화는 외식업계에 만연한 저임금과 맞물려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거치면서 외식업 경기는 얼어붙었지만 인건비를 포함한 각종 비용은 크게 뛰었다. 부족한 인건비를 팁으로 메우는 업계 관행은 심해졌다.

부담은 고객과 근로자 몫으로 돌아

갔다. 외식 결제 시스템 운영사인 토스트(Toast)의 조사 결과 2021년 초 19.9%에 달했던 평균 팁 비중은 지난해 9월 말 19.3%로 하락했다. 모자란 급여를 팁으로 충당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는 의미다.

다만 맥도날드의 주장에 ‘불순한 의도’가 깔려있다는 비판도 있다. 팁을 받으면 직원별 보수 정산 등 관리 비용이 추가로 든다. 또 맥도날드 직원은 서비스 특성상 일반 식당 직원보다 팁을 많이 가져가기 어렵다. 맥도날드 입장에선 팁을 많이 주는 식당과 직원 유치 경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다.

한편, NRA 입장은 강경하다. 팁 덕분에 많은 음식점 직원의 시간당 임금은 27달러(전국 평균)로, 최저임금(연방 기준 시간당 7.25달러)을 훨씬 웃돈다는 주장이다.

조현준 기자

401k 잔액 사상 최고치 2분기 13만7800불로 상승

은퇴연금 제도인 401k에 역대 최대 규모의 잔액이 쌓였다고 피델리티 인베스트먼트가 발표했다.

최근 CNBC에 따르면 피델리티는 보고서를 통해 올해 초 시장 변동성으로 감소하던 401k 은퇴연금 계좌 평균 잔액이 2분기에 반등해 13만7800달러를 기록했다.

개인 은퇴연금 계좌인 IRA의 평균 잔액도 전년 대비 5% 상승해 13만1366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델리티는 401k 계좌 잔액이 커지며 잔액이 100만 달러 이상인 계좌의 숫자가 2분기 말 기준 59만5000개로 1



분기 대비 16% 늘었다.

IRA를 통해 잔액이 100만 달러를 넘어선 계좌 숫자도 16% 증가해 사상 최고치인 50만1000개에 달했다.

피델리티는 대다수의 은퇴 저축자는 시장 혼란기에도 계속해서 기여금을 납입하는 등 꾸준히 저축을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AK

김경태 공인회계사

회계업무
세무보고
비즈니스 설립

세무보고 상담환영!

410.719.1000

Fax. 410.719.9198
3300 N. Ridge Rd., #280, Ellicott City, MD 21043

맞춤 융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라면
융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융자 · 상업융자 · 재정상담

NMS, Inc. NMLS #201332

410-370-4229 / 301-275-1494

맞춤형 연금 & 재정관리

Lori Moon

“오늘의 계획으로
미래의 재정 안정을!”

703.895.7648

3949 Pender Dr. #250, Fairfax, VA 22030

세라젬

내 척추길기와 굴곡도에 맞추는
특허기술 “척추 온열 의료기기”

공간 효율적이고 우아한 안마의자 “파우제”

무료 체험 가능 · 무이자 할부 가능 (K-마켓 안에 위치)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For your many sides,
there's Nationwide®.

AUTO - 자동차보험 | HOME - 주택보험 | LIFE - 생명보험
BUSINESS - 사업체보험 | RETIREMENT - 은퇴연금

Nationwide®
is on your side

21111 Heritage Park Circle
Silver Spring, MD 20906

Albert Kim 보험

albert@wkkinc.com

Won K. Kim Insurance Agency, Inc.
Licensed in DC, MD, VA, DE, PA, GA

Silver Spring (301) 962-8300
Baltimore (410) 465-5499
Virginia (703) 312-0909

Products underwritten by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and Affiliated Companies. HomeOffice: Columbus, OH 43215. Subject to underwriting guidelines, review, and approval. Availability varies. Nationwide, Nationwide Is On Your Side, and the Nationwide N and Eagle are service marks of Nationwide Mutual Insurance Company. ©2018 Nationwide CPO-0836AO (08/16) 7400524

영아패션

YOUNG AH FASHION

한국 최신패션! 최고의 퀄리티!
유명 브랜드의 고품질 제품을
매우 저렴한 가격으로 장만하세요!

<

日 새 총리 가를 ‘변수’ …“야당과의 제휴”에 달렸다

일본 집권여당인 자민당이 오는 10월 4일 새 총리 선출에 들어간다. 자민당 총재를 겸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사임에 따른 새 총재 선거로, 신임 총리는 자민당 총재 선거 이후 임시국회를 통해 지명될 전망이다.

자민당은 9일 도쿄 자민당 본부에서 회의를 열고 선거 일정을 확정했다. 지난해 10월 이시바 정권 출범 이래 중의원(하원) 선거와 올해 참의원(상원) 선거에서 연패하며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한 위기감을 반영해 전국 105만여 명의 당원과 당우(자민당 후원 정치단체 회원), 소속 의원들의 의중을 반영한 이른바 ‘폴스펙’으로 불리는 선거 방식을 취하기로 했다.

자민당의 총재 선거 일정 확정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은 10월 초 임시국회 소집을 요구하기로 했다. 의원내각제인 일본은 다수 의석을 차지한 당의 대표가 총리가 되는 구조로, 자민당 총재로

선출된다 하더라도 중·참 양원에서의 지명선거를 거쳐야 총리로 임명될 수 있다.

이시바 총리의 사임 발표 이틀 만에 빠른 속도로 선거 일정이 윤곽을 드러낸 가운데 이번 선거의 핵심은 야당과의 제휴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줄을 잇고 있다. 자민당이 양원에서 소수여당으로 전락한 상황에서 안정적인 정권 운영을 위해선 거대 야당과의 협력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가 고이즈미 신지로(小泉進次郎·44)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64) 전 경제안전보장담당상상의 양강 구도가 될 전망이다. 야당과의 합종연횡 가능성이 이번 선거의 승패를 가를 것이라는 설명이다.

눈길을 끌고 있는 것은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이다. 아사히신문은 고이즈미 측에 오랜 우군으로 자리잡고 있는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전 총리의 존재가



지난 5월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이 비축미 방출에 대해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당과의 협력 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분석했다. 스가 전 총리가 극우 성향이 강한 일본유신회와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자민당 내 각료 경험자가 “유신회와 잘 되면 (고이즈미 정권) 오래 간다”는 발언이 나올 정도다.

지난해 치러진 중의원 선거에서 자민

당(196석)은 연립여당인 공명당(24석)과 합쳐서도 과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 38석을 보유한 일본유신회를 우군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미다.

반면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의 야당과의 협력 가능성엔 의문을 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아베 신조(安倍晋

三) 전 총리를 계승하겠다고 자민당을 지지하는 정통 보수층 표심은 공략 가능하지만 야당과의 제휴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다. 특별히 우려를 낳는 부분은 연립여당인 공명당과의 관계다.

지난 7일 사이토 데쓰오(齊藤鉄夫) 공명당 대표가 “우리 이념에 맞는 분이 아니라면 연립정권을 구성할 수 없다”고 일찌감치 선을 그은 것이 다카이치 후보를 염두에 둔 발언이라는 해석도 있다.

최근 중·참 양원에서 의석수를 불려나가고 있는 국민민주당의 다마키 유이치로(玉木雄一郎) 대표 역시 자민당과의 연립 가능성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새 총재가 선출돼 총리가 되면 곧바로 중의원을 해산하고 선거를 치를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석수를 늘려온 국민민주당 입장에선 쉽사리 손을 잡기 어려우니 “정책으로만 협력하고 싶다”는 얘기다.

도쿄=김현에 특파원

트럼프, 우크라 난민 피살에 돌연 분노한 이유는?

연일 반(反) 이민 정책을 밀어 붙이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달 전 우크라이나 난민 출신 여성을 상대로한 ‘묻지마 살인’ 사건을 다시 조명하고 나섰다. 해당 사건이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시장이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 일어나자 이를 ‘범죄와의 전쟁’의 정치적 공세로도 이용하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워싱턴DC의 성경박물관에서 열린 백악관 종교자유위원회 회의 연설 후 기자들과 만나 “그녀는 그냥 앉아 있을 뿐이었는데, 갑자기 일어난 미치광이(lunatic)에게 잔인하게 찔렸다”며 “녹화된 장면이

너무 끔찍해서 제대로 볼 수 없었다. 우리는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 22일 노스캐롤라이나주의 살인에서 한 흑인 남성이 우크라이나 출신의 이라나 자루츠키를 흉기로 살해한 사건을 두고 한 말이다. 해당 사건은 SNS서 범행 현장을 찍은 감시카메라 영상이 뒤늦게 확산하면서 전국적으로 여론의 공분을 샀다. 피의자 데카를로스 브라운 주니어는 강도와 절도 등의 중범죄로 14번 체포된 전적이 있으며 지난 1월에 음금구조 서비스 911 신고를 오용한 혐의로 체포된 뒤 석방

됐다.

백악관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뒤 노스캐롤라이나주의 민주당 정치인들을 비난하는 별도의 성명문까지 냈다. 백악관은 “타락한 전과자들이 거리로 나가 강간, 약탈, 살인을 저지르고 국가를 파괴할 자유를 누리는 것은 노스캐롤라이나의 민주당 정치인, 검사, 판사들이 시민들을 보호하지 못하는 ‘워크(woke, 인종·성·성 정체성 차별에 저항한다는 뜻) 의제를 우선시한 결과’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그곳에서는 ‘무(無)보석 석방’과 ‘경찰 예산 삭감’ 같은 급진 좌파 정책이 타락한 직

업 범죄자들을 거리로 돌려보냈다”며 “민주당이 운영하는 도시에서 일상화됐다”고 했다.

일론 머스크도 X에 “범죄자들이 투옥되기 전에 체포되는 경우가 몇건 되느냐”고 논란에 참전했다. 머스크는 또 “만약 피해자가 흑인이었다면 길거리에서 폭동이 일어났을 것”이라는 보수 논객 벤 사피로의 발언을 공유하며 주류 언론이 흑인 피의자 사건에 침묵한다고 비판했다.

백악관의 이같은 강경 대응은 트럼프 대통령이 벌이는 ‘범죄와의 전쟁’의 정당성을 더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이 있는 워싱턴 DC와 LA 등을 ‘범죄 도시’로 낙인 찍으며 주방위군을 투입한 상황이라 노스캐롤라이나의 묻지마 살인 사건이 트럼프 대통령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가 됐다. 특히 노스캐롤라이나는 대표적인 스웬스테이트 중 한 곳으로 지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겼지만, 함께 열린 주지사 선거에선 민주당 후보가 당선되는 등 내년 중간선거에서도 격전지로 꼽힌다.

악시우스는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을 인용해 “이번 사건은 민주당이 범죄에 관대하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언급하는 주요 이슈”라며 “노스캐롤라이나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다를 것”이라고 했다.

이창훈 기자

나랏빚 줄이려 한 프랑스 총리, 의회는 내각 붕괴시켰다

바이루 총리 9개월만에 불신임

신용등급 강등, 재정 개혁안 냈지만 “민생 타격” 좌·우 정당 합심해 공격

재정 위기에 허덕이는 프랑스가 개혁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정치적 혼란의 수렁에 빠졌다. 프랑수아 바이루 총리가 이끄는 중도 보수 내각이 재정 개혁안을 들고나오자, 좌파와 우파 정당들이 나란히 손잡고 내각을 붕괴시키면서다.

프랑스 하원은 8일 정부 신임 여부를 묻는 표결에서 찬성 194표, 반대 364표로 바이루 내각을 불신임했다. 재적 의원 574명(3명 공석) 가운데 과반(288표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다. 프랑스 헌법상 총리는 하원 재적 의원의 과반수가 불신임에 찬성하면 즉각 사퇴해야 한다. 전임 미셸 바르니에 총리가 재정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긴급 재정안을 내놔다가 좌우 세력의 협공으로 3개월 만에 물러난 데 이어, 바이루 총리 역시 9개월 만에 총리직을 내려놓

게 됐다.

바이루 총리는 지난 7월 “국민들이 냉혹한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며 440억 유로(약 66조원) 규모의 예산 삭감안을 내놔다. 프랑스의 지난해 재정적자 규모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8%에 달한다. 유럽연합(EU)이 규정한 적자 한도(GDP 대비 3%)를 훌쩍 넘긴 수준이다. 공공부채 역시 GDP의 113%로, 유로존에서 그리스·이탈리아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바이루 총리는 국방을 제외한 정부 지출 동결, 공휴일



프랑스 하원은 8일(프랑수아 바이루 총리(왼쪽) 내각을 불신임했다. 표결 직후 바이루 총리와 에니 제네바르트 농업식량주권부 장관이 의회 의사당을 떠나고 있다.

[연합뉴스]

이틀 폐지, 세수 확대를 통해 재정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다. 에리크 롬바르프 프랑스 재무장관 역시 지금처럼 지출을

했다가는 “국제통화기금(IMF)이 개입할 위험이 있다”며 힘을 보탤

한지혜 기자

김민지 변호사



Prosper Law PLLC 대표

VA·MD·DC 면허

이력

- 대원외고 불어과 졸업
- 한국외대 영어/불어 전공
- 몬트리올 Concordia University에서 심리학 전공
- 캐나다 국방부에서 부 참모총장 및 국방장관 분석관으로 다년간 근무
- J. Reuben Clark Law School J.D.
- 미국 연방 지방법원, 유타 대법원 근무
- D.C., 버지니아 주 로펌 다수 근무

가정법 (Family Law)

- 합의이혼, 양육권, 양육비, 위자료, 재산분할, 이혼소송
- 가정폭력/접근금지 명령
- 이혼 후 양육권/양육비/위자료 변경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이민자 아내를 대변하여 승소한 케이스에 관한 기사가 2021년 12월 13일자 Virginia Lawyer's Weekly에 게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prosperlawpllc.com/)

민사 소송 (Civil Litigation)

- 리스 계약 분쟁, 집주인-세입자간의 분쟁
- 헌법/인권 침해 변호

항소 (Appeal)

- 버지니아 항소법원 (Court of Appeals) 에서 양육권/방문권, 이혼 관련 항소 케이스 다수 진행중

이민 (Immigration Law)

- 영주권/시민권
- 결혼 이민
- 가족 초청 이민
- 각종 비자
- 추방 방어
- 망명 신청
- 범죄 피해자를 위한 비자



VA 전화 TEXT: 703.593.9246

11166 Fairfax Blvd, Ste. 406, Fairfax, VA 22030

MD 전화 TEXT: 443.901.8693

5457 Twin Knolls Rd., Ste. 300, Columbia, MD 21045

mkim@prosperlawpllc.com

재미 워싱턴 제주도민회 모임 안내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님께서 미국 방문 일정(워싱턴·플로리다·애틀랜타) 중 오는 2025년 10월 19일(일) 저녁, 워싱턴 제주도민회와 함께하는 저녁 모임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도지사님 미국 방문을 환영하고 준비하기 위해 워싱턴 제주도민 회 모임을 갖고자 합니다.

- 일시: 2025년 9월 15일 (월) 저녁 5시 30분
- 장소: 애난데일 아난골
- 참석 대상: 재미 워싱턴 제주도민회 회원 및 가족

도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참고: 10월 19일 제주도지사님과의 저녁 모임에 참석을 희망하시는 분은 원활한 자리 배치를 위해 이번 주 내로 반드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미 워싱턴 제주도민회 김영기 (연락처: 703.585.8144)

업계 최초 | 프리미엄 정수기의 새로운 기준

CUCKOO

바리스타 정수기 런칭 프로모션



바리스타 정수기로 5년 이상 렌탈시

타사고객		쿠쿠 정수기 사용 고객	
최대 5개월 할인	+ \$100 OFF	월 렌탈료 \$5 할인	+ 다운페이 \$100 OFF

기간: 8. 28. 2025 – 9.26.2025 조건: 기간내 주문 & 9월내 설치

BRAND STORE 쿠쿠 AS 공식 수리처

- **VA 직영점** 13826 Braddock Rd #C, Centreville, VA 20121 Tel. 571-321-7776
- **롯데마트 Ellicott City** Tel. 410-750-8011
- **H Mart Annandale** Tel. 240-595-2257

프리미엄 제품	CP-SN102HW, CP-TN100S/DS, CP-P012T/G, CP-P011T/G, CP-QN1401SW, CP-KN501HW, CP-FN601HA, CP-FN601SA, CP-FR601HW, CP-FR602SW, CP-ACR1620SW, CP-ABNC100GWH, CP-WN601HW, CP-WN601SW, CAC-F3010FW, CAC-D2020FW, ND-A0609FG
일 반 제 품	CP-ADR051UW, CP-MN031W/WH, CAC-C1020FW, CAC-AA0910FW, CBT-IS1131REW/RRW, CBT-I1030RW, CWS-AO201W

사은품은 지역/매장/판매인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본 프로모션의 최종 해석권 및 결정권은 CUCKOO RENTAL AMERICA INC. 에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쿠쿠 렌탈 고객센터 또는 가까운 판매처 및 홈페이지를 방문하세요. 해당 프로모션 복수 고객 시 사은품 중복 증정, 단 패키지 상품은 사은품 적용 제외

- 동일 계약자 & 동일 빌링 & 동일 설치처 필수
- 사은품 관련 부품과 필터 등의 추가 구매 및 A/S는 유상 제공
- 구매 후 계약 해지 또는 반품시 지급된 사은품은 회수될 수 있음
- 일부 혜택은 중복 적용 불가

정청래, 야당과 악수 하루만에 “위헌정당 해산” 경고

민주당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내란단절 못하면 심판대상 될수도”
장동혁 “여의도 대통령 보는 줄”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며 “국민의힘이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심판 대상이 될지 모른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전날(8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재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여·여·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며 취임 후 처음 손을 맞잡았다. 하지만 이날 오전 이재명 정부 첫 정기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선 민생(10회)·협의(4회)보다 내란(26회)·개혁(17회)·청산(16회)을 주로 언급했다. 악수하기 전으로 돌아온 셈이다.

정 대표는 “내란 청산은 정치 보복이 아니다. 여야와 보수·진보가 함께 역사 청산이라는 오래된 숙제를 풀어 내야 할 때”라며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그 시작으로, 3대 특검법 개정

안을 신속히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3대 특검법은 특검팀의 수사 인원·범위·기간 확대 등을 담고 있다. 정 대표는 또 “내란전담재판부를 만들라는 국민적 여론이 높다”고도 말했다. 위헌 논란이 심각하지만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내란과 절연하고 내란의 늪에서 빠져나오라. 그리고 국민에게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를 하라”고 말했다.

이어 항의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접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이번에 내란 세력과 단절하지 못하면 위헌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 명심하라”고 경고했다. 정 대표는 또 “검찰·사법·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들”이라며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검찰과 관련해선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했다.

정 대표는 “어제 이재명 대통령과 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운데)가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마친 뒤 박수현의원 등과 인사하고 있다.

야 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합의한 ‘민생 경제협의체’는 실사구시 정신을 기반으로 보여주거식 협의체가 아니라 실질적 성과를 내는 협의체가 돼야 한다”며 “민주당이 든든하게 앞장서겠다”는 말도 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성장 정책에 민주당의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며 “반도체산업특별법” ‘인공지

능산업 인재육성 특별법’ 등을 입법 목표로 제시했다.

한 의원이 “반미 테러리스트”라고 외치는 등 국민의힘 측의 항의가 거칠어지자 정 대표는 “일단 들어보세요. 다 뼈가 되고 살이 될 겁니다”라고 말했다. 결국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는 본회의장을 떠났고, 민주당 의원들은 40

여 차례 박수로 화답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연설이 끝난 뒤 “거대 여당 대표의 품격을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러웠다”며 “기세는 ‘여의도 대통령’을 보는 것 같았는데, 내용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 독백을 하는 것 같았다”고 혹평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페이스북에 “협치의 의지를 보이는 대신, 마치 유튜브에 올릴 강성 지지층 대상 쇼츠 영상을 양산하기 위해 준비한 듯한 자극적 인사만이 가득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이날 국회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치는 게 원칙이다. 10일엔 국민의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잡혀 있어 11일 표결 가능성이 크다. 현직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이 있어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법원이 영장실질심사를 열 수 있다.

한영익·조수빈 기자

친여 유튜브는 징벌적 손해 배주시? 여당, 언론중재법 규제서 제외 방침

유튜브는 별도 법령으로 규제 추진
방통위 개편안은 과방위 소위 통과
야당선 “이진숙 축출 위한 졸속입법”

더불어민주당이 허위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추진하면서 기성 언론과 유튜브를 별도의 법령으로 규제하겠다는 방침을 세우자 논란이 커지고 있다. 기성 언론은 옥죄면서도 친여(親與) 성향의 유튜브 방송엔 규제를 피할 구멍을 내주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민주당 국민주권 언론개혁특별위원

회 간사인 노종면 의원은 9일 페이스북에서 “유튜브는 배액(倍額) 배상에 더해 그 특성에 맞는 제재 방안까지 정보통신망법에 담는다”고 했다. 신문·방송 등 기성 언론은 언론중재법으로, 유튜브 방송은 정보통신망법으로 각각 규율하겠다는 설명이다. 문제는 이 같은 규제 이원화가 민주당의 당초 방침을 바꾼 것이란 점이다. 지난달 18일 언론특위는 “언론중재법에서 접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에 유튜브도 일률적으로 또는 일부 적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노종면 의원)라고 브리핑했다. 언론중재법 개정을 통해 언론이든,

유튜브 방송이든 중과실이 인정되면 고의 여부를 따지지 않고 허위보도에 대해 N배의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하겠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민주당은 3주 만에 기존 설명과는 다른 방식의 유튜브 규제 방식을 택했다. 민주당은 이원화 규제가 “무슨 문제냐”는 입장이다. 노 의원은 “누가 유튜브를 (손해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느냐”며 “누가 유튜브는 봐주기로 한 것처럼 (기사) 제목 장난이나”고 했다. 하지만 유튜브 방송을 실제 규제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은 “(정

보통신망법 대상엔) 글로벌 플랫폼이 포함돼 미국 등 해외 정부의 반발이 있을 수도 있고, 징계와 징벌을 쉽게 하기도 어렵다”고 했다. 실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 직후 “디지털세와 법안, 규제 등 차별적 조치를 철회하지 않으면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친여 성향 유튜브가 민주당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만큼 이들 눈치를 보는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된다. 최근 대통령실은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등 유튜브 매체 소속

기자를 출입기자로 등록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정식 기자로 등록해 주면서 규제할 때 빼주는 건 무슨 논리냐”고 꼬집었다.

이날 과방위 소위는 이른바 ‘이진숙 사퇴법’으로 불리는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 법안을 민주당 주도로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공표되면 내년 8월 임기가 끝나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지위가 즉각 자동 상실된다. 국민의힘은 “이진숙 한 사람 축출을 위한 졸속 입법”(최형두 의원)이라고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강보현 기자

이 대통령, 미 구금사태에 “부당한 침해 재발하지 않길”

국무회의서 “제도개선 신속 추진”
B747 전세기 이르면 오늘 미국행

미국 조지아에서 한국인 근로자 300여 명이 구금된 사태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우리 국민과 기업의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르면 오는 10일 전세기를 띄워 국민 전원을 ‘자진 출국’ 방식으로 데려오겠다는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9일 국무회의에서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라며 “정부는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미국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합리적 제도 개선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겠

다”고 강조했다.

조지아 구금 사태 발생 닷새 만에 처음으로 직접 입장을 밝힌 이 대통령은 미국의 조치를 ‘부당한 침해’라고 명확히 규정했다.

항공업계와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르면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하츠필드-잭슨 애틀랜타 국제공항으로 향하는 B747-8i 전세기를 투입할 예정이다.

구금된 300여 명이 한번에 탑승할 수 있는 대형 여객기다. 소수의 일본인, 중국인 노동자도 이번에 함께 구금됐는데 이들도 전세기에 탑승할 가능성이 있다. 해당 전세기가 예정대로 10일 오후 애틀랜타에서 출발한다면 11일 오후 늦게 인천공항에 도착할 전망이다.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2012년부터 추진해 온 한국인 전문 인력 대상 취업비자인 E-4 비자 신설과 미국의 기존 전문직 취업비자인 H-1B 관련 한국인 쿼터 신설을 더욱 적극적으로 밀

어붙이겠다는 계획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오전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어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날 밤 워싱턴에 도착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9일부터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등과 남은 행정 절차에 대한 협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박현주·심석용 기자

1

5

조

통합보험

Retirement Income
은퇴자금

Chronic Illness Rider
간호자금

Life Insurance
생명보험

Terminal Illness Rider
사망선고시

Critical Illness Rider
병원비 보조

5 in 1

MetLife

John Hancock

Genworth Financial

TEANAMERICA

NATHENE

Allianz

Prudential

PACIFIC LIFE

ZURICH

Accordia Life

Columbus Life Insurance Company

Nationwide

Lincoln Financial Group

AIG

MassMutual Financial Group

ISW

Aetna

NATIONAL WESTERN LIFE

USA

■ 재정교육 (Financial Education)

■ 장기 간호 보험 (Long Term Care Ins.-Living Benefit)

■ 생명보험 (Life Insurance)

■ 학자금 교육 (College Financial Aid Education)

■ 노후대책 (Retirement Plan)

■ 건강보험 (Health Insurance)

■ 원금보장 연금상품 (Annuity)

■ 개인 건강보험(Personal Health Ins.)

■ 재산상속 (Estate Planning)

■ 단체 건강보험 (Group Health Ins.)

■ 주택/비즈니스 용자

■ 오바마케어(Affordable Care Act)

■ 메디케어(Medicare)

로리 문

Cell. 703-895-7648

send2lorimoon@gmail.com

“ 귀하에게 딱 맞는 보험회사로 맞춰 드립니다! ”

버지니아 (VA)

703.865.8788

3949 Pender Dr, Suite 250, Fairfax, VA 22030

버지니아 (라치몬드)

703.865.8788

14321 Winter Breeze Dr, Suite 15, Midlothian, VA 23113

메릴랜드 (MD)

410.995.8074

3277 Pine Orchard Ln, Suite 3, Ellicott City, MD 21042

UNI Worldwide

Financial Marketing

HANS TRAVEL

hanstravelusa@gmail.com
문의전화 703.658.1717
www.hanstravel.com
7601 Little River Tnpk., #201
Annandale, VA 22003

버스가 필요할때?
한스관광에 문의하세요!

HANS WORLDWIDE

데이빗한 재키조 조앤한 세라정 애나김 김문배

인솔자가 함께하는 한스여행

VA 한스 에이전트/로컬 투어 가이드 모집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atc.davidhan@gmail.com

3명이상 출발가능

워싱턴 DC \$100
당일투어

루레이동굴 \$125

추석연휴특선 VIP 대형 리무진 버스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650 10/6(월)-10/8(수) 확정

8명이상 출발가능

미리 예약하세요!

뉴욕 1박2일 10/2(목) 출발 **\$399**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2박3일 목요일 출발 **\$650** 10/27(월)

캐나다 나이아가라 & 뉴욕 3박4일 수요일 출발 **\$899**

미동부 캐나다 5박6일 월요일 출발 **\$1,350** 11/3(월)

중파형

서부4대캐년 5박6일 \$99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미서부 일주 8박9일 \$1,540 항공 불포함 일요일 출발

카리브해 올인클루시브 패키지

캐쿤/폰타카나 올인클루시브 딜럭스 호텔+항공 (가격문의)

워싱턴 최초 벤츠 VIP 대형 리무진 버스

캐나다 나이아가라, 몬트리올, 퀘벡

3박4일 9/25(목)-9/28(일) **\$950**

가을여행1

워싱턴 최초 벤츠 VIP 대형 리무진 버스

허드슨크루즈, 화이트마운틴 기차, 뉴포트, 보스턴

3박4일 9/29(월)-10/2(목) **\$1,099**

가을여행2

스모키마운틴

딕시스탬피드 디너쇼/루비폴/락시티/스모키마운틴 2박3일 10/24(금)-10/26(일) **\$899**

가을여행3

버지니아 사파리 & 네츄럴 브릿지

당일투어 10/25(토) **\$169**

가을여행4

팬스기빙 4박5일 코스타리카

따바콘 온천/행잉브릿지 커피투어/라빠스 생태공원 11/26(수)-11/30(일) **항공포함 \$2,090** 인솔자:세라정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골프 3라운딩 + 따바콘 온천 2026년 1/22(목)-1/27(화) 5박6일 **\$2,350** **항공포함** 인솔자:세라 정 **9/30까지 \$2,290** **엘리버드 세일!!** 1/8(목), 1/12(월) 4분이상 예약가능/연합투어 가격문의

고국의 맛! 프리미엄 고국투어

모든 옵션 포함!! **한스맛집** 전일정 5성급 호텔 리무진 버스 투어 2026년 4/11(토)-4/18(토) 인솔자:재키 조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딜럭스 7박8일 \$2,590 항공 불포함 서울-군산-목포-해남-순천-여수-진주-거제-외도-통영-안동-영주-원주-서울 (2025년 9/21, 10/12, 10/19, 11/2, 11/9 서울에서 출발) 내륙일주 6박7일 \$1,550 항공 불포함 전국일주(제주포함) 9박10일 \$2,350 항공 불포함

한스 인솔자와 떠나는 해외 여행		
09/14(일)-09/24(수) 서유럽3개국	항공 불포함	인솔자
09/30(화)-10/13(월) 동유럽 & 크로아티아, 돌로마이트	항공 불포함	마감
09/30(화)-10/07(화) 동유럽	항공 불포함	마감
10/06(월)-10/13(월) 크로아티아	항공 불포함	마감
10/09(목)-10/18(토) 캐나다&뉴잉글랜드 단풍	항공 불포함	마감
10/15(수)-10/26(일) 스페인 & 포르투갈	항공 불포함	마감
10/17(금)-10/30(목) 프랑스 일주 13박14일	항공 불포함	마감
11/29(토)-12/12(금) 하와이+뉴질랜드+호주(시드니)	항공 불포함	마감
10/15(수)-10/25(토) 가을, 프리미엄 고국투어	항공 불포함	마감
10박11일 \$2,9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인솔자
10/19(일)-10/31(금) 그리스 & 튀르키예	항공 불포함	조앤한
12박13일 \$3,690		
10/22(수)-10/31(금) 튀르키예 하이лай트	항공 불포함	조앤한
9박10일 \$2,890		
11/07(금)-11/19(수) 일본 알펜투어+북해도 맛여행	항공 불포함	재키조
12박13일 \$5,995	SMALL GROUP DELUXE	조앤한
11/26(수)-11/30(일) 팬스기빙 코스타리카	항공 불포함	세라정
4박5일 \$2,090	항공포함	
2026년 여행 미리 준비하세요~		
01/10(토)-01/19(월) 오만, 사우디 아라비아, 카타르	항공 불포함	마감
9박10일 \$5,190	SMALL GROUP TOUR	조앤한
01/16(목)-01/24(토) 바하마 크루즈 (볼티모어)	항공 불포함	마감
8박9일 인사이드 \$1,350부터 오션뷰 \$1,550부터		인솔자
01/22(목)-01/27(화) 코스타리카 골프 & 온천	항공 불포함	세라정
5박6일 \$2,350	항공포함	
01/29(목)-02/08(일) 신비의 북인도 여행	항공 불포함	재키조
10박11일 \$3,590		
01/29(목)-02/10(화) 북인도+두바이 Stop Over	항공 불포함	재키조
12박13일 \$4,850		
02/09(월)-02/14(토) 발렌타인 코스타리카	항공 불포함	애나김
5박6일 \$2,190	항공포함	
02/09(월)-02/21(토) 남인도+스리랑카	항공 불포함	조앤한
12박13일 \$5,150		
02/14(토)-02/21(토) 스리랑카 문화탐방	항공 불포함	조앤한
7박8일 \$2,980		
02/17(화)-02/26(목) 이집트 & 나일강 크루즈	항공 불포함	데이빗한
9박10일 \$4,190		
02/23(월)-03/22(일) 남미 일주(브라질, 아르헨티나, 칠레, 페루)	항공 불포함	재키조
27박28일 \$19,550		
02/23(월)-03/08(일) 파타고니아 & 이과수 폭포	항공 불포함	재키조
14박15일 \$9,900		
03/07(토)-03/15(일) 이스터 아일랜드 & 칠레	항공 불포함	재키조
8박9일 \$5,490		
03/14(토)-03/22(일) 페루 일주	항공 불포함	조앤한
8박9일 \$3,590		
03/23(월)-04/01(수) 모로코와 사하라 사막 탐험	항공 불포함	조앤한
9박10일 \$3,690		
일본 + 한국 + 중국		
03/30(월)-04/11(토) 일본 맛여행+한상의 벚꽃축제	항공 불포함	재키조
12박13일 \$5,995		
04/11(토)-04/18(토) 한국의 남해, 땅끝 마을을 찾아서	항공 불포함	재키조
7박8일 \$2,590	딜럭스 리무진 버스	재키조
04/20(월)-04/28(화) 중국 실크로드	항공 불포함	조앤한
8박9일 \$3,490		
04/09(목)-04/17(금) 베네룩스 3국	항공 불포함	세라정
8박9일 \$3,890	봄 특선!	
04/20(월)-05/01(금) 스페인 & 포르투갈	항공 불포함	애나김
11박12일 \$3,790		
05/04(월)-05/14(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항공 불포함	세라정
10박11일 \$3,590		
05/06(수)-05/18(월) 그리스 & 터키	항공 불포함	조앤한
12박13일 \$3,690		
05/31(일)-06/11(목) 알프스 파노라마 투어	항공 불포함	재키조
11박12일 \$5,995		
06/01(월)-06/13(토) 코카서스 3국	항공 불포함	조앤한
12박13일 \$4,490		
06/15(월)-06/28(일)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스카이 섬 & 아일랜드	항공 불포함	재키조
13박14일 \$6,695		
07/09(목)-07/14(화) 캐나다 록키 4박5일	항공 불포함	재키조
07/13(월)-07/26(일) 북유럽 4개국 & 발틱 3개국	항공 불포함	재키조
13박14일 \$6,695		
08/07(금)-08/21(금) 케냐,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 BLUE TRAIN	항공 불포함	재키조
08/07(금)-08/19(수) 아프리카 사파리, 빅토리아 폭포, 남아공	항공 불포함	재키조
08/07(금)-08/14(금) 아프리카 케냐	항공 불포함	재키조
08/07(금)-08/19(수) 아이슬란드 + 그린란드	항공 불포함	재키조
08/12(수)-08/18(화) 알라스카	항공 불포함	재키조
09/07(월)-09/16(수) 북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길	항공 불포함	재키조
09/17(목)-09/29(화) 발칸 일주 8개국	항공 불포함	재키조
09/28(월)-10/08(목) 서유럽 3개국 프랑스/스위스/이탈리아	항공 불포함	재키조
10/12(월)-10/23(금) 11박12일 포르투갈 & 스페인	항공 불포함	재키조

이외에도 다양한 여행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www.hanstravel.com 에서 더 확인하세요. 한스 여행사에 문의해 주시면 상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광고상의 가격, 일정, 호텔 등은 현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오토로 인한 가격 오류시 정가를 지불하셔야 하며 상품 예약 후 꼭 컨펌을 받으셔야 합니다.

선관위원 후보 위철환...야당 “대통령과 친분, 중립성 흔들”

위, 선관위 상임위원 될 가능성 커
부총리급 국민통합위원장 이석연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후보자로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신설을 앞둔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으로 박진영 JYP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가 깜짝 발탁됐다.

강한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인선을 발표했다.

위 후보자는 전남 장흥 출신으로 중동고와 성균관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법조계에선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18기 동기 중에서도 특별히 가까운 사이로 유명하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냈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

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이들 중 호선에 위원장과 상임위원을 각각 1명씩 뽑는다.

위원장은 대법관이 겸임하고 현재는 노태우 위원장이 선관위를 이끌고 있다. 장관급인 상임위원은 현재 공석이 라 위 후보자는 상임위원이 될 가능성이 크다. 임기 3년의 상임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사무총장을 통해 사무처의 사무를 감독하는 위치여서 선관위의 인사·조직에도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리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연수원 동기이자 식사 메이트, 대선 공개 지지 선언까지 했던 인사를 중앙선관위원에 앉혀 선관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뿌리째 흔드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국민통합



위철환



이석연



박진영



조성주

위원장에는 이명박 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변호사가 지명됐다. 강 실장은 “국민을 하나로 모으고 사회 갈등을 치유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새로 만든 대중문화교류위원회의 공동위원장에 최혜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함께 박진영 JYP 대표 프로듀서를 발탁했다. 강 실장은 “K팝 미국 진출을 가장 먼저 시도한 분”이라며 “정부는 뭐 하고 있는 나 세계적 공급증에 대한 화답”이라

인재개발원장 임채원,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장 김용석 등 차관급도 임명했다.

한편,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신임 한국산업은행 회장에 박상진 전 산업은행 준법감시인을 임명 제청했다. 내부 출신 인사가 회장에 임명된 것은 1954년 산업은행 설립 이후 처음이다. 1962년생인 박 내정자는 전주고를 거쳐 이 대통령이 나온 중앙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박 내정자는 “정치적 고려나 개인적 친분이 (경영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 된다”며 “산업은행 설립 목적에 맞게 국가산업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정상우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신임 감사원 사무총장에 임명 제청했다. 차관급인 사무총장 임명권자는 대통령이다.

한영익 기자

공항청사 ‘불법’ 점거도 그냥 넘어가라는 당정

용역노조 “고용승계” 11일간 점거 인천공항, 업무방해 혐의 고소하자 민주당·국토부 “취하하라” 압박 전문가 “노사관계 공정성 무너져”

더불어민주당과 국토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 청사를 불법 점거한 노조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압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통과 이후 불법 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가운데, ‘친노동’ 기조가 전방위로 확산하는 모양새다.

9일 인천공항공사 등에 따르면 한국노총 산하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은 지난달 4일 오전 청사 로비를 불법 점거한 채 11일간 시위를 진행했다. 공항공사가 방역 업체인 ‘세스코’와 신규 용역 계약을 체결하면서 기존의 명문코리아 소속 위생소독 용역 근로자 20여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는 이유였다. 이들은 100% 고용 승계를 요구했고, 공사의 중재 끝에 80%가 재고용됐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발생한 노조 시위의 불법성이다. 공항공사 측은 청사 점거를 주도한 한마음노조 위원장을 업무방해,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으로 지난달 5일 고소했고,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다. 공항공사는 “고용 승계 문제와는 별개다. 고소는 공공기관이자 시설관리자로서 ‘법과 원칙’에 의거한



한국노총 산하 한마음인천공항노동조합은 지난달 4일 오전부터 11일간 인천공항공사 청사 로비를 불법으로 점거한 채 100%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시위를 진행했다. [사진 독자]

것”이라며 “청사가 불법 점거당한 사례는 창사 이래 최초며, 적법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선례로 남아 질서 문란 행위가 반복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까지 나서서 고소 취하를 압박하고 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민주당은 그렇다 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국토부가 산하기관에 불법 시위를 용인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인천공항공사가 국토부에 고소 취하의 근거가 될 만한 유권해석이나 지침을 문서화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건 국토부가 거절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에 게 “(불법 파업은) 공사가 잘못해 발생한 부분도 있는데 노동자에게 사과할 수 없 할망정 고소를 하느냐”며 “취하할 생각이 없냐”고 질타했다.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의원도 “고소를 취하할 생각 있냐”고 묻고는 국토부에 “다음 회의 때까지 공항공사를 설득하든 국토부가 입장을 정해서 정리해 달라”고 했다.

이학재 사장은 “불법 점거해도 합의만 하면 없었던 일로 한다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되는 것”이라며 “다른 정부종합청사나 국가 공기업에서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세종=김경희·김연주 기자



극한 가뭄 강령 ‘제한급수 대비 세트’ 등장 극심한 가뭄으로 재난 사태가 선포된 강원도 강릉의 한 생활용품점에서 9일 물통과 양동이 등 ‘제한급수 필수품’을 판매하고 있다. 강릉 지역 주요 식수원인 오봉저수지 저수율은 이날 오후 10시 기준 역대 최저치인 12.2%까지 떨어졌다. [연합뉴스]

집수리비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저렴하게 수리해 드리고 팔아 드리겠습니다!!

FAIRFAX REALTY 50/66 LLC

11130 Fairfax Blvd. #105
Fairfax, VA 22030

페어팩스 타운홈

UNDER CONTRACT

\$647,000

방3/화2.2/차고1, End Unit
매우 관리 잘된 집, 편리한 로케이션

클립턴 싱글홈

\$1.5M

방5/화4.5/차고3, 1.05에이터
새지붕, New HVAC, New Thompson C 창문
Dream Home for You

페어팩스콘도

PENDING

\$235,000

방1/화1, 솜스하이 근처
넓은 공간, 수리한 집

스프링필드 타운홈

PENDING

\$510,000

방2/화2.55
업그레이드 많이 한, 관리를 잘한 집

여전히 매물이 부족합니다.
동네 최고가로 팔아드리겠습니다.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김경아 부동산** 703-919-0472 jennetpro4u@gmail.com

GTAX Consulting Group

703-844-0355 / www.gtax1.com

4000 Legato Rd. Ste. 1100, Fairfax, VA 22033

정승욱
연방세무사

IRS 감사
세무당감
전문

김영선
연방세무사

“세금 보고, 절세 전략, 세금 문제 해결, 각종 비즈니스 지원 서비스를 통해 고객의 성공을 돕습니다. 저희는 빠르고 저렴하며 고객이 만족하는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개인 세금 보고

- 50개 주 개인 세금 보고 / 세무 상담
- 해외 자산 및 수입 보고
- 자녀 학자금 신청 및 상담
- 세무 감사 대행 / 세금 탕감 신청

사업체 세금 보고

- 법인체, 사업체 설립
- 비영리 단체 설립
- 사업체 세금 보고 및 세무 업무
- 장부 정리 및 직원 PAYROLL

재정 설계 및 노후 계획

- 은퇴 설계 / 개인 연금 Annuity, IRA
- 생명 보험 / 장기 요양 보험
- 직원 복지 / SEP, 401K
- 오바마케어 / 메디케어

www.hyebanmd.com

KOREAN BBQ

HYEBAN



한국식 BBQ 구이 전통 한식

런치 스페셜 뷔페

(월 ~ 일 11AM ~ 3PM)

뷔페 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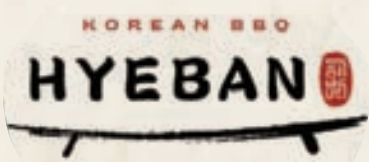
스시, 쌈밥, 강된장, 비빔밥, 나물,
육개장, 생선조림, 불고기, 제육,
양념치킨, 탕수육, 돈까스, 생선구이,
소고기 무국, 우거지 된장국, 호박죽,
떡볶기, 김말이, 오뎅, 만두, 잡채,
샐러드, 고구마 튀김, 김치, 깍두기,
밀반찬,...



정통 한식 구이의 불맛과
신선함이 만나는 곳,
엘리콧시티에서 가장 인기 있는 장소,
“**헤반(HYEBAN)**”에서
완벽한 점심을 즐기세요!

월, 화, 목, 일
수요일
금, 토

오전 11시 ~ 오후 10시
정기 휴무 / CLOSED
오전 11시 ~ 오후 11시



443.420.3096

HyeBan23@gmail.com

9380 Baltimore National Pike, #117, Ellicott City, MD 21042

구인

스시 맨, 스시 보조
(숙소 제공 가능)

국민·사람·경제 가장 많이 말했다

“사람 목숨을 그렇게 하찮게 여겨도 되느냐.”(2일 국무회의)

11일 취임 100일을 맞는 이재명 대통령은 공개석상에서 ‘사람’(230회)이라는 단어를 유독 많이 언급했다. 일반적으로 주권자인 일반을 호명할 때 쓰는 ‘국민’(416회) 다음으로 많이 사용된 단어였다.

중앙일보보 취임일인 지난 6월 4일~
지난 4일까지 3개월간 나온 이 대통령
의 공개석상 모두발언 70건과 10건의
연설문·축사를 윤호영 이화여대 커뮤니케이션·미디어학부 교수와 함께 전수
조사했다. '사람'이란 단어는 특히
'목숨'(22회), '걱정'(15회), '만
전'(萬全·6회) 등과 함께 사용
된 경우가 많았다. 이 대통령
이 취임 직후부터 '산업재해와
의 전쟁'을 벌여온 영향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월 5일 예정에 없던 토요일 국무회의를 열고 “제가 (그 동안) 산업재해 대책 얘기를 했 나, 안 한 것 같다”며 산재 문제를 처음 화두에 올렸다. 당시 이 대통령은 “(한국이) 전 세계에서 산업재해 발생률이 가장 높고 사망률도 가장 높다”며 “현재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면 제도를 바꾸는 입법 대책까지 전부 총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후 산재 관련 발언의 수위는 갈수록 높아갔다. “OECD 국가 중에서 산업재해율이 가장 높다고 하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는 반드시 끊어낼 것”(7월 17일), “(같은 회사 사업장에서 발생한 사고는)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7월 28일), “(포스코인원시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 공공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할 것”(8월 6일) 등의 경고와 주문들이 이어졌다. 지난 2일 국무회의에선 “산재 단속과 예방이 건설 경기를 죽인다는 항의가 있다고 한다”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불법과 비인권적 조건에서 건설업 경기를 활성화하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대통령이 세 번째로 많이 쓴 단어는 '경제'(145회)였다. '경제'는 중도 실용을 표방한 이 대통령 초반 행보의 키워드

이대통령 취임 100일
공개 발언 전수조사

주권자 뜻하는 국민 416번 언급
산재와의 전쟁에 사람 230번 발언
성장·민생 강조, 경제 145번 사용

었다. 주로 ▶성장(102회) ▶산업(82회) ▶민생(49회) ▶회복(50회) 등의 단어와 함께 쓰였다. 6월 11일 한국거래소를 찾는 게 첫 현장 방문이었다. 이를 뒤엔 경제6단체장 및 기업 총수 간담회도 주재했다. 7월 3일 기자회견에선 취임 30일간의 성과로 “좀 괜찮다. 잘 돼간다” 싶은 점은 눈에 띄는 주식시장”이란 자평을 했다.

취임 98일째인 9일까지 비상경제점검 TF 회의 등 총 14차례의 경제·민생 관련 회의를 국무회의와 별개로 열었다. 한동안 미국과의 관세협상 등 외교·통상 현안에 집중했던 이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이후 다시 메시지의 초점을 민생과 경제 회복에 뒀다.

‘정부’(141회), ‘국가’(132회) 언급 빈도도 높았다. 이는 이 대통령 특유의 정부 주도 성장론과 관련이 있던 해석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틀 뒤인 6월 6일 초대 경제수석비서관에 적극 재정을 주장해 온 하준경 한양대 교수를 임명했다. 그 뒤 7월 5일 국무회의에서 의

결한 이재명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에는 경기 회복을 위한 총 13조원 규모의 소비쿠폰 사업이 반영됐다. AI(인공지능) 산업에 대한 접근도 국가 주도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AI 100조 투자”를 공약했던 이대통령은 취임 직후 SK 그룹 울산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 참석했고, 지난 8일에는 ‘AI 글로벌 3강 도약’ 공약의 밑그림을 설계할 국가AI전략위원회를 띄웠다.

‘공직자’(78회)도 ‘책임’(49회)과 맞물려 자주 사용됐다. 이 대통령은 취임 다섯 뒤인 지난 6월 9일 2차 비상경제점검 TF 회의에서 “우리가 쓰는 한 시간은 5200만 시간의 가치”라며 공직자의 책임을 강조했다. 7월 24일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확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 달라”고 지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7월 31일 고위 공직자 워크숍에선 공직자들을 ‘작은 신’에 빗대며 “성과 없는 자리에만 안주하는 공직자, 국민을 위해 일할 용기와 책임을 되면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곡’(78회), ‘관계’(87회), ‘발전’(84회)이란 단어도 함께 쓰인 경우가 많았다. 정권 초기부터 이 대통령이 트럼프 2기 행정부와외의 무역협상이란 시험대에 올랐기 때문이다. 정부는 7월 31일 ‘마스가(MASGA) 펀드’를 포함해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펀드를 지렛대 삼아 큰 틀의 한·미 관세 협상을 마무리했다. 지난달 25일(현지시간) 한·미 정상회담은 개최 직전 트럼프가 “한국에서 속청이나 혁명이 일어나는 듯하다”는 SNS 글을 게시하는 등의 돌발 위기를 뚫고 “트럼프 대통령의 환심을 사기 위한 이 대통령의 노력이 성과를 거뒀다”(블룸버그)는 평가를 받았다.

지난 4일에 미국 이민당국이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한국인 300여 명을 체포하는 돌발 상황을 맞았다. 지난 7일 미국과의 석방 교섭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9일 국무회의)라고 강조했다.

‘기업’(76회)이란 단어가 많이 쓰인 건 이 대통령이 정권 초반부터 불공정 해소와 노동관계법 처리에 힘을 실은 결과다. 이 대통령은 ‘기업 투명성 강화’라는 명분으로 재계가 반대하는 상법 1·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공포하는 과정에서 재계 및 노동계와 많은 간담회를 열었다. ‘민주주의’(97회)란 단어는 ‘국민’(416회)과 여여 자주 쓰였다. 이 대통령은 7월 13일 세계정치학회 서울총회 개막식 연설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증명한 것처럼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모든 것들로부터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더 많은 민주주의’뿐”이라고 말했다.

윤지원 기자

노조원 자녀 '고용세습' 작심 비판...“불공정 대명사, 다른 사람들 억울하지 않겠나”

〈KG모빌리티〉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일부 노동조합의 자녀 우선채용권을 언급하며 “불공정의 대명사가 아닌가. 이러서는 안 되겠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경제 전체의 파이를 키우려면 공정한 경쟁이 전제돼야 한다. 공정한 경쟁은 기업 분야뿐 아니라 노동 분야도 마찬가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극히 일부의 사례라고 믿지만, 최근 노조 조합

원의 자녀에게 우선채용권을 부여하려 말았다는 논란을 보도에서 본 일이 있다”며 “현직 노조원 자녀를 특채하라고 규정을 만들면 다른 사람들이 억울한 일을 당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국내 완성차 업체인 KG 모빌리티(옛 쌍용자동차)가 노동조합이 요구한 퇴직 희망 조합원 자녀의 특별 채용을 추진하다가 철회했다는 중앙일보 보도를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 9월 5일자 B3면>

최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처리 의지를 드러내고 임금 체불, 산업재해를 겨냥한 엄벌 발언으로 친(親)노동 행보를 보이던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선 “기업과 노조, 노조와 기업은 양측 모두 국민 경제의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금 체불이나 소홀한 안전 관리 등이 없어야 하는 것처럼 이런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노동자 측의

과도한 주장도 자제돼야 한다”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피차 책임 있는 행동을 취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된다”고 당부했다.

생계유지 이남 국무회의에선 민생 경제 회복 방안에 대한 토론이 이어졌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불합리한 유통 구조 개선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하정우 AI미래기획수석에선 “인공지능(AI)이 탑재된 농산물 가격 시스템 플랫폼

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 기획재정부의 서민금융 지원 대책 발표엔 금리가 15%가 넘는 점을 지적하며 "이자를 15% 넘게 주고 서민들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근본적 처방을 주문했다.

문화체육관광부엔 “(문화 산업계에선)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으로는 썩어가고 있다”며 “문화 예산을 많이 늘렸는데, 어디다 구체적으로 쓸지를 많이 고민해 달라”고 했다.

오현석 기자

정성호·김현지·김남준·이태형,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1그룹

〈법무부 장관〉 〈총무비서관〉 〈제1부속실장〉 〈민정비서관〉

이재명 정부의 인적 네트워크 중심엔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실 김현
지 총무비서관, 김남준 제1부속실장,
이태형 민정비서관 등 ‘4인방’이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재명 대
통령과 특별한 인맥이 없는 ‘개방형 인

사'는 51.2%로 문재인 정부 초기(31%)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았다.

1기 이재명 정부 고위직 인사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분석한 결과 정성호 장관과 김현지·김남준·이태형 비서관이 이재명 정부 고위 공직자 중에서 이 대

통령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구축해 온 1그룹으로 분류됐다. 실제 이 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불리는 인사들이 다. 바로 다음으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민석 국무총리, 강유정 대변인, 김성환 환경부 장관, 임광현 국세청장

등 12명이 2그룹을 형성했다. 두 그룹 간 지표 차는 미미했다. 또 우상호 정무석과 조현 외교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등 12명이 근소한 차로 3그룹을 형성했다. 상대적으로 인사 간 영향력이 분산돼 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문재인 정부와 비교하면 특징이 더욱 뚜렷하게 드러난다. 분석을 위해

입력한 ▶성남·경기 ▶민주당 ▶대선 캠프 ▶당대표 때 주요 당직 ▶법조계 인맥 ▶사법리스크 변호인단 ▶중앙대 출신 등 이 대통령의 일곱 가지 ‘인맥 고리’ 중 4개 이상을 공유한 고위직 인사는 ▶김남준 실장 ▶김남국 디지털소통비서관 ▶이태형 비서관 ▶정성호 장관 등 4명에 불과했다.

윤성민·조수빈 기자

☆☆ 추천이 꼬리를 무는 부동산

주목 매매 및 렌트	주소	가격	특징	상태
	16309 Sandy Ridge Ct Woodbridge, VA	\$970,000	Woodbridge 의 Powells Landing 단지내 court 에 있는 잘 생긴 싱글홈 4/20 마켓에 올라올 예정	
	8350 Greensboro Dr McLean, VA	\$445,000	베이커가 딱 원하는 조건의 집 8/18 세물만든 완료	NEW
	8512 Pine Spr Severn, MD	\$650,000	2.75% 균인 용자 그대로 이어번은 상당히 좋은 조건의 계약 성공 8/18 세물만든 완료	
	6110-A Hoskins Hallway Centerville, VA	\$480,000	손님이 딱 원하는 조건의 집을 경쟁해서 이김. 이거는 오피자 자산 있음.	NEW
	1631 Cecil St. McLean, VA	\$1,420,000	세입자 퇴거 다음 날 세물만들, 주인 (셀러) 이름으로 유릴터프 오픈할 필요 없음 7/1 세물만든 완료	
	1930 Battery Park Vienna, VA	\$1,315,000	여러 오피 경쟁 놓고 득템. 이거는 오피자 자산 있음. 5/20 세물만든 완료	

GALAXY REALTY 갤럭시부동산

☆☆ 최근에 마켓에 올리지도 않고 주인 *세입자 바로 연결한 집 (렌트 구하는 분도 환영함. 갖고 있는 집도 많음)

주소	기간	세입자
을 여름 /가을에 파권 나올 주택원 30여명 있음. 렌트 놓을 집 갖고 있는 집 주인 환영	8월 말~12월 말 입주 예정	\$2,000 ~ \$5,500 가격대 렌트
8220 Crestwood Heights Dr, McLean, VA	2년 NEW	주재원, 공황에서 바로 입주
8380 Greensboro Dr, McLean, VA	3년 NEW	주재원, 공황에서 바로 입주
1645 International Dr, McLean, VA	1년 NEW	주재원, 공황에서 바로 입주, 1년 렌트는 잘 안 주는데, 주인덕 에이전트를 아는 사람이와 반박함.
11828 Dinwiddie Dr, Rockville, MD	3년 NEW	주재원, 세입자, 특히 가족이 좋아함
14010 Tanners House Way, Centerville, VA	3년 NEW	주재원, 이전 세입자 4년 살고, 하루의 공실 없이 3년 렌트 이어감
11357 Ridgeline Rd, Fairfax, VA	2년 NEW	사랑하는 교민
3484 Beale Ct, Woodbridge, VA	8/10 입주가능 NEW	\$2,200 2층 트윈홈, 방 3, 화 1.5, 부엌 리모델링, 교통 상권 편리



로리 정
갤럭시부동산 대표 에이전트

사무실 (703) 622-0312 직통 (703) 625-9909

1952 Gallows Rd, #102, Vienna, VA 22182 (타이슨스 DMV 옆, 한미과학재단 1층)

김원근 변호사

재판·소송





- 민사·형사·이혼·강제집행·공사관련·세입자분쟁·비즈니스·프랜차이즈 분쟁·세금분쟁
-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가정폭력·범죄기록말소·임금 연장근로수당·경업금지
소비자 보호법 명예훼손·자동차 교통사고·산재보험·화재보험·자동차 보험·각종 보험사고
기타 각종 재판 및 소송처리

TEL: 571-278-3728

8200 Greensboro Dr., #900
McLean, VA 22102

Weon G. Kim
VA, MD, DC Attorney at Law

쪼개지는 금감원 ‘검은옷’ 시위, 한수원 노조는 용산 갔다

“금소원 분리, 공공기관 지정 반대”
금감원 직원 700명 본원에서 시위

‘탈원전 장관 밑’ 한수원도 항의
‘부산행’ 해수부는 진출 신청 러시

주요 부처와 산하 공기업들이 정부 조직 개편안의 후폭풍에 휘말렸다. 직원들 동요가 커지고, 관련 산업 경쟁력이 휘청인다는 우려에 반발이 본격화되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노동조합은 9일 대통령실과 국회 앞에서 정부 조직 개편안에 반대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다. 이번 조직 개편으로 원전 수출은 산업통상부가, 원전 건설과 운영은 기후에너지환경부로 쪼개지게 됐다. 원전 운영과 수출을 동시에 하는 한수원은 ‘시어머니’가 2명이 생기는 등 혼선을 빚을 수밖에 없다. 강창호 한수원 노조위원장은 “원자력을 탈원전주의자 김성환 장관에게 맡기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이번 정부 조직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현실화되면 국민만 전기요금 급등 등으로 수년간 고통을 받다가 다시 원상복귀될 것”이라고 말했다.

예산 뺀 기재부 “정책조정 역할 할지 의문”
정책 분야의 혼선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크다. 개편안대로라면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재생에너지·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과 전력 관련 정책을 가져간다. 국내 에너지 소비의 약 90%를 차지하는 석유·천연가스·석탄 등 화석연료 정책은 산업부에 남는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는



금융감독원 노동조합원과 직원들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로비에서 금감원 공공기관 지정 및 금융소비자보호원을 분리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을 규탄하는 피켓 시위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가스와 전력을 나눠서 관리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부처 간 칸막이 등으로 인해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 등에 문제가 생길 소지도 많다”고 말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은 원전 생태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구조적 모순을 안고 있다”며 “국내 사업과 해외 사업의 주무부처를 분리하는 것은 스스로 수출 경쟁력에 족쇄를 채우는 여러 석은 결정”이라고 밝혔다.

공직사회도 요동치고 있다. 9일 오전 8시 금융감독원 직원 700여 명은 서울 여의도 금감원 1층 로비에서 검은색 옷을 맞춰 입고 조직 개편 반대 시위를 벌였다. 금감원 전체 2200여 명 중 3분의 1에 달하는 대규모 인원이 모였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 기능이 분리돼 금감원과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으

로 쪼개진다. 안재훈 금감원 선임조사역은 “옵티머스 펀드가 사기적으로 운영됐다고 금감원 검사로 확인이 되면서 (소비자들이) 100% 분쟁 조정을 받은 것”이라며 “감독과 소비자 보호는 별개의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는데, 금소원 분리는 안 된다”고 했다. 금감원은 인사교류를 당근책으로 내세웠지만 금소원이 내부적으로 기피 부서로 이뤄진 데다, 신설 공공기관으로 지방에 설립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더해지면서 젊은 직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크다.

대규모 수술을 받게 된 금융위원회 역시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금융위 출범 후 공직생활을 시작한 행시 50기 이후 사무관들의 동요가 심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종으로 옮기는 것과 별개로, 재정경제부로 가게 되

면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이 떨어지게 되는 점을 우려하는 분위기”라며 “재정경제부로 가면 금융 외에도 경제정책, 국고 관리 등 여러 업무를 순환해야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그간 세종으로 가지 않고, 서울에 남은 데다 금융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을 수 있어 인기 부처로 통했다. 다른 금융위 관계자는 “조직이 해체 수준이 되면서 금융회사들이 협조해 줄지 의문이고, 일부 사무관은 관두겠다는 의사도 밝혔다”고 전했다.

금융위 대수술에 “금융사들 협조하겠나”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질 기획재정부는 정책 ‘컨트론타워’ 역할 등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기재부 국장급 공무원들은 “예산이 빠진 만큼 과거처럼 정책 조정 등의 기능을 할 수 있을지

의문인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부처 이동을 앞두고 내부 인사도 시작됐다. 기재부는 전날 선임 국장인 예산총괄심의관을 제외한 국장급 직위 4명이 모두 교체됐다.

산업부는 박탈감이 심하다. 에너지 분야는 한국전력·한국수력원자력·발전회사 등 덩치가 큰 공공기관이 많다. 한 산업부 과장급 직원은 “에너지실이 관으로 산업부의 조직이 축소되고, 역할이 줄어들면서 부처의 위상이 떨어질 수 있을 것이란 불안감이 있다”고 말했다.

조직 개편 대상은 아니지만, 부산로의 이전이 결정된 해양수산부 역시 동요가 이어지고 있다. 해수부는 최근 부산에 갈 수 없는 직원들에 대한 ‘일방 진출’을 허용했다. 통상 부처 간 이동은 1대1로 자리를 바꾸지만 이번엔 상황의 특수성을 고려해 타 부처에 수요만 있으면 직원의 진출을 허용하고 있다. 최근까지 약 10명이 일방 진출을 신청했고, 1대1 인사 교류는 20여 명이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성걸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는 “조직 개편 후 조직이 안정되기 위해 1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한 만큼 업무 성과 저하 등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며 “최선의 결과를 내면 좋겠지만 기재부나 산업부의 기능 조정은 정밀한 고려 없이 여당의 정치적 입장만 많이 반영돼 후폭풍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무원의 집단행동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진 KDI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세종행 등에 따른 반발은 공무원이라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수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효성·김남준 기자

중앙그룹·네이버, 중계권 계약 체결…“스포츠 미디어계 새 협업 모델”

〈올림픽·월드컵〉

전 경기 생중계·치지직 동시 중계
중앙그룹이 9일 네이버와 동·하계 올림픽 및 국제축구연맹(FIFA) 월드컵 뉴미디어 중계권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을 통해 양사는 전략적 파

트너십을 맺고 스포츠 미디어 업계의 새로운 협업 모델을 제시할 예정이다. 중앙그룹의 제작 역량과 네이버의 디지털 인프라를 결합해 새로운 스포츠 미디어 서비스를 구현하는 게 모델의 핵심이다. 네이버는 전 경기 실시간 생

중계와 치지직 동시 중계를 제공해 일부 경기만 선택해 보던 기존 중계의 틀을 깬다는 방침이다.

양사는 중계권 사업을 발판으로 한 다양한 부가사업 영역에서도 협력한다. 콘텐츠 공동 제작, 오프라인 이벤트 등

콘텐츠-커뮤니티-디지털을 결합한 시청자 중심의 생태계를 조성할 계획이다. 방송과 디지털을 통합한 인공지능(AI) 솔루션을 기반으로 시청 경험과 광고 효과를 아우르는 신사업 모델을 개척하는 한편, 올림픽과 월드컵의 공

공 가치를 높이기 위한 캠페인도 함께 추진한다. ‘응원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국민 통합과 사회적 화합을 도모할 계획이다. 중앙그룹 관계자는 “네이버와의 계약을 통해 스포츠 산업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제시하겠다”며 “이번 협력이 스포츠 콘텐츠 시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지훈 기자

자기도 모르게 소액결제…KT ‘사설기지국’ 통한 해킹 정황

KT 이용자 사이에서 무단 소액결제 피해가 이어지자 정부가 조사단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과기정통부는 9일 KT 이용자 무단 소액결제 사건과 관련해 이동통신 및

네트워크 전문가를 포함한 14명 규모의 민관합동조사단을 꾸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앞서 KT는 8일 오후 7시16분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이와 관련한 사이버 침해 사실을 신고

했다. 과기정통부와 KISA는 KT에 관련 자료 보전을 요구한 뒤, 같은 날 오후 10시50분 우편동 KT연구개발센터를 찾아 상황을 파악했다. KT 무단 소액결제 사건은 서울 금천

구, 경기도 광명시에 사는 KT 이용자 여러 명이 경찰서에 최근 자신도 모르게 모바일 상품권 구매 결제가 이뤄졌다고 신고하면서 알려졌다. 광명경찰서에 3800만원 피해 금액이 접수됐고, 금천경찰서에 780만원, 부천 소사경찰서에 411만원 등이 접수됐다.

특정 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이어지자 경찰은 해당 지역 대리점과 관련해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피해자들이 휴대전화를 개통한 지점을 파악했다. 하지만 개통 대리점이 제각각인 경우가 많아 명확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상황이다.

박종서 기자

호프스프링 아동 가족상담소

HopeSpring Child & Family Clinic, LLC

상담분야
아동, 청소년, 성인 상담, 부부 상담, 가족 상담, 놀이치료, 모래놀이치료, 미술 치료, 표현 예술 치료, 자녀문제 컨설팅, 부모 상담, 부모 교육 및 정신 건강 관련 강의

상담진료분야
우울증, 조울증, 불안장애, 분노조절장애, 강박증, 선택적 함묵증, 조현병, PTSD, ADHD, Autism, 섭식 장애, 발달장애 및 지연, 학교 내에서 문제 행동들, 부모자녀 갈등, 대인관계 갈등, 아동 학대(신체적 폭력, 성폭력 등), 가정폭력, 부부 갈등, 고부 갈등, 별거/사별/이혼/재혼 후 심리적인 어려움, 스트레스 관리법

약어 상담제
각종 건강보험 취급

정신건강 전문가 권미경, Ph.D. (Dr. Mi-Kyong Kwon)

- ▶ 한국과 미국에서 25년 이상 임상 경험
- ▶ National Certified Counselor
- ▶ National Certified TF-CBT Therapist
- ▶ Licensed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VA)
- ▶ Licensed Clinical Professional Counselor & Supervisor (MD)
- ▶ Licens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TX)
- ▶ Registered Play Therapist & Supervisor
- ▶ 전) 한국놀이치료학회 편집 전문위원
- ▶ 전) Kennedy Krieger Institute, Psychotherapist
- ▶ 전) Trauma Training Academy, Faculty

3915 Blenheim Blvd., STE 23A, Fairfax, VA 22030
www.hopespringchildandfamily.com
info@hopespringchildandfamily.com

나투라 치과

dental implants | bright smile

원장 강동호 Don Kang

- ◇ 서울대학교 치과대학 졸업 DDS
- ◇ 유펜 (Univ. Of Pennsylvania) 치과대학원 졸업 DMD
- ◇ 뉴욕대 (NYU) 치과대학 임플란트 수술 / 보철 과장 수료
- ◇ 한국, 미국에서의 27년 임상경력

“염증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건강한 치아

www.naturadent.net

임플란트 Implant **잇몸치료** Periodontal Surgery **치아교정** Orthodontics Invisalign

응급환자 Emergency **치아성형** Veneer Lumineers **신경치료** Root Canal Treatment

닥터 강이 구강교육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유튜브에서 나투라 치과를 검색하세요!

나투라 치과 페어팩스 T. 703-652-4265

9508 Lee Highway, #A, Fairfax, VA 22031 (구)롯데 쇼핑 근처에 있는 IHOP에서 Lee Hwy 건너편

“이춘재에 무너진 동생의 삶… 33년 만에 누명 벗어 후련”

윤씨 연쇄살인·성추행 용의자 연행
살인혐의 벗었지만 추행혐의 유죄
재심서 경찰 고문·수사조작 발견

검찰 “피고인과 가족에 사죄드린다”
형 동기씨 “무죄 도와주신 분들 감사”

“억울하고 답답하게 33년을 기다렸습
니다. 후련하네요.”

이춘재 연쇄살인 9차 사건과 강제 추
행의 범인으로 지목돼 수사와 재판 과
정에서 옥살이했던 고(故) 윤동일씨의
형 동기(62)씨는 9일 검찰의 무죄 구형
소식에 “도와주신 분들께 너무 감사하
다”는 말을 반복했다.

윤씨 형제의 비극은 1990년 11월 인
근 동네에서 10대 여성이 성폭행을 당
한 뒤 숨진 채 발견되면서 시작됐다. 이
른바 이춘재 9차 살인 사건이다. 이후
윤씨 집 근처에 사는 A씨가 강제 추행
을 당하는 일이 발생했다. 갑자기 찾아
온 형사들은 “A씨가 동일씨를 범인으
로 지목했다”고 주장하며 수갑을 채우
고 연행했다.

사라진 동일씨를 찾아다니던 가족
은 뉴스를 통해 소식을 접했다. TV 영



이춘재

상 속 동일씨의 모습
밑에 달린 자막엔
‘연쇄살인 사건 용
의자’라고 쓰여 있었
다. 동기씨는 “동생
은 학교 다닐 때 우
등상을 받을 정도로
모범생이었는데 살

인사건 용의자라는 뉴스를 보고 가족
들 모두 당황했다”며 “동생의 고교 담
임 선생님과 친구들도 찾아와서 ‘동일
이가 그럴 애가 아니다. 누명을 쓴 것
아냐’고 답답해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동일씨와 가족들의 접촉을
엄격하게 차단했다. 윤씨 가족은 변호
사를 선임한 뒤 현장 검증 장소를 찾아
갔다. 동일씨는 고문으로 통통 부은 얼
굴을 하고 “난 범인이 아니다”라고 말
했다고 한다.

다행히 이춘재 9차 살인 사건 피해자
교복에서 채취된 정액과 동일씨의 혈
액 감정 결과가 불일치하면서 살인 혐
의는 벗을 수 있었다. 하지만 A씨를 강
제추행했다는 혐의로 1991년 기소된
동일씨는 그해 4월 징역 2년 6개월에 집
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판결에 불복
해 상소했으나 모두 기각돼 1992년 1심



연쇄살인범 이춘재 사건에 연루돼 수사 과정에서 고문당하고 유죄 선고받은 고(故) 윤동일씨 형 동기
씨(오른쪽)와 재심사건 변호사인 박준영 변호사가 지난해 9월 취재진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이 확정됐다.

몇 달간의 옥살이를 마치고 나온 동
일씨의 삶은 무너졌다. 밖을 나서면 경
찰이 동향 파악을 이유로 감시했다. 주
변의 눈초리도 따라왔다. 가슴에서는
암 덩어리가 발견됐다. 2차례에 걸쳐
수술을 받았지만 1997년 27살의 나이

에 사망했다. 동기씨는 “고문 후유증과
억울한 마음 등이 암으로 나타난 것 같
다”고 말했다.

형 동기씨가 사건에 대한 재심을 청
구하게 된 건 2019년 9월 이춘재가 잡
히면서다. 이춘재는 이들의 이웃이자
동기씨의 중학교 동창이었다. 동기씨

는 “처음엔 설마 하는 마음이 컸는데
사건이 계속 보도되자 동생의 억울함
을 풀고 싶어서 재심을 청구하게 됐다”
고 말했다.

재심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찰관
들의 가혹 행위와 잘못된 수사 기록이
드러났다. 지난달 26일 증인으로 출석
한 A씨는 “당시 동일씨를 범인으로 지
목한 적 없다. 오히려 경찰에 ‘동일씨는
범인이 아닌 거 같다’고 했다”고 진술
했다. A씨는 당시 피해자 조서에 날인
하는 것을 거부했다고 한다. 진범은 아
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날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정윤
섭) 심리로 열린 동일씨의 재심 재판 결
심 공판에서 검찰은 “오랜 시간 불명예
를 안고 지낸 피고인과 그 가족에게 사
죄드린다”며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동일씨 사건을 수사했던 경찰관 4명
은 재심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끝내 재판정에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동기씨는 “생각해보니 동생과 짝은 사
진도 한 장 없다. 너무 후회된다”고 말
했다.

동일씨에 대한 재심 선고는 오는 10
월 30일 열린다. 최모란 기자

특검, 김건희 종묘 차담회 수사 “대통령실 이용해 사적 이익”

제한지역 ‘망묘루’ 비공개일에 방문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
여사의 ‘종묘 차담회’와 ‘김승희 의전비
서관 자녀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팀은 두 의혹 모
두 특검법상 수사 대상인 ‘윤석열 전 대
통령 재임 중 김건희가 대통령의 지위
및 대통령실의 자원을 이용해 사적 이
익을 추구했다는 의혹 사건’에 해당한
다고 판단했다.

김형근 특검보는 9일 정례브리핑에
서 “김 여사가 국가유산이자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종묘의 공개 제한 지역인
망묘루를 비공개일에 사적 지인들과의

차담회 장소로 무단 이용했다는 의혹
을 수사 중”이라며 “현재까지 종묘 관
리소장을 비롯한 관리 공무원들을 조
사했다”고 밝혔다.

차담회가 열린 날은 일반인이 관람
할 수 없는 휴관일이었으며 망묘루는
평소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곳이어서
특히 논란이 일었다. 지난달 2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성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차담회 전날 직원들에게
대청소시키고 냉장고까지 옮기게 했
다”며 “조선시대 왕들도 해보지 못한
호사를 누렸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고 말했다.

이와 관련, 특검팀은 유경옥 전 대통



한덕수 전 국무총리(왼쪽 사진)와 김상민 전 검사
가 9일 서울 광화문 김건희 특검 사무실로 출석
하고 있다. 장진영 기자

령실 행정관을 12일 소환 조사할 예정
이다. 유 전 행정관은 김 여사 수행을
담당했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여사에

게는 직권남용 혐의 등이 적용될 수 있
다. 직권남용 혐의는 공무원 신분이었
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다른 대통령
실 관계자들과의 공모를 전제로 한다.

특검팀은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
비서관 자녀의 학교폭력 무마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김 특검보는
“부당한 외압이 행사됐는지를 확인하
기 위해 경기도 성남교육지원청 등 관
련 기관으로부터 자료를 제출받는 등
내사에 착수했다”고 말했다.

해당 의혹은 2023년 7월 김 전 비서
관 자녀의 학교폭력 사건이 발생한 직
후 김 여사가 장상운 당시 교육부 차관
과 8분여간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며 불

거졌다.

김 전 비서관의 자녀는 초등학교 3
학년이었던 2023년 7월 10일과 17일 학
교 화장실에서 같은 학교 2학년 학생을
리코더와 주먹 등으로 여러 차례 가격
해 전지 9주의 상해를 입혔다. 피해 학
생 신고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는데 같은 해 10월 학폭위는 출석
정지 10일, 학급교체 등 처분을 내렸다.
강제 전학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다.

김 전 비서관은 2023년 10월 20일 국
회 국정감사 도중 해당 의혹이 제기되
자 곧장 사퇴했다. 김 전 비서관은 김
여사와 2009년 고려대 언론대학원 최
고위 과정을 함께 수료한 것으로 알려
졌다. 20대 대선 당시엔 윤석열 캠프 흥
보기획단장을 맡았다.

전민구 기자

‘아플 때 소득 보전’ 상병수당, 조건 따라 연간 1319억~3조5999억 든다

2027년 도입이 추진 중인 상병수당의
설계 방식에 따라 최소 1319억원, 최대
3조 5999억원 들 것이라는 추정이 나
왔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
장정책연구실장은 9일 국회 김선민·서
영석 의원이 주최한 ‘상병수당 제도화

를 위한 사회적 대화’ 토론회에서 이 같
은 방안을 발표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시간 외에 다치거나
병이 나서 일을 못 하게 되면 소득을 보
전해주는 제도이다. 2022년 7월부터 14
개 시·군·구에서 다양한 형태로 시범
사업을 시행해 왔고, 2027년 정식 시행

한다.

강 실장은 외래진료 포함 여부, 병
의 진행을 관찰하는 대기기간 일수 등
에 따라 4개 모형의 재정 소요액을 추
정했다. ‘대기 14일, 입원만 보장, 30일
지급’으로 하면 연 1319억원 들어간다.
‘대기 3일, 입원·외래 보장, 180일 지급’

으로 하면 3조5999억원이 필요하다. 강
실장은 “제도 방식에 따라 재정을 통제
할 수 있다고 본다. 1000억~5000억원의
비교적 적은 돈으로 시작하고, 점진적
으로 확대하면 된다”며 “대기기간은 7
일(자영업자는 3일), 수당 지급일수는
3개월로 하고, 월 소득 179만원 이하는

긴급복지가 말고 그 이상에게 지급하
자”고 제안했다.

김흥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
위원장은 “상병수당을 위한 별도 사회
보험을 만들고, 대기기간을 없애거나
짧게 해야 한다. 1년 6개월 지급하고,
수당액 최저선을 최저임금으로 정하
자”고 제안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막대한 부동산 비키리

9월 HOT 리스팅

셀러의 희소식 ~
집 팔러니 고민되지 않아요?
하루부터 열까지 신경 안 쓰시게 하여 제대로 팔아 드립니다.
집 수리 이쁘게 해서 빨리 팔아 드립니다. 최소한의 경비를 약속 드립니다.

새 빌더홈
페어팩스 중심가
타운하우스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3
\$1,000,000

새 빌더홈
페어팩스시티
타운하우스
방3, 화장실3, 차고2
\$930,000

새 빌더홈
채널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2, 화장실2
\$530,000

새 빌더홈
채널리 콘도
2025년 완공 예정
방3, 화장실2.5
\$670,000

비키리 부동산

전화 문자 **703-231-5572**

DC, MD, VA 브로커 면허 소유
북버지니아 부동산 협회 선정 17년 연속 탑프로듀서,
주택 관리 전문 회사

NVAR Diamond Member
Membership in the Top Producer's Club for 10 years of cumulative success
CONFIDENTIALITY NOTICE: The contents of this email message
and any attachments are intended solely for the addressee(s)
and may contain confidential and/or privileged information
and may be legally protected from disclosure.

애플러스 부동산 / 탑 프라퍼티 임대관리회사

버지니아 / 703-863-0321 D.C., 메릴랜드 / 301-399-0140

메디케어 보험

여기 **메디케어 진짜 잘하는** 헬스플랜 전문가와 함께 모든 베네핏을 누릴 수 있는 **답**을 찾으세요!

- 65세 되시는 1960년생 신규 가입신청과 가입
- Part C (HMO/PPO) 가입자들을 위한 추가 혜택
- 심장질환, 당뇨, 말기 신부전증을 위한 스페셜 플랜

-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DSNP 특별 보험
- 메디케어 Part D (처방약 보험)에 대해
- 타주 전입, 직장 퇴직 후 메디케어 신청

헬렌 서

BridgeOne Insurance Services Inc.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Tel: 571-225-0110

독점 Alexandria 콘도

넓은 방2, 화1, 탁 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74,900



독점 Reston 콘도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아메니티가 좋음

\$499,900



독점 Woodbridge 타운홈

방3, 화 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410,000



독점 Alexandria 콘도

방2, 화2, Top Floor 엔드유닛, 업데이트 되고
잘 관리된 콘도, 리모델링한 부엌과 화장실,
나무 마루, SS Appliances, Granite Countertops,
Deck, 건조기 및 세탁기

\$365,000



대표 정희수
703.477.3114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한 편안한
집을 소개합니다!
내집 마련의 꿈!
현대 부동산이 함께합니다!**

상담환영 (집 파실 분 · 사실 분 · 경매)



Principal Broker 세리 리
703.244.6526

Hyundai
Realty Incorporation

현대부동산

Tel: 703.813.8949, 703.813.8150~5

7369 McWhorter Place #422, Annandale, VA 22003

우리말 바꾸기

가여운 아이와 가엸은 아이

열심히 책을 읽던 중 ‘저 가여운 아이를 보아라’라는 대목을 발견한 한 독자가 있다. 이 독자는 고개를 갸우뚱했다. ‘저 가엸은 아이를 보아라’라고 해야 바른 표현이 아닌가 문득 의문이 들었기 때문이다.

우리말은 소리 나는 대로 쓰기보다 원래의 형태를 밝혀 적는 경우가 많아 ‘가엸다’를 소리 나는 대로 잘못 쓴 표현이 ‘가엹다’라고 알기 쉽다. 그러나 ‘가엸다’와 ‘가엹다’는 둘 다 표준어로, 고민하지 말고 아무거나 쓰면 된다. ‘가엸다’는 ‘가엸어/ 가엸은/ 가엸으니’, ‘가엹다’는 ‘가엸워/ 가엸운/ 가엸으니’ 등과 같이 활용해서 쓰면 된다.

국립국어원에서는 ‘이’는 한 가지 의미를 나타내는 형태 몇 가지가 널리 쓰이며 표준어 규정에 맞으면 그 모두를 표준어로 삼는다는 규정(표준어 사정 원칙 제26항)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와 비슷하게 ‘썰다’와 ‘서렵다’도 복수 표준어다. “갈 곳 없는 내 처지가 너무도 썰다” 등처럼 쓰이는 ‘썰다’는 실생활에서 쓰이기보다 문학작품이나 노래 가사 등에 종종 등장한다. 그 래서인지 ‘썰다’가 맞춤법상 올바른 표현은 아니지만 문학작품 등에서만 특별히 허용된 ‘시적 허용’이 아닐까 생각하는 이도 있을 법하다. 하지만 ‘썰다’와 ‘서렵다’가 많은 이에게 두루두루 쓰이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모두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한인커뮤니티를 위한 제언, 신문을 보고 느낀 점, 문예작품, 독자투고 등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을 기다립니다. 워싱턴 중앙일보 편집국 오피니언 담당자: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이메일: dc.thekoreadaily@gmail.com 전화: 703-281-9660 ◆오피니언은 본지 편집방향과 관련이 없습니다.

중앙일보 The Korea Daily
dc.koreadaily.com

대표전화 : 703-281-9660
(광고·구독 문의 및 기사제보)

발행인 김영천
광고국장 송동윤

2001년 9월 22일 창간
7023 Little River Tpk #310, Annandale, VA 22003

본사 전채 계약 제휴사
한국중앙일보, Washington Post

Washington Joongang Newspaper inc. is not a branch office of Koreadaily, subsidiary or franchise of the company, but a licensee of the content of the company.

열린광장

‘위로 장사’와 ‘SayNo’의 가르침



손현수 변호사·공인회계사

잘못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었는지 모른다. 하지만 불안정한 일자리와 학자금 대출에 허덕이는 청춘들에게, 그 말은 단순한 위로를 넘어 현실 도피의 발미가 되었다.

김제동은 어떤가. 기성세대의 잘못을 지적하며 약자의 편에 서는 듯했지만, 정작 본인은 강연 한 번에 1500만 원을 챙겼다. ‘청춘은 힘들다’는 말을 전하며 정작 본인은 그 ‘힘든 청춘’이 감히 상상하기 어려운 금액을 강연료로 받으면서, 자신이 던진 말의 진정성을 갉아먹는다.

‘세이노(SayNo)’는 필명이다. ‘기존 사회의 틀이나 잘못된 관행에 No라고 말하라’는 의미라고 알려져 있다. 필명이 마치 일본 이름 같지만, 그는 한국 사람이다. 자산이 1000억원이 넘는 자수성가한 사업가로 알려져 있다. 그와 가까운 사람들은 그가 누군지 알겠지만 그는 자신의 실명을 끝내 밝히지 않는다.

그가 틈만 나면 적었던 많은 글들을 묶어 책으로 나온 것이 『세이노의 가르침』이다. 이 책은 차갑고 불친절하다. 때로는 꼰대 같다. 그러나 최소한 솔직하다. 인생은 네 몫이고, 네가 하지 않으면 아무도 대신 해주지 않는다. 노력과 자기계발, 자산 축적, 태도의 변화만이 네 삶을 바꿀 수 있다고 말한다. 듣기 거북할지라도, 메시지는 현실을 도려내는 듯한 힘을 가진다.

“네 인생의 주인은 너 자신이다.” “돈이 전부는 아니지만 돈 없이는 자유도 없다.” “남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나와 경쟁하라.” “작은 습관이 쌓여 인생을 바꾼다.” “공짜 점심은 없다.” “세상이 네가 원하는 대로 돌아가진 않는다. 하지만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 “가난은 불행이 아니라, 가난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가 불행이다.” “젊을 때는 배움에 투자하라, 배움은 배신하지 않는다.” “불평은 네 인생을 바꿔주지 않는다. 행동만이 바꾼다.” “네가 지금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네가 그것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달콤한 위로의 언어들이 순간의 진통제였다면, 세이노의 차가운 말들은 수술용 칼에 가깝다. 진통제는 잠시 통증을 잊게 하지만 병을 고치지는 못한다. 인생을 바꾸는 힘은 현실을 직시하고, 스스로 변화하며 삶을 주도하려는 용기와 작은 실천에서 나온다.

기고

적 미사일 격추한 한인 2세 공군



이효섭 동서정례대표

기를 비행하고 훈련한 것은 바로 이런 순간을 위한 것이었다. 우리 함정과 동료 장병, 나아가 조국을 지켜냈다는 사실에 큰 보람을 느낀다”고 답답하게 소감을 전했다. 그의 목소리에서는 조국 수호의 최전선에 선 군인의 굳건한 사명감이 묻어났다.

조종사가 되기 위한 체력단련이 얼마나 어려운지 일반인들은 잘 알지 못한다. 중력의 5~6배를 견디어야 한다고 한다. 수년 동안 밤낮으로 출격하고 가상의 적을 만들어 파나는 훈련을 해야 한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공중에서 파괴하지 못하면 아군의 함정이 침몰하고 전우의 생명이 위협받는다는 절체절명의 상황을 이들은 24시간 각인하며 훈련에 임했다.

이들의 공로는 평시의 땀이 실전에서 어떤 결과를 낳는지 명확히 보여줬다. 이는 비단 군사 훈련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솔한 연습과 노력을 통해 본능적인 경지에 이르지 않고서는 그 어떤 분야에서도 결정적인 순간에 실력을 발휘할 수 없다. 골프를 칠 때조차 목표 지점을 정하고 수없이 올바른 연습을 반복해야 비로소 원하는 곳으로 공을 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다.

미사일 접근 보고를 받고 출격할 당시, 조종사들에게는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 상황에서는 저렇게 반격하리라는 작전을 짰 시간도 없었을 것이다.

오직 끊임없는 훈련으로 몸에 밴 본능적 대응이 동료와 군함, 그리고 나라를 지켜낸 것이다.

이번 훈장은 비단 조종사 9명만의 영광이 아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완벽한 정비로 출격을 지원한 모든 팀원의 헌신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적의 미사일을 요격한 그 순간은, 조종사 개인의 영광을 넘어 팀의 헌신과 평소 훈련의 가치를 증명한 영원한 기록으로 남게 됐다. 미국 국민으로서 모든 공군 병사들에게 깊이 감사한다.

두 달 전, 지중해 상공에서 미 해군 함정을 향해 날아오던 적의 크루즈 미사일을 격추한 미 공군 전투비행대대 조종사 9명이 공로훈장을 받았다. 수상자 중에는 오렌지카운티 풀러턴 서니힐즈 고교 출신인 한인 2세 앤드류 인 대위도 포함돼 주목을 받았다.

당시 긴박했던 상황과 조종사들의 인터뷰는 유튜브에 ‘Nine Air Force Pilots awarded medals for saving Navy Ship’을 검색하면 공개된 영상을 통해 생생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난 7월, 이탈리아에 주둔 중인 미 공군 부대에 “미 해군 함정을 향해 적 미사일이 접근 중”이라는 긴급 전문이 타전됐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즉각 대응에 나선 전투비행대대는 평소 훈련한 대로 일사불란하게 출격했다.

한 조종사는 당시 상황에 대해 “보고를 받는 순간 생각할 여유조차 없었다. 오직 훈련한 대로 움직였을 뿐”이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또 다른 조종사는 “수많은 훈련을 했지만, 우리 함대를 향해 실제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고 밝혔다.

앤드류 인 대위는 “지난 4~5년간의 F-16 전투



맞춤 용자의 달인

마이클 장

달인과 함께하면
용자도 행복해집니다

주택용자

상업용자

재정상담

410-370-4229 · 301-275-1494

EMET, Inc
NMLS #201332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 Realty

황계실 571-239-6054

1. 우드브리지 싱글 \$639,000 Coming Soon 방3, 화2.5, 차고1, 좋은학군 / 동네, 전부 업그레이드, RT11/95/234	5. 첼들리 하이 싱글 \$1,050,000 방4, 화3.5, 4,000sqft, 차고2, 전부 업그레이드, 286/50/tees corner rd	9. 매쉬번타운 RENT \$3,300 전체마루, 2 차고, 맥, BRIAR WOODS high, 267/607
2. 사우스라이딩 타운 \$645,000 Coming Soon 2014년, 방3, 화2.5, 차고2, RT50/606, Dulles Airport, RT28	6. 던로링메트로앞 콘도 \$460,000 방1, 화1, 1/2 층 오픈 loft, 1,835sqft, 전부 리모델링, 마루	10. 게인스빌 골프 싱글 SOLD \$1,060,000 게인스빌 레이크 매니사스 Stonewall Golf Club 내 럭셔리 싱글
3. 매쉬번 타운 \$670,000 Coming Soon 2012년, 방, 화3.5, 최고 학군, RT267/50/28/607, 밀러스 공항	7. 맥클린 콘도 \$409,000 방2, 화2, 1,050sqft, Mclean High, RT 495/66/267/7, Metro, Tysons Galleria 옆	11. 애난데일 싱글 SOLD \$699,000 Braddock/Backlick Rd 만나는 Giant 인근, 최고 로케이션, 방3, 화3, 카포치1, 새지붕, 드라이브웨이 4대, 뒷숩, 2,312sqft, 0.46acre, Sold As Is, 리모델링, 투자가치 높음, 동네시세 보다 십만불이상 싼집, 395/236/495/95/66
4. 왓슨 하이, 프로스트미들 \$1,450,000 2025 새 싱글 방5, 화5.5, 5,000sqft, 차고2, 모던 디자인, 123/236/GMU	8. 센터빌 벅타운 \$589,000 방3, 화2.5, 차고1, Hmart인근, 29/Braddock/28/66	
12.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 마켓 럭셔리 싱글 \$1,699,000 1에이커 숲속, 6,700sqft, 방5, 화5.5, 차고3 • Wolf/Sub Zero 주방, 커스텀 백넨로 하드우드 바닥 • 최신 HVAC, 정수 시스템		아워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아외 주방, 백넨로, 연못, 분수, 테크, 음향 시스템 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수사권 독점, 개혁에 반해…보완수사 없인 뇌물 100% 무죄”

문무일 전 총장이 말하는 검찰개혁

“한 기관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건 개혁에 반한다.”

문무일 전 검찰총장(2017년 7월~2019년 7월)이 행정안전부 중대범죄 수사청과 법무부 공소청으로 수사과 기소를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역대 총장 가운데 처음으로 9일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목소리를 내면서다. 그는 문재인 정부 1차 검찰개혁(경찰수사 지휘권 폐지 및 수사권 축소) 당시 총장이었다. 2019년 5월 기자들 앞에서 양복 재킷을 벗어 흔들며 “어디서 흔들는 겁니까”라며 정권에 휘둘리는 검찰을 상징적으로 보여줬었다. 그때도 “검찰의 독점적 무소불위 권능이 문제의 원인인데 이 권능을 경찰로 확대하는 건 진단과 처방이 다르다”고 했었다. 6년이 지나 문 전 총장은 우선 검찰의 과오부터 반성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생긴 검찰개혁 프레임이 겨우 극복하나 했더니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이재명 대통령 수사로 국민이 돌아섰다”고 하면서다.

“통제 없이 경찰 수사권 집중, 왕정 복귀”

하지만 경찰에 수사 전권을 주는 데 대해선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을 개혁하면서 아무런 통제 장치 없이 경찰에 수사권을 집중하는 건 개혁에 반하며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수사 개시를 1차 수사기관이 전담하되 종결은 기소권자인 검사가 맡는,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한다.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뇌물 사건은 앞으로 100% 무죄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다. 아래는 문 전 총장과 그의 일문일답.



문무일 전 검찰총장이 9일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권을 독점하는 방식의 검찰 개편안은 개혁에 반한다”고 비판했다.

[중앙포토]

“1년 유예기간 뒤 검찰청이 폐지된다. “과거 검찰이 형사사법 절차의 전권을 행사한 업보다. 수사 개시와 종결을 검찰이 독점했다. 문제는 모두 인지 수사에서 터졌다.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사건 때 첫 번째 검찰개혁 프레임이 씌워졌고, 겨우 극복하나 했더니 그다음에 이재명·조국 사건이 터졌다. 조국 전 대표의 딸을 기소한 게 가장 결정타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3년 내내 수사와 재판에 끌려다니는 것을 국민은 목도했다. 그때 최종적으로 국민이 돌아섰다.”

“행안부에 1차 수사기관이 집중된다. “검찰의 수사·기소권 독점 남용 폐해를 견제하자면서 아무런 민주적 통제장치 없이 행안부 산하 경찰에 1차 수

검찰청 폐지는 과거 검찰의 업보 수사권 개시·종결 따로 분리해야

사기관을 집중시키는 건 개혁이 아니다. 어떤 권능(수사권)을 한 부처, 기관이 독점하는 건 민주주의에 반할뿐더러 왕정으로 복귀하자는 거다. 권능 있는 사람의 선의에 의존하는 건 왕조 시대 사고다. 지금이 이 선의에 의존하자는 식이다.”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보는가. “그간 검사에게 전권을 주고 독점시키고 선의에 의존했더니 이렇게 됐지 않았다. 개편안은 행안부 장관 라인에서 수사 개시부터 종결까지 사실상 전권을 행사하게 된다. 경찰은 범죄 수사에서 실제적 진실을 밝히는 동시에 인

권 보호까지 다 잘할 것이라고 보장할 수 있다. 절대 권력은 절대 부패한다.”

그럼 수사·기소 분리는 어떻게 하나.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기계적’ 분리는 판사에게 재판과 판결문 작성(선고)을 분리하라는 셈이다. 말이 안 된다는 얘기도. 수사의 개시는 1차 수사기관이 하면 종결은 기소권자가 맡는 방식, 즉 개시와 종결을 분리하는 방식으로 가야 한다.”

“수사·기소를 완전히 떼면 왜 문제인가. “미국에서 유명한 법인이 합리적 의심(reasonable doubt)과 비온드 다우트다. 수사는 합리적 의심만 있으면 착수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검사가 기소하고 판사가 유죄를 주지 않는다. 검사나 법관은 후자, 합리적 의심의 여지

가 없을 때, 즉 증거법적 의심의 경계를 넘어서야 기소하고, 유죄를 선고할 수 있다.”

“보완수사를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 “살인 사건 수사에서 경찰이 결정적 증거 없이 10가지 정황을 나열해 넘겼는데 검사가 이 중 한 가지가 의심스러울 때 그냥 도장 찍고 법원에 넘길 수가 없다. 검사가 이 상황에서 증거법적으로 엄격한 사실 증명을 위해 보완수사를 못 한다면 불기소하고 석방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검사가 풀어줬다’고 비난만 할 것인가. 그래서 기소권자의 보완수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검찰이란 이름 지키려는 것 부질없어”

“보완수사 요구권으로는 어렵다. “뇌물은 공여자의 진술뿐 당사자는 범행을 부인하는 유죄 입증에 어려운 대표적 사건이다. 가령 공여자가 ‘당일 비가 왔다’고 날씨에 관해 진술했는데, 변호인이 날씨가 맑았다는 증거를 공판에서 내보여도 100% 무죄다. 또 공여자가 ‘은행에서 돈을 찾았다’고 했는데 당시 잔고가 부족했다면 무죄다. 그만큼 따져볼 게 많은데 경찰에 매번 일일이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다시 검토하라는 말인가.”

“검찰’ 명칭이 78년 만에 사라졌다. “검찰이란 이름을 지키려고 하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다. 검찰은 일본강점기부터 사용하던 용어다. 당시 법원은 ‘재판소’에서 명칭을 변경했는데, 검찰은 그대로 유지했다. ‘찰(察)’은 위에서 아래를 살펴보겠다는 뜻으로 권위적인 뉘앙스가 있다.”

“국민에게 하고 싶은 말은. “민주주의 시대 검찰개혁의 방향과 결과는 다 국민 몫이다. 다만 인신 구속과 관련해 한 기관에 수사 전권을 주며 독점하게 하는 것만은 안 된다.”

정유진·석경민 기자

참여연대도 민변도 “보완수사권 폐지 안돼”…중수청 견제 한목소리

“모든 권력기관엔 통제장치 꼭 필요 보완수사 없다면 경·검간 핏pong 반복”

참여연대 등 검찰개혁에 앞장섰던 진보 성향 법조인들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에 반대하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보완수사란 경찰이나 중수청과 같은 1차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했을 때 기소 여부 판단이나 공소 유지에 부족

한 부분을 검찰이 2차로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다.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민주주의 체제에서 모든 권력은 내·외부적으로 모두 더블 체크가 필요하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없앤다면 경찰의 수사 결과를 검증하는 기구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력을 조정하거나 배분할 때는 반드시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하는데 지금 그런 대안이 전무한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검찰뿐 아니라 경찰이나 행안부 등도 모두 권력 남용을 우려해야 하는 권력기관이다. 모든 권력은 통제장치가 필요한데 지금의 개혁 방안은 그 수준을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장애인권법센터 대표인 김예원 변호사도 “수사가 공정하게 된 건지, 인권을 보장했는지 등을 들여다보는 수사 통제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보완수사 폐지를 논의할 게 아니라 오히려 검찰이 보완수사를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안지희 변호사(법무법인 혜명)는 “피해자 입장에서 수사과 기소가 이어져야 좋은 제도다. 보완수사 없이는 경찰과 검찰 사이 ‘핏pong’만 반복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구속기간이나 공소시효가 압박한 사건은 검찰이 직접 보완수사를 하지 않고는 현실적으로 기간 내 끝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진호 기자

“Labor Day 세라젬 스페셜 프로모션 놓치지 마세요!”

CERAGEM

척추는 신경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합니다.

“마스터 V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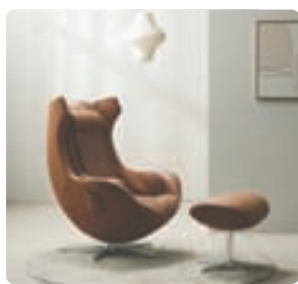
- 대한민국 식약처, 미국 FDA, 유럽 CE로 부터 인증받은 의료기기 기술력
- 척추 길이, 굴곡도, 하중 인식으로 사용자 체형측정 기능 (특허)
- 내부 발열 도자가 사용자별 척추라인을 따라 업 다운 밀착 마사지 효과 제공 (특허)
- 추간판(디스크) 탈출증 치료, 퇴행성 협착증 치료 도움
- 척추 부위에 집중적으로 온열(최고 149°F)과 압박 자극을 제공하여 척추 교정에 도움
- 척추 마디마디를 시원하게 풀어주고 혈액 순환을 도와 근육통 완화에 효능, 효과
- 복부 온열 LED 도자로 생리통 치료에 도움(V7 모델)

우아하고 건강한 휴식을 위해 설계된 “파우제” 사용자 중심의 기능과 기술력으로 최적의 휴식을 제공합니다.

“파우제 M 컬렉션” 체험해 보세요.



- 척추 굴곡도를 닮은 프리미엄 SL 프레임
- 원하는 밀착감 경험 3단계 어깨 높이 조절
- 마사지 효과를 높이는 릴렉스 온열 케어 (최고 113°F)
- 편리함과 편안함을 더한 145°F 전동 리클라이닝
- 척추라인을 따라 섬세한 마사지
- 최대 140°F 온열과 섬세한 진동 복부 온열 진동 도자
- 휴식의 몰입감을 높이는 블루투스 스피커
- 지압, 주무름, 두드림, 복합, 에어백 골반, 허벅지 마사지



세라젬 공식 판매 업체 703-798-7270

4239 John Marr Dr., #1, Annandale, VA 22003 (K-마켓 안에 위치)

무료 체험 가능
무이자 할부 가능

시 설

구금 근로자 귀국이 문제의 끝 아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합작 공장 건설 현장에서 이민세관단속국(ICE)에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이 이르면 11일 전세기 편으로 귀국한다. 지난 4일 사태가 발생한 지 일주일 만이다. 한·미 양국의 후속 조치로 우리 국민이 안전하게 돌아오게 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공장을 짓기 위해 미국에 간 한국인이 쇠사슬에 묶여 열악한 구금 시설로 끌려간 장면은 양국 관계에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사태 직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SK온 등 대규모 대미 투자를 진행 중인 기업들은 출장을 전면 취소했고, 파견 인력에 대한 귀국 지시를 내렸다.

비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 집행 자체가 올스톱될 수밖에 없다. 재계에선 공사 지연과 추가 비용 부담으로 투자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거나, 미국에서 공장을 짓다 불참해 가느니 차라리 관세를 맞는 게 낫겠다는 불멘 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에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며 신속한 제도 개선을 지시했다. 이번 같은 사태가 재연되지 않으려면 해묵은 비자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대폭 늘어난 대미 투자 현실에 맞춰 단기 취업비자(H-1B)를 할당받거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신설하는 등 실질적인 해법을 찾아야 한다.

한국인 취업비자 신설 등 근본적 해법 찾아야
대미 투자 후속, ‘동맹 현대화’ 등 리스크 산적

이번 구금 사태가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는 시점에 일어났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조현 외교장관은 국회에서 양국이 합의한 대미투자(3500억 달러) 패키지 후속 협상과 관련해 “미국 요구를 그대로 수용하면 국민에게 큰 부담이 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근 명문화된 미·일 관세 후속 합의를 예로 들었다.

이에 따르면 일본이 제공하는 5500억 달러의 투자처는 트럼프 대통령이 결정하며, 투자처가 정해지면 45일 안에 집행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합의된 상호관세 15%보다 더 높은 관세를 물게 된다. 투자 수익도 일본의 투자금이 회수되기 전까지는 양국이 수익의 절반씩을, 회수 이후엔 미국이 90%를 가져가는 등 미국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돼 있다.

미국이 한국에도 비슷한 요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자칫 대미 여론 악화와 한·미 관계 훼손마저 초래할 수 있는 과도한 요구다.

게다가 주한미군의 규모와 역할을 조정하는 ‘동맹 현대화’ 등 한·미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도 협의 중이다. 구금 근로자 귀국이 한·미 현안을 둘러싼 리스크 관리의 끝이 아니라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한국 정부는 국민 안전과 기업 활동 보장을 최우선으로 삼아야 하며, 미국 또한 동맹을 존중하는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협치 기대 하루 만에 찬물 끼얹은 정청래 대표

그제(8일)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지도부 회동으로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하루 만에 차갑게 식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어제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민의힘을 맹비난했기 때문이다.

정 대표는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계엄 사태에 대해) ‘우리가 잘못했다’고 사과하라”고 요구했다. “위헌 정당 해산 심판의 대상이 될지도 모른다”는 말까지 서슴지 않았다. 국회 본회의장 야당 석에선 고성이가 터져 나왔고,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제1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라고 반발했다. 불과 하루 전 대통령과 손을 맞잡았던 여야 대표가 곧바로 서로 손가락질하는 꼴이 됐다. 취임 직후 야당과 악수조차 거부했던 정 대표는 이 대통령의 협치 제안에 잠시 호응하는 듯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이 의심받게 됐다. 전날 이 대통령의 “더 많이 가지셨으니 좀 더 많이 내어 달라”는 요청에 “그렇게 하겠다”던 정 대표의 약속은 결국 반말이 된 셈이다.

정 대표의 독단적인 언행이 우려스러운 까닭은 정책 전반에서도 독선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정부의 권한마저 침범하려는 태도가 감지된다. 지난 7일 열린 고위 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 개혁 문제를 놓고 우상호 대통령실 정부수석과 맞서는 일까지 있었다. 여당의 뜻대로 검찰청을 해체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음에도, 정 대표는 정

부가 진행할 후속 입법안 준비에 당이 직접 개입하겠다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우수석이 “당에 참여하지 말라는 게 누구 뜻인지 아시겠냐”고 목소리를 높였다고 한다. 정 대표한테 정부 권한을 존중하겠다는 마음이 있는지 의문이 생길 정도다.

정 대표는 위헌 논란까지 제기된 검찰청 해체를 두고 “추석 귀향길에 검찰청 폐지라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호언했다. 대법관 증원, 내란특별재판부 등에 대해 여당 내부에서까지 경고가 나오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 과도한 규제가 담긴 언론 관련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극소수의 가짜뉴스를 추방함으로써 다수 언론인의 명예를 지켜드리자는 것”이라는 궤변을 반복한다. 이 법안에 대해 진보 언론조차 비판하는 이유를 되새겨야 한다.

결국 정 대표의 어제 연설은 야당을 무시하고 여당 마음대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전날 여야 회동에서 “야당을 통한 국민 목소리를 최대한 많이 듣겠다”던 이 대통령의 발언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린 듯하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은 야당 의견을 묵살한 채 입법 독주를 벌여 왔다. 정 대표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 독선과 독주로 나라를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정 대표가 검찰과 언론을 향해 던진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는 말을 자신에게 되돌려 보길 바란다.

우리도 트럼프도 딜레마다



미국 조지아주 현대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에서 발생한 불법 체류자 단속을 대부분 돌연한 일로 받아들인다. 대규모 투자에 대한 부담 대응으로도 느끼는 듯하다. 과연 그렇기만 할까.

전조는 넘쳤다. 미주중앙일보가 애틀랜타 공장에서 한국인 노동자들의 전자여행허가(ESTA) 입국이 거부되고 있다고 쓴 게 지난해 10월이다. 40대 남성이 3주간 남부 관광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인의 집’이 현대차 노동자들의 민박촌인 게 의심을 샀다는 것이다. 기사엔 현지 변호사의 우려 섞인 조언도 담겼다. “한국 기업과 만난 첫날부터 취업비자에 대한 설교를 늘어놓게 된다. 업무 회의를 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지만 기술적 엔지니어링 일을 시작하는 순간 불법이다. 공장 안에 허가받지 않은 노동자를 두지 않겠다는 (미) 정부와의 약속을 어기는 순간 법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

최근엔 트럼프 정부가 사업장 단속을 늘린다는 보도가 있었다. 서류 미비 이민자를 대량으로 출국시키는 데 효율적이라고 봤다는 것이다. 해당 배터리 공장에서 일하던 미국인 노동자 65명이 그 만둔 길 두고 노조 간부가 미 언론에 “우린 작업을 잘 수행했는데 불법 체류 노동자들로 대체됐다. 큰 타격이었다”고 항의한 일도 있었다.

아마 한국 기업들은 지금까지 관찮았으니 앞으로도 관철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다. 원래 사고는 날 때까지 나지 않는 법이다. 불법 이민 단속이 최우선 과제인 트럼프 정부가 비자와 어긋난 일을 하는 수백 명이 있는 사업장을 지속적으로 눈감아 준다? 폭스뉴스는 이번 단속을 대승리라고 보도했다. 캘리포니아·일리노이·위싱턴DC 변호사인 이원기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설명했다.

“투자하면 봐주지 않나. “투자는 면죄부가 아니다. 미국은 기업 규모나 국적과 무관하게 이민·노동·안전 규정을 똑같이 적용한다. 사업장 단속은 ▶채용 시 신원·취업자격 확인 ▶현장 안전 ▶임금·휴게 규정 같은 기초 의무를

제대로 지켰는지 본다. 한 고리라도 어기면 공사가동이 멈출 수 있다.”

“본사 엔지니어가 출장 비자(B-1)로 설치·시운전하는 정도는 괜찮지 않나.

“현장 설치·생산·정비는 보통 취업 활동으로 본다. 비자 목적과 실제 업무가 어긋나면 단속 1순위가 된다.”

구조적 요인도 있다. 다들 얘기하는 비자 쿼터다. 지난 20년간 해결하려 했으나 의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상황이 더 나빠진 건 바이든 정부 때다.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을 통한 관대한 연방 보조금과 주·카운티 차원의 추가적 유인책이 이끌어 한국 기업들이 반도체·배터리·전기차 공장 건설에 수백억 달러 투자를 약속했고 이행했지만, 바이든 정부는 비자 문제를 풀지 못했다. 그제 “미국인을 고용하라”고만 했다. 그러다 트럼프 시대가 됐다. 트럼프는 투자하라고 팔까지 비틀며 비자 단속에도 나섰다.

이젠 다들 딜레마다. 한국 기업들은 약속대로 미국인을 고용하려면 공장을 지어야 한다. 그러려면 대규모의 한국인

대규모 투자가 면죄부 될 순 없어
비자 문제 한국, 실력 문제 미국
이번 단속 계기로 딜레마 풀어야

숙련 인력이 필요하다. 지금 비자 체제에선 불가능하다. 지금처럼 불법 논란을 부를 ‘빨리빨리’ 방식으로 안 되게 됐다. 트럼프 정부로선 제조업을 살리려면 공장을 지어야 하는데 지금 인력난이나 실력 문제를 감안하면 쉽지 않다. 불법 체류를 눈감아줄 수도 없다. 전 세계로 방송된 이번 체포 장면을 보며 ‘외자 유치와 이민 통제’란 트럼프의 조율되지 않는 정책 혼선을 절감한 외국 정부와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할 순 있으나 집행을 미루고 또 미룰 것이다. 트럼프 집권이 끝날 2029년이 멀리 있는 것도 아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뭐가 문제인지 확인해줬다는 것이다. 안호영 전 주미대사가 “이제 미국 사람들도,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도 이 문제를 이해하게 된 것 같다. 대규모 투자를 위한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했는데 맞다. 이럴 때일수록 냉정하고 현명하게 해법을 찾아야 한다. 기 회다.

중앙SUNDAY 편집국장

중앙일보

구독신청·배달 1588-3600 / 080-023-5001 홈페이지 http://jlife.joongang.co.kr	사장·발행인 홍정도 주필 이하경
광고 접수 02-751-5555 / FAX 02-751-5806 홈페이지 http://ad.joongang.co.kr	편집인 최훈 신문제작총괄 고현곤 편집국장 김중윤
기사제보 및 기사 관련 물품·불만 처리센터 02-751-9000 / 080-023-5002 / E-메일 sarangbang@joongang.co.kr	1965년 9월 22일 창간 / 1965년 7월 30일 등록번호 4100195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본사 인쇄 계약처: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저작권자(©) 중앙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본사 인쇄 계약처: 서울 마포구 상암산로 48-6 안내전화 02-751-5114, 9114	구독료 월정 20,000원 1부 1,000원



약력

- 조지타운 법과대학원
- 미국 연방의회 연수 (House of Representative)
- United Nations, Research Fellow (UNU Headquarters, Tokyo, Japan)
- Kotra 해외진출기업 자문변호사
- ICSC (Int'l Council of Shopping Centers) Member
- Redcliff Partners 고문변호사
- 이민, 투자, 상법 전문변호사

김철민 합동법률사무소
Potomac Law Group. PLLC
“변호사가 성실하게 직접 상담에 드립니다.”

Immigration

- 영주권/시민권
- E2 비자/투자이민
- 취업/가족초청이민
- 비자변경 및 연장
- 종교비자/이민
- 강제추방문제

Business / Real Estate

- 회사설립/합병
- 사업체 매매
- 국제합작투자
- 부동산 매매/임대차
- 대정부계약/입찰구매
- 부동산 투자 개발

대표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303, Annandale, VA 22003

예천 앞 빌딩 3층

Lee Koo Acupuncture Pain Control Clinic & Herbs

서울 미국 한방병원

원장 이구 (한의학 박사)

- *서울 중구 회현동 1가 86에서 출생
- *전 메릴랜드 한의과대학 교수
- *임상경력 50년
- *각종 보험 취급 (교통사고 보험 100%)
- *VA, MD, DC 면허 소지

저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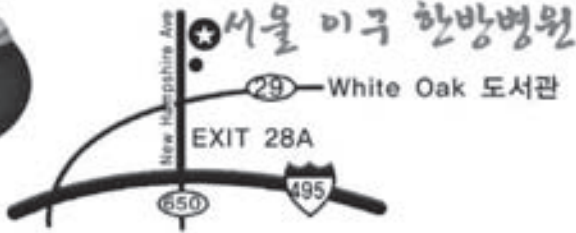
- *신비한 체질의 세계 (사상의학)
- *만성병의 음식치료와 보양법
- *정설침구혈위대전
- *사암침법해설 (사상의학)

703-256-8040 (24시간) 전화예약 바랍니다

11905 New Hampshire Ave., Silver Spring, MD 20904 (White Oak 도서관 옆)

** 특진 (사암 오행침과 사상체질의학 전문)

모든 알러지, 피부병, 각종 통증, 목디스크, 갱년기 장애, 콧병, 불임증, 여드름, 기침, 정력감퇴, 통풍, 위산과다, 허리통증, 피곤증, 탈모증, 조루증, 이명, 변비, 복부개스, 설염, 부인과 하혈, 중풍, 이갈이, 코골이, 머리흔드는병, 수전증, 미용침, 치질출혈, 장출혈, 코피, 모든 출혈 치료됨.



고객만족
100%

중고차
150대
보유

차량
고가
매입

중고차 어디에 파는게 가장 유리할까요?

카맥스에 팔까?

가격 너무 싸게 산다고 하고..
귀국이 얼마남지 않았지만 차팔고
귀국때까지 사용할 차도 문제이고...

인터넷에 판매할까?

타이틀 이전 등 뒷마무리가
불안하고...

개인거래를 할까?

나중에 차에 문제가 생기면
서로 입장이 곤란해 질 것 같고...

한국자동차에 차를 팔면?

워싱턴지역 유일한 한인 중고차 전문 딜러인 한국자동차에
귀하의 자동차를 파시면 최고의 가격은 물론 고객 각각의
상황과 편의를 먼저 생각합니다.

- 최고의 가격에 자동차 매입

카맥스보다 더 좋은 가격에 드립니다.

견적서를 가지고 오셔도 됩니다.

- 타이틀이전, Tax 문제 등 판매후 세부분제 완벽처리

- 귀국시점과 판매시점이 차이가 있을시 판매후
귀국시까지 차량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1994년부터 2025년 현재 **30년 이상**
8천대 이상 판매 실적!!

SPECIAL

귀국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새 차구입시 Trade-In이 걱정되십니까?

중고차를 파실 계획이 있으십니까?

고객의 소중한 차를 **최고의 가격으로!**

www.HANKOOKMOTORS.com

한국자동차

대표 김태원 703.352-8949

703.225.9151

9909 Main St., Fairfax, VA 22031





교통사고 치료 전문

멀시척추신경

여러분 가정의 건강을 지켜드리겠습니다.



25년 임상경험의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 병원

정확한 진단과 적절한 치료가
매우 중요합니다!

- ▷ 교통사고 · 운동사고 · 직장사고
- ▷ 스포츠 · 노동 후유증
- ▷ 오십견 및 급만성 요통
- ▷ 좌골 신경통

- ▷ 척추측만, 거북목 증후군
- ▷ 관절 클리닉
- ▷ 손발 통증 및 저림

- 최신 물리치료, X-Ray 완비
- 유학생 보험 / 여행자 보험
- 교통사고 보험처리에 필요한 모든 서류작성을 도와드립니다.
- 실력있는 변호사 선임



전문의 박종현

한 의사 김경환

전문의 정지현

www.jungmercyclinic.com • Email : jungspinechiropractic@gmail.com



애난데일

703.256.3005

7535 Little River Trpk. #200-B
Annandale, VA 22003
(한국일보 옆 건물 2층)



센터빌

703.830.0993

13880 Braddock Rd., Suite 102
Centreville, VA 20121



엘리콧시티

410.465.3221

9005 Chevrolet Dr. #4
Ellicott City, MD 21042



김철민 변호사
이민법 / 상법

취업이민, 가족초청, NIW, H1B, F1, E2비자
비즈니스, 계약, 리스, 회사설립, 투자자문

703.973.8700

7700 Little River Tnpk., #303, Annandale, VA 22003

예춘
알
빌딩

건강 & 연예/문화

Sports

① 중앙일보 JoongAng Ilbo

Wednesday, September 10, 2025 C

○ 냉·난방 ○

제대로 설치해야
반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난 기계
더이상 망설이지 마세요.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LENNOX, ARIEL, TRANE
Carrier, Lennox 전문딜러
www.LBuniversal.com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L & 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COOLING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연방파산법이 지정하는 채무구제 기관

법무법인 한미

**파산
이혼
상속
임금
소송**

임종범 대표 변호사 (VA/MD)

703-333-2005
301-230-3122

4216 Evergreen Ln., #131, Annandale, VA 22003

김웅용 변호사
JOY LAW GROUP

이민법
영주권 (결혼/취업)
시민권
NIW
간호사 (RN)
E2, R 비자

703-246-9100
703-309-1455

joylawgroup@gmail.com

Dental Implant
(치과 임플란트) \$1,000

Implant Crown - Extra
(임플란트 크라운 은 별도 \$750)

40 years of experience
in every aspects of
Dental Implants, especially
in Full Mouth Cases

다양한 종류의 치과 임플란트
특히 Full Mouth Case
40년 경력

Kie D. Lee, DDS, MD
Washington Implant Center.com
6220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703) 569-8000

간병인의 도움이 필요 하십니까?

Hanmi Homehealth (한미 홈헬스)
회사는 1,200여명의 간병사를 교육하여
배출한 정평있는 정직한 회사입니다.
특히, 개인 부담으로 간병사를 구하시는 분은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감당 하실 수 있도록
특별 상담하여 드립니다.

www.Hanmihomehealth.com
t. (703) 303-4556 / f. (703) 303-0988
f. (703) 569-0600
6214 Old Keene Mill Ct., Springfield, VA 22152

“겉으론 아무 이상 없었는데” 20대도 대장암 안심 못해

효과적인 대장암 예방법

50세 미만 조기 발병 꾸준히 증가
젊은 대장암 환자 비율 세계 1위

고지방 식습관 등 환경적 요인 탓
40대부터 증상 없어도 검진 필수

9월은 대한대장항문학회이 지정한 ‘대장암 예방의 달’이다. 국내에선 해마다 약 3만 명이 대장암으로 진단받는다. 나이가 어리다고 안전한 것은 아니다. 국내 젊은 대장암(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조기 발병 대장암) 환자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12.9명으로 세계 1위다. 조용히 자라는 암의 특성상 ‘아프지 않으니 괜찮다’는 생각이 가장 위험하다. 방심하면 적절한 치료 시기를 놓치기 쉽기 때문에 나이와 관계없이 누구나 대장암에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

직장인 이동우(35·가명)씨는 올해 처음 대장 내시경 검사를 받았다. 아무 문제없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받은 검사였지만, 결과는 예상 밖이었다. 장 끝 부분에서 용종(Polyp)이 발견된 것. 내시경으로 이를 절제한 뒤 조직검사에서 암으로 진행하기 직전 단계인 ‘고위험 선종’을 진단받았다. 가족력도 없고, 평소 아무런 증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대학원생 최다영(27·가명)씨의 경우도 이와 유사하다. 최씨는 최근 건강검진을 받던 중 대장에서 크고 작은 용종을 여러 개 발견했다. 조직검사 결과는 조기 대장암. 다행히 내시경 절제술로 치료가 가능했지만, 어린 나이에 암 진단을 받은 충격은 오래갔다.

최씨는 “겉으론 아무 이상이 없었는데, 지금도 생각하면 아찔하다”며 “검사를 안 했으면 모르고 병을 더 키웠을 뻔



지긋지긋한 두통, ‘급성기·예방·생활’ 삼박자 치료 맞아야 탈출

만성 편두통 치료 전략

한 달 15일 이상 3개월 넘으면 만성
제한 듯한 소화기 증상 동반 많아
약물요법·생활습관 교정으로 치료

두통은 ‘현대인의 병’으로 통할 만큼 일상에서 흔히 느끼는 증상이다. 그러나 두통이 자주 오고, 또 오래가는 만성 상태가 되면 삶의 질이 급격히 나빠진다. ‘머리에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며 영상 검사를 받아보지만 이상이 없다는 대답만 듣는 일도 잦다.

의학적으로 만성 두통은 한 달에 15일 이상 나타나는 두통이 3개월 이상 지속할 때를 말한다. 국내 만성 두통 유병률은 1.8%로, 약 90만 명이 앓고 있다. 이 중 대부분은 편두통이다. 편두통은 흔히 통증이 머리 한쪽에 치우치고 맥박이 뛰는 듯한 박동성으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양상은 다양하다. 두통이 머리 전반에 나타나거나 머리가 짝 쏘이는 듯한 느낌도 받을 수 있다. 속이 메스꺼리고 제한 것 같은 소화기 증상을 동반하기도 한다. 또 밝거나 시끄러운 곳이 불편해 자신도 모르게 어둡고 조용한 곳을 찾게 된다.

아플 때마다 약 먹기보다 치료 계획 세워야
두통은 무조건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니

다. 참다 보면 오히려 증상이 심해질 수 있어 제때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만성 편두통의 치료법은 크게 급성기 치료와 예방 치료로 나눈다. 급성기 치료는 말 그대로 두통이 왔을 때 약을 먹어 최대한 빨리 통증을 없애는 것이다. 보통 아세트아미노펜, 비(非)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등 일반 진통제가 여기에 쓰인다. 트립탄제 같은 전문약도 있다. 이 약은 뇌의 혈관을 수축하고 염증 반응을 줄여 증상 개선에 도움을 준다. 인제대 일산백병원 신경과 박홍균 교수는 “(전문약은) 증상이 있을 때 약을 먹으면 1~2시간 이내에 효과를 볼 수 있다”며 “일반 진통제보다 효과가 빠르게 나타나고 증상이 좀 더 깔끔하게 해소되는 편”이라고 말했다.

문제는 두통약 먹는 일이 갈수록 잦아지고 먹어도 통증이 잘 사그라지지 않는 약물 과용 상태인 경우다. 일반 진통제는 월 15일 이상, 트립탄제 같은 편두통약은 월 10일 이상 먹을 경우 약물 과용 상태로 본다. 이런 뇌의 통증 조절 시스템이 과민해져 약을 자주 먹을수록 두통이 더 심해지는 악순환이 발생한다. 박 교수는 “약물 과용 두통 환자는 무조건 약을 먹기보다 전문가와 상담해 적절한 치료 계획을 세워야 한다”며 “무엇보다 환자 상태에 맞춘 예방 치료가 권장된다”고 설명했다.

예방 치료는 편두통이 월 4회 이상 발생하고 불편감이 심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을 때 고려한다. 예방 치료는 ▶편두통의 발생 빈도를 줄이고 ▶발생하더라도 그 정도를 약하게 하며 ▶급성기 치료제의 효과를 더 좋게 하는데 목적이 있다.

기존에는 편두통 급성기 치료에 혈압약·뇌전증약·우울증약 등의 효과를 빌려 썼다. 하지만 편두통 전용 약물이 아니다 보니 피로나 어지럼증, 체중 감소·증가와 같은 부작용이 뒤따랐다.

최근에는 편두통 유발 신경전달물질(CGRP)의 작용을 억제하는 치료제가 나와 예방 치료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CGRP 억제제에는 주사와 먹는 약이 있다. 주사제는 약 종류와 환자 상태에 따라 1개월 또는 3개월 간격으로 허벅지·복부·팔뚝 위쪽 등에 주사하는 방식이다. 먹는 약은 하루 한 번 복용한다.

진료 볼 땐 두통 일기 작성하면 효과적

미용 시술의 대명사로 통하는 보툴리눔 독소 주사도 만성 편두통 예방 치료의 한 축으로 자리 잡았다. 머리와 목 주변 31군데 근육에 주입해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억제한다. 박 교수는 “급성기 치료제의 효과가 약해졌다고 느낀다면 편두통 자체가 악화하고 있다는 뜻일 수 있으니 예방 치료를 받는 게 좋다”며 “예전보다 치료 선택지가 늘어난 만큼 전문가와 상의해 치료 방법을 정하고, 꾸준히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출처: Gettyimagesbank

두통약 복용이 잦고 약을 먹어도 통증이 줄지 않을 때는 약물 과용 상태가 아닌지 점검해 봐야 한다.

진료를 받을 땐 두통 일기를 가져가면 좋다. 평소 편두통의 ▶빈도 ▶강도 ▶지속 시간 ▶통증 발생에 영향을 주는 요인 ▶약물치료 후 반응 등을 정리해 두면 원인과 경과를 파악하고 맞춤 치료법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된다.

환자들은 두통을 뿌리 뽑길 원하지만, 이는 어려운 일이다. 완치보다는 증상을 꾸준히 관리해 두통 일수와 강도를 점차 줄여나가 삶의 질을 높이는 것

이 최선이다. 그러려면 치료와 함께 생활습관 개선이 필수다. 6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두통을 유발하는 요인 중 하나인 만큼 규칙적인 식사 습관을 지녀야 한다.

또 스트레스는 머리와 목 부위의 근육을 수축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 적절한 휴식과 운동, 숙면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좋다.

김선영 기자

병원리포트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노두현 교수팀

무릎 수술 이후, AI가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한다

경골 후방 경사각 측정 모델 개발
평균 2.5초 만에 원하는 값 계산
전문 의수기 측정보다 10배 빨라

무릎 수술 이후에 관여하는 핵심 지표를 기존 수기 방식보다 10배 빠르게 분석해 주는 인공지능(AI) 모델이 국내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

서울대병원 정형외과 노두현 교수팀(김성은 연구교수)은 경골(정강이뼈) 후방 경사각을 빠르고 신뢰성 있게 측정 가능한 딥러닝 모델을 개발했다고 최근 밝혔다. 이 모델은 2009~2019년 촬영된 1만여 건의 무릎관절 측면 X선 영상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다.

경골 후방 경사각은 경골을 옆에서 볼 때 관절면이 얼마나 뒤로 기울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다.

무릎관절의 안정성과 무릎 수술 후 인공관절의 수명에 큰 영향을 주며 각도가 클수록 십자인대 부상의 위험이 커지고 인공관절 수술의 예후도 나빠질 수 있어 정밀한 측정이 중요하다.

문제는 경골 후방 경사각을 측정할 표준 방법이 없었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같은 환자라도 의료기관마다 결과가 달라 측정 결과를 진료에 활용하는 데 제약이 컸다.

이번에 개발된 AI 모델을 활용해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일관된 값을 안정적으로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 모델은 무릎뼈의 6개 해부학적 기준점(랜드마크)을 자동으로 인식한다. 이후 각 기준점을 토대로 경골의 관절선과 중심축을 설정하고 이를 기반으

로 후방 경사각을 계산한다. 연구진이 그 성능을 전문 의수기 측정과 직접 비교한 결과, 딥러닝 모델의 ‘관찰자 내 상관관계’는 100%로 파악됐다.

이는 성능의 일관성을 나타내는 지표다. 수기 측정의 관찰자 내 상관관계는 최대 95%였다. 또 해당 모델의 측정 속도는 평균 2.5초로 수기 측정(26.1초)보다 10배 이상 빨랐다. ‘관찰자 간 상관관계’는 최소 91%로, 이는 딥러닝 모델의 측정값이 전문의의 수기 측정값과 상당히 일치함을 의미한다.

미국 미네소타대, 노르웨이 베르겐대 연구팀과 함께한 후속 연구에서는

노르웨이 환자 289명의 무릎 영상을 대상으로 모델을 검증했다. 그 결과 딥러닝 모델과 전문의의 관찰자 간 상관관계는 80%로 나타났다. 이는 경골 후방 경사각을 측정하는 딥러닝 모델이 다양한 인종에서도 활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김성은 연구교수는 “이번 성과는 국내에서 개발된 의료 AI 기술을 해외 환자군에서도 성공적으로 검증한 사례”라며 “앞으로 이 모델이 경골 후방 경사각 측정의 표준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 스포츠의학 정형외과 저널(Orthopaedic Journal of Sports Medicine)에 게재됐다.

하지수 기자

+ 임마누엘 홈힐스

임마누엘 간병인들은
치매교육과 노인 질환 및 장애인
수발법등 이론과 실습을 마친
간병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료 간병사혜택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메디케이드 소지자, 장애인,
퇴역군인(Veterans Affair) 혜택자

전문 간병인이 되고 싶으신 여러분을 위해 임마누엘이 도와드립니다.

임마누엘은 신뢰를 바탕으로 간병사님들의 의견을
소중히 생각하며 간병사님들의 복지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 간호학 박사의 명강의로
노인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 지식교육
- 간병인 교육과 심폐소생술(CPR)/
응급처치(First Aid)를 한주에 수료 가능
- 유급병가(paid sick leave)
- 간병인 영주권 스폰서 가능

간병인에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문의 바랍니다.



443-288-6677

Email: care@emmanuel.care / www.emmanuel.care

Main Office

8174 Lark Brown Road, Suite 201, ElkrIDGE, MD 21075
1801 Research Blvd, Suite 580, Rockville MD 20850

+ Emmanuel
Adult Medical
Day Care Center

최고 시설 최대 규모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한인 어르신분들을 가족같은 분위기로
행복하고 즐거운 노년을 보내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신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치료사 주2회 방문), 마사지체어실, 탁구대, 당구대, 노래방

소셜서비스 / 통근서비스 / 의료동행서비스 (병원 예약 및 진료에 동행, 맞춤형 지원)

전문적인 의료 및 간호서비스

즐겁고 활력 넘치는 다양한 액티비티 프로그램

최고의 맛과 영양을 자랑하는 식사

443-878-6611

6612 Baltimore National Pike
Catonsville, MD 21228

비만·당뇨 부른 달콤한 함정… 제로가 ‘제로’는 아니었다

WHO 등 제로음료 건강 영향 분석

인공 감미료, 설탕 200~600배 단맛
아스파탐·사카린·스테비아 대표적
심혈관질환·방광암 등 발병 위험 커
가당음료의 ‘덜 해로운 대안’ 못 돼
첨가당·감미료 없는 커피·차 마셔야

‘콜라 사랑꾼’이란 별명을 가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콜라 제조에 고과당 옥수수 시럽 대신에 사탕수수 설탕을 쓰도록 요구하면서 콜라와 같은 첨가당 음료가 논쟁이 되었다.

사실 전 세계적으로 가당 음료의 소비가 비만·당뇨·심혈관질환 등으로 인한 사망을 증가시키는 주범이라는 점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세계보건기구(WHO)는 가공식품을 통한 당류 섭취가 1일 총 에너지 섭취량의 10%(하루 50g)를 초과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콜라 500mL 한 병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한다.

건강을 위해서는 5% 미만(하루 25g)으로 제한할 것을 권장한다. 헬시 플레저(healthy pleasure)가 유행하면서 단맛을 즐기면서도 건강한 식품을 찾아 보니 가당 음료나 식품보다는 인공 감미료가 들어가는 ‘제로(zero)’ 음료나 식품이 유행이다.

그러나 제로(0)가 제로가 아니다. 설탕 대신 여김없이 감미료가 숨어있다. 인공 감미료는 설탕의 200~600배 단맛을 가지는 아세설팜칼륨·수크랄로스·아스파탐·사카린·스테비아 등이 대표적이다.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국내 제로 음료 시장만 하더라도 2018년(1630억원)에 비해 2023년(1조2780억원) 7.8배 성장했다. 2025년 1월, 전체 탄산음료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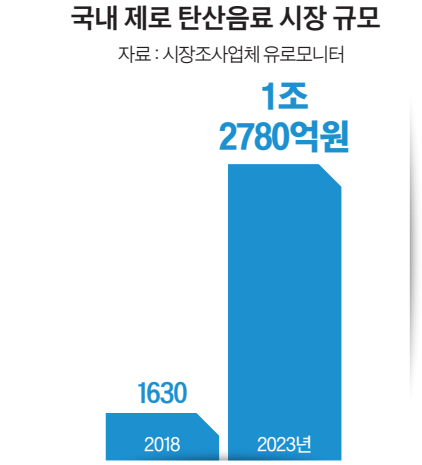


장에서 제로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육박한다.

국내 제로음료 시장 5년 새 7.8배 성장
가당 음료에 비해 인공 감미료 음료는 안전한가? 과연 인공 감미료를 먹어도 괜찮을까?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IARC)은 아스파탐을 발암 가능 물질로 분류했다. 다만 기준 1일 섭취 허용량(40mg/kg/1일) 내 섭취는 안전하다고 했다.

제로 음료 12~36캔까지 마셔도 허용량 이내다. 인공 감미료 무설탕이고 열량이 낮아 건강한 선택으로 간주하지만 세계보건기구는 체중 조절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최근 연구 결과들은 어떨까? 논란을

잠재울 만큼 주목할 만한 3개의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먼저 2022년 세계보건기구가 실시한 인공 감미료 음료의 건강 영향에 대해 종합 분석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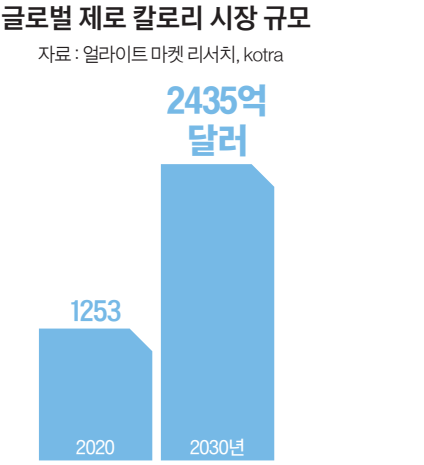


단기적으로는 체중이 감소했지만 비만, 제2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방광암, 사망률의 장기적인 위험은 증가했다. 두 번째, 219만6503명의 참가자의 평균 28.9년 추적 동안 23만5609명 사망이 발생해 종합 분석 결과, 감미료 음료 섭취는 모든 원인에 의한 사망률은 13%, 심혈관질환 사망률은 26% 증가했다.

세 번째, 지난 5월 발표된 40세에서 69세 사이의 3만6608명을 대상으로 한 호주의 장기 추적 관찰 연구에서 가당 음료 섭취에 대한 제2형 당뇨병 위험이 23% 증가했고, 감미료 음료는 83% 증가했다. 비만도를 고려한 분석에서 감미료 음료 섭취는 여전히 당뇨병 위험 증가(38%)와 관련이 있었다.

그동안 인공 감미료가 당뇨나 심혈관질환을 어떻게 일으키는지가 명확하지 않았는데 그 메커니즘이 속속 밝혀지기 시작했다.

인공 감미료를 습관적으로 섭취하면 장내 세균의 불균형을 일으키고 장에서 포도당의 흡수에 영향을 미쳐 혈당 항상성이 악화한다. 또한, 인공 감미료



는 글루카곤 유사 펩타이드-1(GLP-1)의 분비를 낮추고 인슐린이 분비되지 않아 혈당을 높인다. 지난 5월 학술지 ‘셀 메타볼리즘(Cell Metabolism)’에 발표된 스웨덴 카롤린스카의대 차오 연구팀이 생쥐에게 아스파탐을 먹인 결과, 먹지 않은 생쥐에 비해 인슐린과 염증 인자 수치가 상승하고 동맥에 더 많은 지방 플라크가 생기는 걸 확인했다.

미국 피츠버그대 크리스틴 모더 연구팀이 ‘미국암연구학회’에 지난 7월에 발표한 연구에서 체중 1kg당 수크랄로스 권장량(5mg/kg/1일)의 3%인 하루 0.16mg 이상 먹으면 암 치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적게 먹을 경우 암이 재발하지 않고 깨끗한 상태로 6개월을 더 길게 유지했다.

연구진은 수크랄로스가 장내 미생물에 영향을 줘 면역세포의 일종인 T세포 기능을 떨어뜨린다고 설명했다.

29년간 섭취자들 추적 결과, 사망률 13%↑

연구 결과들을 정리해 보면 인공 감미료가 가당 음료의 ‘덜 해로운 대안’이 될 수 없다고 본다. 건강을 위해 선택한 제로 음료 역시 당뇨와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인다. 그렇다고 비만·당뇨병·충치·암 등의 위험이 있어서 가당 식품으로 다시 전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첨가당이나 감미료가 없는 커피·차, 생수를 마시는 것이 좋다.

커피는 사망 위험이 26% 낮아지고 물은 23%, 차는 21%, 저지방 우유는 4% 사망 위험을 낮춘다. 인공 감미료의 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건강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정확한 정보가 더 나오기 전까지는 조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윤영호 서울의대 교수

전문의 칼럼 황호경 연세암병원 췌장담도암센터 간담췌외과 교수

마른 체형 당뇨·만성 췌장염은 췌장암 위험 요인

진단 시 수술 가능한 환자는 약 20%
당뇨 가족력, 췌장 질환 있다면 검진

췌장암은 췌장에 발생한 악성 종양으로, 생존율이 유독 낮은 암으로 악명 높다. 이미 병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에서 암을 발견한 환자가 많아 5년 생존율은 15% 정도에 불과하다.

췌장암 위험 인자로 가장 잘 알려진 것은 흡연으로, 흡연자가 췌장암에 걸릴 위험도는 비흡연자의 약 2배다. 당뇨병도 췌장암의 위험 요인이다.

특히 ▶50세 이상에서 새롭게 당뇨병이 발생한 경우 ▶당뇨병 가족력이 없거나 마른 체형에서 당뇨병이 생긴 경우 ▶당뇨병 발생 초기부터 혈당이 잘 조절되지 않아 인슐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잘 관리되던 혈당이 최근 갑자기 조절이 잘 안 되는 경우 췌장암을 의심하고 검사해 보길 권한다.

만성 췌장염 환자도 췌장암 발생 위험이 높다. 보통 만성 췌장염을 앓은 지 10년 이내에 약 2%, 20년 이내에 약 4%에서 췌장암이 발생한다고 알려진다.

췌장암은 진단 당시 환자 상태를 ▶절제 가능 상태 ▶경계성 절제 가능 상

태 ▶절제 불가능 상태로 나뉜다.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췌장암 치료법은 췌장 절제술로 암을 제거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진단 당시 수술이 가능한 경우는 췌장암 환자의 약 20%에 그친다. 경계성 절제 가능 상태는 암이 주변 혈관을 침범하고 있어 바로 수술하긴 어렵지만, 선행 항암 치료나 선행 항암 방사선 요법을 시행해 암의 크기가 줄어들면 수술이 가능한 상태를 말한다. 진단 당시 약 40%의 환자

가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으로 절제 불가능 상태는 암이 다른 장기로 전이된 경우, 전이는 없으나 주변 혈관을 심하게 침범한 경우다. 이때 주된 치료법은 항암 화학요법이다.

최근 폐암·유방암 등에서 표적항암제와 면역항암제가 좋은 효과를 보여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췌장암은 아직 표적항암제, 면역항암제로는 효과적인 반응을 기대하기 어려워 새로운 치료법 개발이 절실하다.

임정국 신경내과

MD, PhD, Neurologist



“ 임정국 신경내과에서는 **치매, 파킨슨병**을 비롯한 **퇴행성 뇌질환**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치료, 관리 및 예방에 관하여 자세히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임정국
MD, PhD, Neurologist

약력

- 대한민국 의사/의사
- 의학박사, 신경내과 전문의
- 텍사스 주립대 신경과학 (neuroscience) 박사 학위(Ph. D) 취득
- 텍사스 주립의대 신경내과 (neurology) 레지던트 과정 수료



진료과목

- | | | |
|-----------|--------|---------|
| ◆ 치매 | ◆ 어지럼증 | ◆ 손발 저림 |
| ◆ 뇌졸중(중풍) | ◆ 이명 | ◆ 감각이상 |
| ◆ 파킨슨병 | ◆ 불면증 | ◆ 보톡스 |
| ◆ 두통 | ◆ 수면질환 | ◆ 통증 |

상담 문의

571-620-7159

7700 Little River Tnpk, Suite 605
Annandale, VA 22003 **메트 앞 7700 건물 6층**

건강 칼럼

뒷머리에 자주 발생하는 통증

53세 여성 환자가 머리가 아프다며 필자를 찾아왔다. 환자는 마치 전기가 찌릿찌릿 통하는 것 같은 통증을 호소했다. 아픈 부위는 주로 머리의 뒷부분이나 목 뒤쪽이었다. 특징적인 날카로운 통증이 순간적으로 뒷머리에서 정수리까지 뻗치기도 하였는데, 보통 짧게는 수초에서 길게는 수분간 계속된다고 한다. 이러한 통증은 하루에 적게는 수차례에서 많게는 수십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환자는 간혹 눈언저리까지 통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었고, 심한 경우 두통과 더불어

두 눈도 매우 침침한 경우도 있다고 한다. 심한 두통과 더불어 어지럽증도가 가끔 생겼으나 속이 메스꺼리다든가 구토를 하는 등의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필자가 환자를 진찰하였을 때 환자의 목뒤 근육의 긴장이 매우 심한 것과 뒷목이나 머리 뒤의 여러 부위에 압통점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른 신경학적인 이상 소견은 찾을 수 없었다. 통증의 분포와 특징적인 찌르는 듯한 통증의 양상으로 필자는 환자의 두통을 “후두신경통”으로 의심할 수 있었다. 후두신경통에 대한 정확한 진단과 즉각적인 치료를 위해 때로 후두신



임정국
신경내과 원장
의학박사·신경내과 전문의

경에 대한 진단치료적 신경차단술을 시행하기도 하는데, 이 환자의 경우에서도 신경차단술의 시행직후 환자의 통증이 바로 사라짐을 관찰할 수 있었

다. 환자 상태에 대한 궁극적인 치료로는 영구 신경 차단술이 시행되었으며 이후 환자의 상태의 극적인 호전을 가져오게 되었음은 물론이다. 후두신경통이란 머리의 뒷부분(후두부)과 목 뒤쪽(경추부)에 분포하는 후두신을 따라서 생기는 통증을 말한다. 말그대로 신경의 이상에서 나오는 통증으로 곧 신경통이라고 할 수 있다. 후두신경은 상부 경추에서 시작하여 그 주행에 따라 대후두신경과 소후두신경으로 나누어 진다. 목뒤와 뒷머리를 따라 올라가 머리의 가운데 부위

로 올라가는 대후두신경, 그리고 귀 뒤를 통해 머리 측면으로 분포하는 것이 소후두신경이다. 후두신경통은 후두신경의 압박이나 염증으로 발생하는데 연구에 의하면 이의 가장 흔한 원인은 제 1,2경추 측방관절의 만성적인 관절병증이라고 한다. 장기간의 컴퓨터 업무, 좋지 않은 자세 등, 경추의 이상 및 목근육의 과도한 긴장을 부르는 현대인의 생활 습관이 그 발생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은 쉽게 유추해볼 수 있는 사실이다. 상담 문의: 임정국 신경내과 571-620-7159

Health&·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공동 선정 박종재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

“내시경은 위암 정복의 핵심… 체계적 관리로 최상 의료 제공할 것”

내시경 치료 분야 권위자로 손꼽혀 조기 위암 떼어내 수술 부담 낮춰 시술 표준화로 정확도·안전성 유지

내시경은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검사 도구다. 소화기관 내부를 훑히 들여다볼 수 있어 질병의 예방과 진단, 치료에 필수적인 검사법으로 자리 잡았다. 특히 위암·대장암을 일찍 발견하고 치료하는 데 핵심 역할을 한다.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박종재 교수는 국내 내시경 치료 분야의 권위자로 꼽힌다. 칼 대신 내시경을 무기로 암을 찾아내고 제거한다. 활약이 가장 두드러지는 분야는 위암이다. 박 교수는 “내시경을 활용한 진단·치료 분야가 눈부시게 발전했다”며 “일반인은 검진 주기에 따라 검사를 잘 받고, 의사는 이를 정확히 진단해 치료하면 위암으로 사망하는 일을 좀 더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진료실에서 박 교수를 만났다.

“내시경을 활용한 위암 치료는 어떤 경우에 받나. “조기 위암일 때 고려할 수 있다. 즉 1기 위암 중에서도 종양의 깊이가 얇고 림프샘·림프 혈관에 암 전이 가능성이 없는 초기 단계에서 받을 수 있다. 이때는 암 병변을 포를 뜨듯 떼어내는 내시경 점막하 박리법(ESD·Endoscopic Submucosal Dissection)이 주로 활용된다.”

“내시경적 치료의 이점은 뭔가. “위의 일부분만 절제하기 때문에 위를 많이 보존할 수 있고, 대부분 전신 마취를 할 필요가 없다. 덕분에 입원 기간이 짧아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할 수 있다. 요즘은 조기 위암 발견율이 높아지면서 전체 위암 환자의 60~70%가 내시경적 치료를 받고 있다.” “치료 기준이 모호한 경우도 있지 않은가. “ESD는 병변의 정확한 성질과 범위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쓰인다. 암이 어느 정도 깊이까지 퍼졌는지, 림프샘 전이 위험은 없는지 등을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진단적 ESD’를 시행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그 결과에 따라 내시경적 절제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확진되면 추가 조치를 하지 않고, 반대로 치료 기준에서 벗어났다면 외과적 수술이 요구된다.”

헬리코박터균 치료, 식습관 개선 필수 국가암등록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위암 발생 순위는 갑상샘암, 대장암, 폐암, 유방암에 이은 5번째다. 예전보다 발생률이 많이 줄긴 했으나 여전히 한 해 약 3만 명이 위암 진단을 받는다. 위암 예방 전략을 마련해 적극적으로 실행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 “위암 예방을 위해 강조하는 부분이 있다. “첫째는 헬리코박터균 치료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암 발병의 주요 원인이다. 헬리코박터균은 위염을 일으키고, 위염이 만성적으로 지속되면 위축성



박종재 고려대구로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위암 가족력이 있는 사람은 젊고 특별한 증상이 없더라도 일찍부터 내시경 검진을 시작하는 게 좋다”고 강조했다. 인성욱 객원기자

위염과 장상피화생으로 진행된다. 이들은 위암 위험을 높이는 주요 질환이다. 그러나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를 받으면 위암 발병 위험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 둘째, 식습관 개선이다. 짜고 자극적인 염장류나 탄 음식, 가공육 섭취를 피하고 신선한 채소류를 즐기는 게 좋다. 마지막으로로는 검진이다. “검진은 국가암검진 주기를 따르면 될까. “기본적으로는 4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위 내시경 검사를 2년마다 받게 돼 있다. 그러나 개별 상황을 따져야 한다. 예전에 내시경적 위암 치료를 받은 남성 환자가 있었다. 이후 정기 검진을 통해 몇 차례 더 치료를 받았다. 그러다 어느 날 진료를 왔는데 서론도 안 된 아

들을 먼저 떠나 보냈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했다. 다름 아닌 위암 때문이었다. 이처럼 가족력이 있다면 젊더라도, 또 증상이 없더라도 더 일찍부터 더 자주 검진을 받는 게 좋다. 암 발생 위험 요인을 가진 사람은 전문의와 상의해 그에 맞춘 개별화된 검진에 나서야 한다.” “교육이 중요할 것 같다. “교육을 통해 검진율을 높이면 위암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전(前) 암성 단계에서 치료를 받고 이후 꾸준히 추적 관찰한다면 궁극적으로는 위암이란 질병을 극복하고, 수술 부담을 줄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생존자 관리도 중요한 영역이다. 위암 치료 후 나타날 수 있는

주요 합병증을 관리하고, 재발을 막기 위한 영양 섭취나 정신 건강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 박 교수는 내시경 치료 분야 발전의 산증인이다. 용종 제거부터 스텐트(의료용 얇은 관) 삽입, 식도 정맥류 치료, 조기 위암 수술 등 내시경 치료 기법을 두루 섭렵해 국내 정착에 힘썼다. 고난도 기술인 만큼 전문 인력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에도 집중해 왔다.

글로벌 연구 네트워크 구축에 힘써 박 교수가 이사장으로 몸담고 있는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는 내시경 보는 의사와 내시경을 다루는 의료기관의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 중이다. “어떤 점을 특히 신경 쓰고 있다. “환자에게 최상의 진료를 제공하려면 체계적인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 학회는 ▶전문 인력의 역량 강화 ▶표준 지침 공유 ▶초보자 교육 ▶우수내시경실 인증 등을 통해 질적 수준을 꾸준히 관리하고 있다. 특히 진단을 향상과 시술 기법의 표준화를 이뤄 높은 정확도와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내시경 분야 발전을 위한 과제는. “전 세계적으로 신기술이 발 빠르게 개발·도입되고 있다. 국가 산업적인 측면에 기여할 수 있도록 내시경 기기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자 한다. 또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해 연구 역량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김선영 기자

언어와 문화를 배려한 세심한 관리

각 나라별 언어를 대성, 관리하는 차별화된 홈케어

CarePeople.net

571-297-4747 (VA)

301-966-7000 (MD)

서비스 지역

애난데일, 알링턴, 페어팩스, 센터빌, 리치몬드, 뉴포트뉴스, 북버지니아와 남버지니아 / 메릴랜드 지역

간병사가 필요합니다

간병사 찾기

직업이 필요합니다

일자리 찾기

CarePeople.net

셀폰으로 신청가능 - 간병사 서비스 신청, 간병사 교육 및 일자리

간병사 교육: 10/6 ~ 10/10 → 전화 예약 필수!

Centreville (Main Office)

14631 Route 29, #401
Centreville, VA 20121

Annandale (사랑방)

4324 Evergreen LN. #D (2FL)
Annandale, VA 22003

Annandale (V)

4312-D Evergreen Ln. #L3-2
Annandale, VA 22003

Gaithersburg (MD)

901 Russell Ave. #150
Gaithersburg, MD 20879



직장사고



운동사고



교통사고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최신형 의료시설 완비 / 최신형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 진료과목
- Whiplash 전문치료
 - 목 디스크, 목, 통증, 두통
 - 목이 뻣뻣한 증상
 - 목을 돌리기 어려운 현상
 - 목을 들지 못하는 증상
 - 어깨가 쑤시고 아픈 증상
 - 팔이 저리고 감각이 둔한 증상
 - 팔을 올리지 못하는 증상
 - 허리 디스크
 - 허리 통증
 - 다리가 저리고, 당기는 증상
 - 좌골신경통 마비



7023 Little River Tnpk., #409, Annandale, VA 22003

Dr. 김진욱

- UCLA Biology
- Palmer College of Chiropractic (Davenport, Iowa)
- Board Certified in Permanent Impairment Rating
- Fellow of American Back Society
- Member and Board Eligible for Diplomat Status of the American College of Forensic Examiners
- Member of the American Board of Disability Analysts
- Member and Academic Consult of the National Board of Forensic Chiropractors
- Chiropractic Rehabilitation Diplomat Program



CHIROPRACTIC AND REHABILITATION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Tel. (703) 691-3111

Office Hours by Appointment

정년 전 연금 받으며 일하면 소득 심사

근로소득 2만3400불 이상 땀
2달러마다 연금 1달러 감액
소셜연금 감액 요인 대비해야

은퇴자들에게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하는 소셜연금은 현재 월평균 약 2000 달러 수준이다. 많은 고령자들에게 소셜연금은 전체 은퇴 소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에 식료품과 유틸리티, 생활비 전반이 치솟은 지금은 그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그러나 연금 제도에는 여전히 오해가 많다. 조기 수령을 하면 평생 감액된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연금액이 줄어드는 여러 요인이 존재한다. 이로 인한 손실은 매달 수백 달러에 이를 수 있어 은퇴자들의 생활비 계획에 큰 차질을 줄 수 있다.

소셜연금은 은퇴 생활의 핵심 기반이지만 조기 수령뿐 아니라 소득 기준이나 메디케어 보험료, 세금 등의 영향으로 줄어들 수 있다.

정년 이전에 연금을 받으면서 계속 일을 하면 ‘소득 심사(Earnings Test)’ 적용을 받는다. 정년 전의 근로소득이 올해 기준 연 2만3400달러를 넘을 경우, 초과하는 2달러마다 연금 1달러가 감액된다. 이 경우 근로소득만 계산하고 금융소득이나 은퇴계좌 인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표 참조>

근로 소득 한도는 정년에 도달하는 해에는 6만2160달러를 초과하며 초과분 3달러마다 1달러가 줄어든다. 이 감액은 일시적이어서 정년 이후에는 다



정년 전에 조기에 소셜연금을 받으면서 일을 계속하면 연금액수가 줄어들 수 있다.

소셜연금 감액 3대 요인

구분	주요 내용	감액 방식과 영향
소득 심사	정년 전근로소득이 기준 초과 시 적용 금융소득·은퇴계좌 인출액은 제외	정년전연 2만3400달러 초과 시 초과분 2달러당 연금 1달러 감액 정년 도달 해는 6만2160달러 초과 시 3달러당 1달러 감액 정년 이후에는 감액 종료
메디케어보험료 강제	대부분 연금에서 파트 B 보험료 자동 공제 고소득자는 추가 부담 (IRMAA) 발생	기본 보험료 월 200달러 미만 고소득층은 월 500달러 이상 가능 2년 전 소득 기준 선정, 거액 인출·로스 전환 시 보험료 폭등 위험
연방 소득세	소셜연금도 일정 소득 초과 시 과세 대상 결합 소득 기준 적용	최대 85% 과세 상포함 IRA 인출 시 연금과 합산되어 세금 부담 증가

시 조정되지만 당장의 현금 흐름에 타격을 줄 수 있다.

대부분의 수령자는 소셜연금에서 메디케어 파트 B(병원 진료) 보험료가 자동 공제된다. 현재 표준 보험료는 월 200달러 미만이지만 고소득자는 소득 관련 추가 보험료(IRMAA)가 적용돼 월 500달러 이상까지 오를 수 있다.

특히 메디케어 보험료는 2년 전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은퇴계좌에서 큰돈을 인출하거나 로스로 전환하면 나중에 보험료가 폭등할 수 있어 조심해야 한다.

은퇴자 중에 소셜연금이 전액 비과세라고 생각하는 이들이 의외로 많다. 실제로는 일정한 소득 기준을 넘으면 소셜연금의 85%까지 과세 대상이 된다. 조정총소득(AGI)과 비과세 이자, 연금의 절반을 합산한 결합 소득이 기준을 넘어서면 과세 대상이 되므로 잘 따져봐야 한다. 특히 IRA를 인출할 때는 소셜연금 소득과 합쳐서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이를 미리 파악하고 대비하는 것이 중요하며 다른 소득원과 함께 종합적인 은퇴 전략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소득이 부족하다면 세금 부담을 줄이면서 보완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다. 62세 이상이 되면 현재 집에 살면서 주택 자산을 현금화하는 역모기지를 고려할 수 있다.

62세에 은퇴하는 대신 파트타임 일을 하면 소득도 보충하고 소득 기록을 높여 미래의 연금액을 늘릴 수 있다.

안유희 객원기자

사업체 가치 하락하기 전에 매각 고려

은퇴 후 정리해야 할 5가지

은퇴는 삶을 단순하게 만들고 여유를 되찾을 수 있는 시기다. 그러나 과거의 물건에 집착하면 저축을 갉아먹거나 유언한 생활을 방해할 수 있다. 오랜 습관과 애착, 자부심 때문에 놓기 어려워도 재정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위해 과감히 정리하는 것이 현명한 물건들이 있다.

물건 정리는 현재의 삶을 기준으로 나와 주변을 재편하는 것이다. 필요한

것은 남기고 필요 없는 것은 가치를 온전히 활용할 수 있는 다른 이에게 보내는 것이 좋다. 필요 없는 물건은 판매해 은퇴 자금으로 활용하거나 새 주인을 찾아주는 것이 이상적이다.

전문가들은 은퇴 후 재정 관리의 핵심을 “기쁨을 주는 것만 남기고, 그렇지 않은 것은 과감히 처분하는 것”이라고 조언한다.

▶큰 집= 정서적 이유로 넓은 주택을 고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계단이 있는 다층 구조

나 사용하지 않는 방은 관리에 부담이 된다. 소중한 물건을 떠나보내는 것은 쉽지 않지만, 주거 공간을 줄이면 삶의 질도 좋아지고 현금 확보에 도움이 된다.

▶여러 대의 자동차= 은퇴 후에는 차량 이용 빈도가 줄기 때문에 여러 대를 소유하면 유지비만 늘어난다. 실용적인 차 한 대로 줄이면 보험료와 개스비, 정비비용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부부가 모두 은퇴했다면 차 한 대만 유지하는 것이 고려한다.

특히 고급차는 유지비와 보험료 부담이 커 단순하고 효율적인 은퇴 생활과 맞지 않는다.

▶사업체= 평생 일군 사업체를 지나치게 오래 붙잡고 있으면 가치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다. 제때 매각하면 성과를 보존하고 자유로운 은퇴 생활을 즐길 수 있다.

전문가들은 적절한 시기에 사업을 매각한 후 해방감을 느끼는 고객이 많다고 지적한다. 사업 매각으로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면 여행과 투자, 가족 지원이 모두 수월해진다.

▶수집품= 야구 카드나 도자기, 찻잔, 음반 등 수십 년간 모은 수집품은

애착은 크지만 수요는 제한적이다. 수집품은 일부만 남기고 가치를 이해하는 이에게 미리 팔거나 기증하는 것이 좋다. 관심을 갖는 자녀가 없으면 결국 기부하거나 버릴 가능성이 높다.

▶각종 장비= 스키와 골프채, 자전거까지 추억이 깃든 스포츠 장비는 분신처럼 느껴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방치되기 쉽다. 나이가 들면 무릎은 젊은 날의 추억이 깃든 스키를 감당할 수 없다.

또 스포츠 장비는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금방 구식이 된다. 모든 용품을 안고 살면 공간만 차지한다. 선택하고 정리하는 것이 좋다.

중앙일보는 워싱턴 한인사회를 위해 새 지평을 열어갑니다.

힘찬출발 중앙일보가 함께합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T. 703-281-9660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척추사랑

“여러분들은 건강을 위해서 얼마나 척추를 사랑하십니까?”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에서는 정확한 진단후, 근본적인 문제를 찾아 정성껏 집중 치료합니다.”

교통사고 통증 치료전문 / 자세교정

진/료/과/목

- ◆ 교통사고후유증 (Auto Injury)
- ◆ 두통/목/턱관절 (TMJ) 통증
- ◆ 허리/척추디스크/좌골신경통
- ◆ 손목/팔꿈치/어깨 통증
- ◆ 운동상해/직장상해

- ◆ 발/무릎 통증/자주빠는 발목
- ◆ 만성피로/근육통/관절염
- ◆ 재활/물리/운동 치료
- ◆ 자세교정 및 건강유지
- ◆ 청소년 성장클리닉
- ◆ 임신부/산후 및 여성클리닉

교통사고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이 없이도록 도와드리며,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각종 보험 및 자동차보험, 여행자, 유학생보험 / 각종 건강상담 환영

교통사고/척추신경/손/발 전문 통증병원

LoveSpine

Chiropractic Clinic 척추사랑

라벨 클리닉

T 301.231.7588 / F 301.231.7587

11820 Parklawn Dr. Suite 202
Rockville, MD 20852

Email : lovespineclinic@yahoo.com

코리안타운에서 3분, 샬러스트링 롯데 위튼 센터(11-mart)에서 10분 거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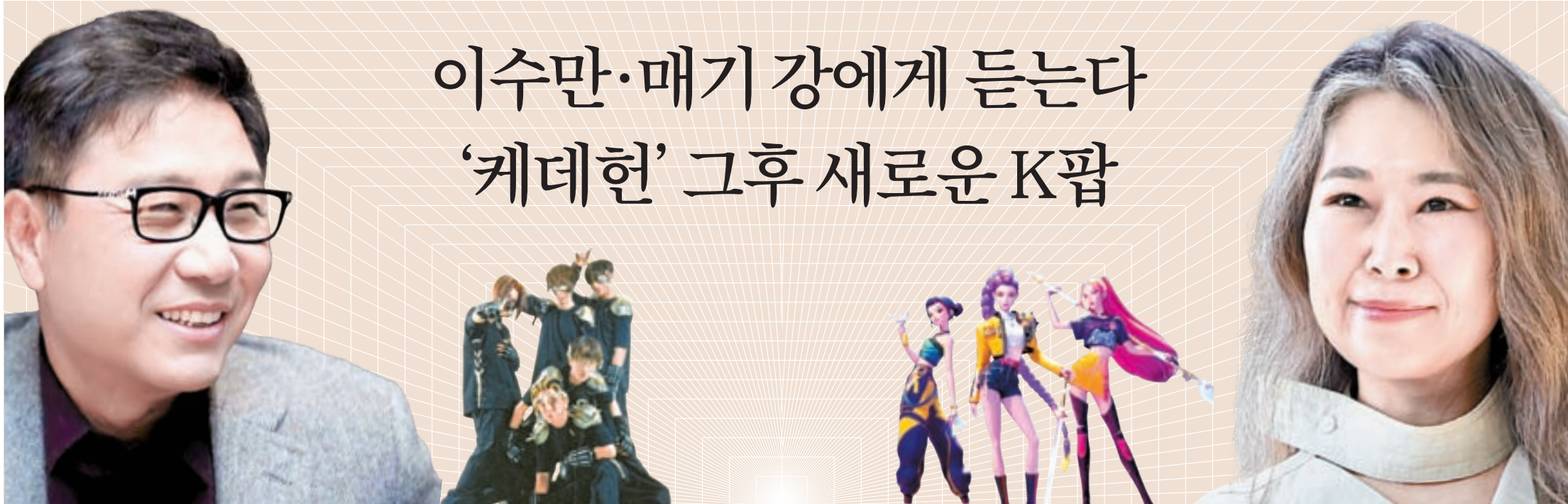
센터빌 / 캔들리 클리닉

T 703.429.4622 / F 703.429.4623

14161 Robert Paris Ct. Suite B
Chantilly, VA 20151

Email : lovespineclinic@gmail.com

센터빌 롯데(한인타운11-mart)와 캔들리 롯데에서 각각 5분거리



1세대 케이팝 그룹 H.O.T.를 만든 이수만(사진 왼쪽)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 H.O.T.를 좋아했던 매기 강 감독은 '케이팝 데몬 헌터스'에 걸그룹 힛트릭스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를 등장시켰다.

[사진 넷플릭스, 중앙포토, 연합뉴스]

“케이(K)팝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다.”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 창립자(A20 엔터테인먼트 키 프로듀서)가 오래도록 강조해 온 말이다. 그는 1995년 SM을 창립하고 연습생 시스템과 아이돌 그룹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하며 케이팝을 하나의 산업으로 만들었다.

그로부터 꼭 30년 뒤, 매기 강 감독은 넷플릭스 오리지널 애니메이션 ‘케이팝 데몬 헌터스’를 통해 케이팝을 또 다른 세계로 확장했다.

케이팝에 한국 문화의 전통과 현대를 창의적으로 결합해 글로벌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두 사람은 17·18일 서울 중구 명동 롯데호텔에서 열리는 중앙일보 창간 60주년 기념 ‘글로벌 미디어 컨퍼런스’에서 연사로 나서, 경험을 공유하고 미래 전략을 제시한다.

현실 산업을 만든 창시자와 이를 서사와 상상력으로 재해석한 창작자가 세대를 넘어 같은 흐름 위에서 만나는

순간이다.

이수만은 케이팝의 생산·소비 구조를 새롭게 정의했다. 1989년 현진영 발굴과 함께 당시로는 획기적이었던 캐스팅·트레이닝·마케팅·매니지먼트가 하나로 움직이는 케이팝 사업 체계를 설계했다. 1995년 SM 설립 후에는 본격적으로 한국형 관리 시스템(연습생)을 케이팝에 접목했고, ‘SMP(SM Music Performance)’라 불린 음악·안무·무대의 삼박자 시스템을 구축해 SM표 아이돌 그룹의 전형을 만들었다. 글로벌 전략으로는 ‘현지화’를 전제로 했다. ‘아시아의 별’ 보아를 필두로 한 일본 진출, H.O.T.와 동방신기로부터 시작된 중국몽(夢), 슈퍼엠으로 본격화된 미국 시장 공략 등이 대표적이다. 이런 맞춤형 콘텐츠 기획은 케이팝을 엔터 산업으로 확장하는 계기가 됐다. SM은 2000년 3월 코스닥에 입성한 첫 번째 엔터사다.

혁신을 향한 발걸음은 2023년 2월

K팝 사업 체계 설계한 시초 이수만 “단순한 음악 아냐, 마블급 엔터산업” ‘가상아이돌’ 성공신화, 매기 강 감독 “케데헌 구현 위해 K팝 아이돌 탐구”

SM을 떠나기 직전까지 이어졌다. 걸 그룹 에스파와 세계관 SMCU(SM Culture Universe)는 가상세계로 발상의 전환을 시도한 사례다.

에스파는 이수만이 프로듀서로 있을 시절, ‘현실 세계와 가상세계의 하이브리드 걸그룹’이란 수식어로 활동했다. 현실에선 카리나·윈터·지젤·닝닝 네 명이 활동하지만 메타버스 속 아바타 멤버(아이·카리나·아이·윈터·아이·지젤·아이·닝닝)까지 합치면 8인조가 된다.

에스파의 등장은 이수만이 설계한 SM의 미래 먹거리인 콘텐츠 세계관 SMCU(SM Culture Universe)

의 시작점이기도 했다. SMCU는 당초 ‘CAWMAN’(이수만의 영어 별명에서 따왔다)이라 불린 새로운 장르 결합 프로젝트와 맞물려 있었다. 카툰(Cartoon), 애니메이션(Animation), 웹툰(Webtoon), 모션 그래픽(Motion Graphic), 아바타(Avatar), 노블(Novel)을 조합해 하나의 거대한 세계관으로 확장하려는 시도였다. 이수만은 아이돌의 음악과 무대에 머물지 않고, 가상의 스토리텔링과 캐릭터 콘텐츠까지 결합해 케이팝을 마블 유니버스 급의 종합 엔터테인먼트 산업으로 키우려 했다.

흥미롭게도 이 구상은 다른 곳에서 현실화됐다. 한국계 캐나다인인 매기 강 감독이 연출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다. 기와지붕 위 전투, 설령탕집 풍경, 팬 사인회와 시상식 무대까지, 현실과 판타지가 교차하는 공간에서 ‘무당 걸그룹’ 힛트릭스와 ‘악귀 보이그룹’ 사자보이즈가 맞서는 내용이다. 매기

강 감독은 지난달 내한 기자회견에서 “힛트릭스와 사자보이즈를 구현하기 위해 여러 케이팝 아이돌을 찾아봤다. 나도 케이팝 팬으로 서태지와 아이들, H.O.T.를 좋아했다”고 말했다.

힛트릭스와 사자보이즈의 인기는 현실 아이돌 못지않다. 힛트릭스가 부른 ‘골든’은 세계 양대 싱글 차트인 미국 빌보드 핫100과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1위를 휩쓸었다. 극 중 사자보이즈가 ‘소다 팝’을 부르며 등장하는 부분은 넷플릭스 모멘트(사용자가 원하는 장면을 저장·공유하는 기능)에서 최고 인기 장면으로 꼽혔다.

케이팝은 이제 현실 아이돌과 가상 아이돌, 무대와 애니메이션, 산업과 서사가 교차하는 거대한 흐름 속에 있다. “음악이 멜로디와 가사뿐만 아니라 멋진 시대에서 춤·영상·스토리까지 결합한 ‘컬처 테크놀로지’로 확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던 이수만의 꿈은 현실이 됐다.

황지영 기자

91세에도 현역이었다, 패션의 ‘왕’

삶과 추억 조르지오 아르마니
모던한 이탈리아 스타일로 호평
패션쇼 모든 작업 하나하나 쟁여

‘91세 패션 거장’ 이탈리아 디자이너 조르지오 아르마니(91세)가 사망했다. 4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아르마니 그룹은 성명을 통해 “무한한 슬픔 속에, 창립자이자 창조자이며 끊임없는 원동력이었던 조르지오 아르마

니의 별세를 알린다”고 발표했다. 아르마니는 평생 결혼하지 않았기에 자녀는 없다.

아르마니는 공동 창업자인 세르지오 갈레오티와 함께 1975년 ‘조르지오 아르마니 S.P.A’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갈레오티가 1985년에 사망한 뒤엔 혼자 회사를 이끌어 왔다.

패션계에서 아르마니는 모던한 이탈리아 스타일과 우아함의 상징으로 평가받아 왔다. 디자이너로서의 감각

과 사업가로서의 통찰력을 통해 아르마니 그룹이 연간 약 23억 유로(약 3조 7341억원)의 매출을 올리는 데 주역으로 활약했다. 조르지오 아르마니, 엠פור리오 아르마니 등 옷부터 향수·화장품·가구·호텔·레스토랑까지 사업을 확장했다.

최근까지도 활발히 활동했던 그는 지난 6월 처음으로 밀라노 남성 패션위크에서 아르마니 브랜드 쇼에 불참했다.

그는 ‘레 조르지오(Re Giorgio·조르지오 왕)’라는 별칭으로 불릴 만큼, 광고부터 런웨이 직전 모델의 머리 손질

까지 모든 작업을 직접 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AP통신은 “알려지지 않은 건강 문제로 회복 중이었다”고 전했다.

아르마니 그룹을 이끌 후계자로는 남성복 브랜드를 이끌어온 레오 델로르코와 여성복을 담당하는 조카 실바나 아르마니가 지목된다. AP통신은 “아르마니는 오랫동안 후계 구상을 해왔다”고 전했다.

AP통신에 따르면 아르마니 그룹 측은 오는 6일과 7일 밀라노에 조문 공간을 마련하고, 이후 비공개 장례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수영 기자



교통사고

- 목, 허리 디스크
- 좌골 신경통
- 어깨, 무릎 통증
- 직장사고, 운동사고
- 척추 교정 및 물리치료
- X-ray, 재활운동 시설 완비

수술없이 목·허리 디스크를 치유하는
최신 디스크 감압치료
DRX 9000-C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모든 통증에는 원인이 있습니다!

정확한 진단, 차별화된 치료로 교통에서 자유로워 지십시오!

교통 사고 후 필요한 모든 절차를 불편함 없이 도와 드립니다.

“내 가족을 보살피듯 정성을 다해 치료합니다!”

김응권 척추신경 전문의

- Johns Hopkins, MBA
- Kyung Hee University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LCA Member
- VA, MD Boards License with PT Privilege
- Certified Disc Treatment Specialist
- Certified DRX (디스크 감압치료 전문의)
- Whiplash & Brain Injury Traumatology Specialist (교통사고 치료 전문의)

VA 센터빌
703-815-2300
13880 Braddock Rd., #207
Centreville, VA 20121

MD 락빌
301-881-1000
12230 Rockville Pike, #250
Rockville, MD 20852

MD 엘리콧 시티
410-715-3500
8860 Columbia 100 Pkwy, #311
Columbia, MD 21045

한인 MRI+초음파 센터
T. 410-740-0055
8860 Columbia 100 Pkwy, #10
Columbia, MD 21045

타이슨스 코너 DC Eye Clinic

전안과

25년 over 11300 백내장/녹내장 수술
over 12700 레이저 치료경력

진료과목

백내장 레이저 수술 Cataract Laser Surgery	안구 건조증 치료 Dry Eyes Therapy
녹내장 레이저 치료&수술 Glaucoma Laser and Surgery	눈 당뇨병 레이저 & 주사 Diabetes Laser and Injection
노년기 황반변성 주사치료 Macular Degeneration Injection Th	안검아수(눈꺼풀 처짐 개선) Eyelid Surgery (Blepharoplasty)
정기적인 눈 검사 Routine Eye Exam	각종 보험 적용 됩니다

구인 리셉션니스트/테크니션 구합니다! 이종언어
이력서: dceyeclinic@yahoo.com

원장/ Benjamin Chun, MD

- Brown University BA Degree
- Brown Dartmouth Medical School MD Degree
- Tripler Army Medical Center Internship
- Madigan Army Medical Center Residency
- Madigan Research Ophthalmology - Participated
- Harvard Cardiovascular Research Program - Participated
- American Board of Ophthalmology Certified
- Voted 2020 Best Eye Dr from Top Doctors Pittsburgh Magazine
- Korean Daily Medical Columnist

Vienna T: 703 853 1966
8381 Old Courthouse Rd Suite #345
Vienna, VA 22182
dceyeclinic.com

White Oak T: 412 681 8505
1985 Lincoln Way Suite #15
White Oak, PA 15131

Shady side T: 412 681 8505
5438 Centre Avenue
Pittsburgh, PA 15232

South side T: 412 681 8505
2300 Jane St.
Pittsburgh, PA 15203

한국말로 진료 받으세요!!

LPGA 우승마저 다투는 쌍둥이

일본골퍼 아키에·치사토 자매
LPGA 첫 쌍둥이 자매 우승 진기록
언니는 공격적, 동생은 치밀한 유형
“라이벌이 가까이 있어 큰 시너지”

크리스마스 아침, 잠에서 깬 8살 쌍둥이 자매는 골프백 2개를 발견했다. 언니 아키에 머리말엔 파란색, 동생 치사토 옆엔 분홍색 백이 놓여있었다. 일본의 이와이 아키에, 치사토(이상 23) 자매는 올해 신인으로 LPGA 투어에서 각각 우승, 사상 최초로 ‘쌍둥이 자매 우승자’라는 기록을 남겼다. JLPGA 무대에서만 통산 14승을 합작한 자매는 이제 세계 무대에서도 존재감을 뚜렷하게 드러내고 있다. 세계 랭킹은 아키에가 23위, 치사토가 32위다. 자매를 서면으로 인터뷰했다.

-아키에는 파란색, 치사토는 분홍색이 트레이드마크다.

“초등학교 2학년 크리스마스에 산타 클로스에게 골프 클럽을 부탁했는데, 아침에 보니 파란색과 분홍색으로 나눠져 있었다.”(아키에) “나는 산타에게 ‘분홍색이 좋아요’라고 썼던 기억이 난다.”(치사토)

집안일로 바빴던 어머니가 연습장

에 가는 아버지(이와이 유우지)에게 “쌍둥이를 데려가라”고 하면서 자매는 골프를 시작했다. 자매가 골프에 흠뻑 빠지자 교도관이었던 아버지는 술·담배·파친코를 끊고 용돈도 2만엔으로 줄였다. 그리고 자매를 뒷바라지했다. 아버지는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게 즐거워 힘들지 않았다”고 했다.

주로 바지를 입는 아키에는 “귀여운 건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라고 했다. 반면 스커트를 즐겨 입는 치사토는 “멋진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기분 전환을 위해 가끔 여성스럽고 귀여운 걸 섞고 싶을 때 치마를 입는다”고 했다. 자매는 드라이버 색깔처럼 성격과 경기 스타일도 대비된다. 아키에는 공격적이고, 치사토는 치밀하다.

-자매끼리 서로 경쟁할까.

“만약 마지막 날 마지막 조에서 경쟁한다면, 치사토에게만은 지고 싶지 않을 거다.”(아키에) “경쟁심 20%, 동료의식 80%인 것 같다. 다만 언니가 우승하면 (기쁘다가) 일주일쯤 지나 아쉽다는 생각이 든다”(치사토)

자매는 일본 여자골프가 강해진 이유로 2019년 시부노히나코(27)의 브리티시여자오픈 우승을 꼽았다. 자매는

“TV로 보면서 ‘나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올해는 일본인이 메이저 2승인데, 가까이에서 보며 큰 용기를 얻었다”고 말했다.

-한 명 성공하기도 어려운데, 자매가 동시에 세계적 선수로 성장했다.

“가장 가까운 곳에 라이벌이 있으니 자연스럽게 시너지 효과가 생긴다.”(아키에) “운동회, 마라톤에서도 늘 1·2위를 다투며 서로 끌어올렸다.”(치사토)

-어려움도 있을 텐데.

“돈이 2배로 드는 게 단점이지만, 즐거움도 2배라고 생각한다.”(아키에) “비교당하는 게 힘들다. 그러나 주목받는 건 반대로 장점으로 될 수 있다.”(치사토)

자매는 어릴 적 아버지에게 들은 가르침(“곤란한 사람이 있으면 도와줘라. 외로운 아이가 있으면 함께 있어라. 내가 당하기 싫은 일은 절대 하지 마라. 여자아이와 어린아이에게는 친절하라”)을 지금도 마음에 새긴다. 아버지는 또 “점심시간에 혼자 있는 아이를 그냥 두지 말고 같이 먹여라”라고도 가르쳤다.

자매는 3~4주마다 캐디와 매니저를 교체한다. 새로운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다.

성호준 골프전문기자



미국여자프로골프(LPGA) 데뷔 시즌에 나란히 우승하며 사상 최초로 ‘쌍둥이 우승자’ 기록을 세운 이와이 자매. 언니 아키에(왼쪽)는 바지를, 동생 치사토는 치마를 즐겨 입는다. [사진 요넥스]

기습번트·안타·홈런... 이정후의 ‘요술 방망이’



7번타자로 홈런 포함 3안타 활약
‘MLB 두자릿수 홈런’ 한국인 8번째
이달 6경기 중 4경기 멀티히트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의 이정후(27·사진)가 홈런 포함해 3안타를 치며 시즌 타율 0.270대에 재진입했다.

이정후는 9일(한국시간) 미국 샌프란시스코 오라클 파크에서 열린 애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와의 홈 경기에 7번 타자 겸 중견수로 선발 출전에 4타수 3안타 2타점 2득점의 맹타를 휘둘렀

다. 시즌 타율은 0.267에서 0.271(510타수 138안타)로 올랐다. 0.270대 타율은 지난 6월 14일 이후 87일 만이다.

이정후는 첫 타석부터 홈런포를 쏘아 올렸다. 팀이 0-3으로 뒤진 2회 1사 1루에서 상대 오른손 선발 네빌 크리스맷의 시속 119km 커브를 걷어 올려 오른쪽 담장을 넘기는 비거리 115m 투런 홈런을 쳤다.

지난달 20일 샌디에이고 파드리스전 이후 20일 만에 시즌 8호이자 MLB 통산 10호 홈런을 신고했다. 추신수(218개), 최지민(67개), 김하성(50개), 강정호(46개), 최희섭(40개), 이대호(14개),

박병호(12개)에 이어 빅 리그에서 두 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8번째 한국인 타자가 됐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우전 안타로 멀티 히트(한 경기 2안타 이상) 게임을 만든 이정후는 4-4로 맞선 6회 세 번째 타석에선 상대 수비진의 허를 찌르는 기습번트로 세 번째 안타를 기록했다. 무사 1, 2루에서 번트를 댄 볼이 투수와 포수, 3루수 사이로 절묘하게 흘렀고, 포수 가브리엘 모레노가 잡으려다 놓친 사이 이정후는 바람의 손자답게 1루로 내달렸다.

샌프란시스코는 이어진 무사 만루에

대거 5득점 하며 승기를 잡았다. 7회 네 번째 타석은 2루수 직선타로 물러났다.

이정후는 이달 들어 치른 6경기 중 4경기를 멀티 히트로 장식하는 등 절정의 타격감을 보였다.

월간 타율은 0.500(24타수 12안타)이다. 이정후의 활약을 앞세운 샌프란시스코는 애리조나를 11-5로 꺾고 73승 71패가 됐다. 내셔널리그(NL) 서부 지구 3위인 샌프란시스코는 와일드카드 경쟁에서 2위 뉴욕 메츠에 3경기 차로 따라붙었다.

송지훈 기자

① 위싱턴 중앙일보

좋은아침! 좋은신문! 중앙일보

BRADDOCK FAMILY DENTAL
Children & Adults: Sedation, Cosmetic & Implants

브래덕 패밀리 치과

www.BraddockFamilyDental.com

진료시간 월 ~ 금: 8 ~ 5PM
수요일: CLOSED

최신 3D 장비보유, 최첨단 CT 촬영과 디지털 X-RAY, Intra-oral Scanner로 정확한 진단과 섬세한 최선의 치료를 약속드립니다.

진료과목

- 임플란트
- 신경치료
- 교정
- 발치
- 크라운
- 임플란트 틀니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잇몸치료
- 응급환자

원장 조상욱 (Samuel Cho, DDS, FICOI)

- UVA
- MCV School of Dentistry
- AEGD Residency @ MCV
- Fellow of International Congress of Oral Implantologists(ICOI)
- Invisalign Certified Provider
- American Dental Association
- VA and Northern VA Dental Society

모든 치과보험(PPO) 받습니다. 메디케어 (VA SMILES FOR CHILDREN) 받습니다. 메디케어 보험 받습니다. • Anthem(Liberty) • Aetna • Humana • United

Be Social with Us!

오피스
571-339-3628
한국어 상담
571-339-3682

123 Ox Rd

Braddock Rd

★
Braddock Family Dental
10513 Braddock Rd.
Fairfax, VA 22032



먼길, 험한길, 언제나 한결같이 묵묵히 손잡아 주는 **사랑손**이 있습니다.

모두가 행복합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가족, 간병사 그리고 직원들, 모두가 만족한 회사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에 가족의 돌봄을 맡겨주세요.

은혜안에 한행복, 한소망을 나누는 곳!! 섬김이 무엇인지 **맛보게** 되실 것입니다.

**메디케이드 (Medicaid) 신청이 필요하세요?
롱텀케어(Long-Term Care) 신청이 힘드세요?**

러브핸드 홈헬스의 전문 상담사가
신청부터 성실히 도와드립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간병인이 필요하세요?

은혜와 사랑으로 섬기는 러브핸드 홈헬스의
간병사분들이 여러분을 섬깁니다.

편법이 없는 간병회사를 찾고 있으세요?

원칙의 신념 러브핸드 홈헬스에 전화하세요.
저희는 원칙과 법을 준수합니다.

사랑의 섬김이 넘치는 러브핸드 시니어데이케어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시니어 데이케어
-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프로그램 구성
- 그리운 맛과 건강을 생각한 집밥으로 아침 및 점심 식사, 그리고 영양 간식 제공
- 의사 방문시 교통편 제공
- 메디케이드 혜택
- 친절한 간호사와 함께하는 수시 건강 체크 및 상담
- 취향에 맞춘 즐거움과 편리함을 주는 각종 시설 완비
- 일반 회원은 소정의 회원비로 센터이용 가능
- 서류 번역 및 작성 등 제반 소셜 서비스 제공

사랑의 돌봄이있는 러브핸드 홈헬스

- 버지니아 주정부 및 메디케이드로부터 인가 된 전문 간병 서비스
- 노인성 치매, 장애우 전문 간병
- 메디케이드 혜택
- 개인 부담 환자 최저 부담 상담
- Skilled Nurse 서비스
- 방문 물리치료 서비스

직원 모집

- * 회사 성장으로 인해 일할 더 많은 인재를 모집합니다.
- * 문의: admin1@lovehandhomehealth.com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문의 및 상담

703-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찬틀리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Chantilly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703) 657-0944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데이케어 / 뉴포트뉴스
Love Hand Home Health &
Senior Daycare/ Newport News
716 Denbigh Blvd., Suite E-1
Newport News, VA 23608
757) 527-4140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한국과 미국에서 풍부한 임상경험과 실력을 갖춘

통증 재활의 최고 전문가가 집중 케어해 드립니다!

메디
케어

교통
사고

■ 각종 의료보험, 메디케이드, 캐쉬플랜

진료
내용

근골격계 치료

레드코드 치료, 사선근육안정화 치료
척추측만증 치료, 맥켄지 치료
메이틀랜드 치료

중추신경계 손상치료

신경발달치료
보봐스치료

통증치료

근육 통증침치료
관절 / 근막이완치료
전기치료

진료
과목

- 목, 허리 통증 (디스크, 좌골신경통)
- 스포츠 손상/직장상해
- 교통사고 손상/뇌졸중
- 척수손상 후 재활치료
- 주요 근육 관절 통증
- 산전/산후 통증
- 관절수술, 척추수술 후 재활/물리치료
- 자세교정 운동 (측만증, 후만증)



김민정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과
한국체육대학교 대학원 건강관리학전공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Doctor of Physical Therapy from Dominican College in New York
Licensed in Virginia, Maryland
Certified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Practitioner
Certified Redcord Practitioner
Certified Dry Needling Practitioner

원장 김우기 DPT

연세대학교 재활학전공
고려대학교 대학원 질병역학전공



CORE Physical Therapy & Rehab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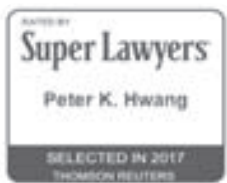
예약환자 에 한해 주말에도 진료합니다

김우기 통증 재활 물리치료

T. 703-865-6455
F. 703-649-6455
14153 Robert Paris Ct. Ste. A
Chantilly, VA 20151

교통사고

Sung Hwang&Kim | LLP
합동법률사무소



www.shkfirm.com
Toll Free: 888.772.3001



찰리 성 변호사
CHARLEY C. SUNG, ESQ.



피터 황 변호사
PETER K. HWANG, ESQ.



폴 김 변호사
PAUL W. KIM, JD, MPH.



대니얼 페이 변호사
DANIEL W. PEI, ESQ.

Columbia, MD
Annandale, VA

T. 410.772.2324
T. 703.436.1444

9256 Bendix Rd., Suite 109, Columbia, MD 21045
7353 McWhorter Pl., Unit 202, Annandale, VA 22003

9월

구인

광고

고

척추신경병원

2001년부터 애난데일에서
운영해 오고 있는
척추신경클리닉을
은퇴 관계로 내놓습니다.
의욕적인 마인드로 운영하실
척추신경 닥터에게
레이저, X-Ray 및 시설 일체를 포함해서
파격적인 조건으로 양도하고자 하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

TEL: 571-212-3082

파리 바게뜨 베데스타
Paris Baguette Bethesda

경험있는 제빵사,
케이크 데코분들
모십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WBS
월드뱅크카드 서비스
직원 모집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대우 보장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니다.
*많은 지원 바랍니다!
문의: 703-225-5500
hr@worldbankcard.net

SD Mechanical
테크니션 직원 모집

대형 슈퍼마켓
냉장 · 냉동
서비스 & 설치 전문 회사
유경험자 또는 관심 있으신 분
서비스 지역
VA · MD · DC
703.447.4683
sdmechanical.office@gmail.com

금매
Korean BBQ
& Hot Pot
게이더스버그, MD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sf 규모
저렴한 렌트
매매가격 Only
\$280,000
최근에 새로 지어서
리모델링 비용절감
240-988-6868

대형믹서기
핫 세일

HOBART Mixer 140 qt.
Lease end
Machine less used
Low price
Year-end Quick Sale
Sfood90@gmail.com
Text: 703-200-5541
(Alex, VA)

엘리콧시티 편한나라 척추신경

직원 모집

WE ARE
HIRING

▶풀타임 & 파트타임
▶정규직원 베네핏 제공
▶이중언어 우대
▶무경험자 환영
◆이력서 보내실 곳 : carefreeland@gmail.com

워싱턴 사계절 걷기 클럽
Washington Four Season
Walking Club

●매주 일요일 아침 8시
●오솔길, 산길 걷기
●6마일/2시간
●운동화, 물 한 통이면 준비 끝
Fairfax 인근 공원과 숲속
Occoquan trail
Billy Goat trail
호수, 강, 바다 등 여러 코스
걷기 좋아하시는 분 항시 환영!
연락처: Ms. Han
(703) 939-5223
(가능하면 text message 주세요)
“아침 숲속을 걸으면 건강과 행복이
함께 찾아 옵니다”

독자가 행복 해진다!!

Kmediarods.com

① 워싱턴 중앙일보

황계실
부동산

고객만족 17년!
확실한 부동산 전문가!

매매 / 리스 전문
주택, 건물, 오피스, 창고, 상가
부동산 전문 브로커
GSHwangRealty 合 印
571-239-6054

금 매

매매가격: \$59,000
•혼자 할 수 있는 자영업
•월수입: \$5,500 ~ 6,500
•업종: 캔디 배달(VA, MD)
•주 3일 근무
Mr. 박
571.238.9435
텍스트 메시지로 연락처 남겨주세요
SSP Distributor

메디케어
정문기 · 정선화 보험

건강 보험, 연금,
롱텀 케어까지 안락하고,
건강한 노후 준비를 위한
길잡이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브리지원 보험
(BridgeOne Insurance)
703-598-3316
703-862-5395
14631 Lee Hwy. Unit 408
Centreville, VA 20121

L&B
Universal, Inc.
히팅 · 냉동

리셉션리스트 구함
◎ Chantilly, VA 지역
◎ 이중언어 필수
◎ 근무시간 조정 가능(풀타임)
◎ 인터뷰 후 급여 조정 가능
703.622.7737
accounting@lbuniversal.com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① 워싱턴 중앙일보

"하루 준비, 끝"

좋은 신문이 당신의 생활을 바꿉니다.
일등신문 중앙일보 하나 보는 것 만으로도 당신의 삶이 편해집니다.
생활을 윤택하게 이끄는 풍요로운 콘텐츠, 아침을 기분 좋게 여는 중앙일보로
하루 준비를 편안하게 끝내시고 행복한 하루를 시작하십시오.

대표전화 : 703-281-9660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중앙일보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구인/구직 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C13

메릴랜드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콜롬비아 복지센터에서 함께 일하실 직원을 모집합니다.
RN 간호사, 운전 기사(옴니 거주 환영)
주방 보조
▶443-691-7968

BridgeOne Insurance MD
보험에이전트 구함, 사무실제공, 유/무 경
험자 가능
▶703-598-3316, 703-862-5395

H-Mart 메릴랜드 직원 모집
모집부서: 인사, 자산, 영업, 물류
근무지: Upper Marlboro MD
베네핏: 401K, 유급 병가/휴가, 보험 등
자격요건: 합법적 근무조건 소유자
지원방법: https://www.hmart.com/
about-us/careers/job-openings
▶문의전화: 201-554-6047

실버스프링에 위치한 종합보험 에이전트
에서 함께 일하실 이중언어(영어 또는 스페
니쉬) 가능한 유, 무경험자 구합니다.
albert@wkkinc.com
▶301-526-7000 (Cell) Mr. Kim

메릴랜드 주 로크빌에 있는 병원에서 리셉
셔니스트와 직원을 구합니다.
영주권 소는 가능/월요일-금요일 정규직
& 파트타임/한국어와 영어를 모두 구사해
야 합니다. 이력서를 LaurenKim@gmail.
com으로 보내거나
▶301-275-2357로 전화하세요.

락빌 롯데플라자 마켓에서 함께 일하실 전
산 아이템 코디네이터를 구합니다.
▶301-417-8678

H Mart Wheaton RTC 부서 직원모집
업무: 주방 보조 (주방)
Address: 12015 Georgia Ave,
Wheaton-Glenmont, MD 20902
연락처: Customer Service Manager
▶P: 301-942-5071

임마누엘 어덜트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
직원모집: 운전기사/간호사(RN)
- 건강보험 - 좋은 조건의 연봉과 베네핏
- 유급 휴일과 유급 병가
▶443-828-7777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
지사 약간명, 리셉셔니스트 구함
▶301-787-4842 (문자로만 연락 바람)

세탁소/이미용/기타

19개월 남자 아기 돌봐주실분 구합니다.
입주가능 또는 출퇴근 (풀 & 파트타임)
410-961-3012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합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SD MECHANICAL 테크니션모집
대형수퍼마켓 냉장냉동 서비스와 설치 전문
회사로 냉장냉동쪽에 경험 있으신분이나 관

심있으신분 지원 부탁드립니다
서비스 지역 VA, MD, DC
메일: Sdmechanical.office@gmail.com
전화: 703-447-4683

바느질 유경험자 구함
파타임, 폴타임, 엘리콧시티
410-926-3200

파사데나 지역 비빔밥 캐리아웃 같이 일
하실분 구합니다. 남녀 모두 환영
443-991-9331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엘리콧시티 한국식당에서 주방장, 부주방
장, 캐쉬어를 모집합니다.
443-691-4130 (문자요망)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무궁화 메디컬 데이케어 센터에서 운전기사
를 구합니다. 엘리콧시티, 하노버 메릴랜드
443-621-2625

세탁소 풀/파타임, 베깅만 하실분, 영어 가능
하신분
410-926-3200

골든 듀 보석 백금, K14, K18, 다이아몬드
판매. 결혼 예물, 아기 돌반지 팔찌
▶410-480-2477 (엘리콧시티, MD)

운전 면허 VA/MD 불체자에게 면허정식
발행, 필기 요점정리, 예상문제. 한국/타주면
허/기타 교통국 업무
카톡ID: jimdong123
이메일: allmandong@gmail.com
▶571-294-0057

OK택시 공항/장거리 최저요금로 모집니다
▶240-796-0093

JD STAR 소독 (Mr. 은) Rats/ Mice, Insect,
Termites
▶410-370-8057

게이더스 MD. 바쁜 오토바디샵에서
경험있으신 오토바디 기술자 구함!
▶240-246-4477

싱글/타운 방 렌트

실버스프링 루트 200, 95, 495 근처,
싱글룸 방하나 렌트 합니다.
301-962-0728 / 240-997-3168

메릴랜드 그린벨트 지역, 조용하고 교통편리
타운하우스 방 하나 렌트, 즉시 입주 가능,
방세 저렴
301-379-9660

495와 95번이 만나는 첫번째 EXIT, 메릴랜
드 대학 가까운 싱글홈 이중방 렌트, 즉시 입
주 가능
301-385-3535 (문자 요망)

교통 편리한 메릴랜드 실버스프링 싱글홈
1층 전체 렌트, 방2, 화장실1, 주방, 세탁기,
건조기, 출입문 별도, 즉시 입주 가능
(미용실 가능)

301-646-3127
메릴랜드 한오버 이중방 & 베이스먼트 방렌
트합니다. 여자분 환영
410-917-1262

엘리콧시티 롯데에서 10분 거리 타운하우스
2층방 렌트, 유포, 가구일체, 교통편리, 직장
인 남자분 환영
443-631-7866

버튼스빌 198번과 29번이 만나는곳에 위치
한 싱글홈 이중방 렌트, 욕실, 냉장고 별도, 인
터넷, 가구 완비, 주차장, 비흡연자, 여성분
환영
240-413-2738

사업체 매매

Korean BBQ & Hot Pot 구매
\$280,000 메릴랜드 게이더스버그, 최적의
위치, 140석 이상, 3000 sqft, 저렴한렌트
비, 최근 새로 지은곳으로 리모델링비 절감
관심 있으신분 연락주세요.
240-988-6868

글렌버니에 새로 시작하는 리커스토어를
매니지먼트로 자기사업 하실분.
문의: 443-262-1813

컨비니언스토어/매입
- 그로서리 매입 / 현장 매입 결정
- 결정 당일 현금지불* 이메일, 문자 환영
6313125na@gmail.com
443-631-3125

버지니아 지역

구인/사무/직원모집

간호사모집 RN, LPN (폴타임, 파트타임)
재택근무, 처우는 별도 협의
▶703-507-2492 (Mr. Bae)

ANNANDALE, VA 공인회계사사무실에서
함께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Full & Part time, 경력자 우대, 무 경험자도
환영, Benefit 있음 (보너스, 건강보험, 유급
휴가 등등), 영주권 스폰서 가능
Email : wikim0111@gmail.com

BridgeOne Insurance 보험 에이전트 구함
사무실 제공, 유/무 경험자 가능, VA & MD
▶703-598-3316, 703-862-5395

WBS Processing과 Tech support 부서
에서 함께 일하실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인재를
모집합니다. 관련 업무 경험자 우대하며, 체
계적인 교육과 안정적인 근무 환경을 제공합
니다.
모바일 앱과 POS 영업에 관심있는 직원도
모집합니다. 업계 최고 대우 보장
문의: 703-225-5500
이메일 지원: hr@worldbankcard.net
많은 지원 바랍니다.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어카운트 보실분 구함. 유경험자 우대
703-507-2020

애난데일에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보
조원을 구합니다.
Full / Part time 가능, 기본적인 영어와 사무

실에서 일한 경력 환영
이력서를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sjshin.esq@gmail.com

리셉셔니스트 (이중언어 필수)를 모집니다
장소: Chantilly, VA 20151
시간: 조정가능 (폴타임)
급여: 인터뷰 후 조정가능
전화문의: 703-622-7737
Email : accounting@lbuniversal.com

하이트론스(Hitrons) 버지니아 센터빌 지점
Full time & Part time 세일 담당 모집
가전제품 및 마사지체어, 매트리스 전문 매
장에서 함께 일하실분을 급구합니다
▶201-417-5350

애난데일위치, 이민법 사무실, I-140 파일,
패러리걸 (법률보조원) 구합니다.
이력서: Heajinjung@eb3recruit.com

러브랜드 홈헬스에서 직원을 모집
- 모집분야: Accounting, 간호사
(RN, LPN), Case Coordinator
- 지원자격: 이중언어 가능, 컴퓨터 사용가
능, 자격증 소지자
- 근무혜택: 건강보험/ IRA 혜택제공,
유급휴가 제공 / 경력자 우대함
- 지원 및 문의: HR 담당
▶703-657-0944 / E-mail: admin1@
lovehandhomehealth.com

센터빌 지역 덴탈랩 CAD/CAM, ZIRCONIA
원스텝 기술자 구합니다.
571-229-0387

홈케어 (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보험, 연금 에이전트 라이선스 있으신분
환영. 정례보험, 생명보험, 연금보험 무료
컨설팅 해드립니다.
703-939-2737

김서규 공인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 전공
자나 경력있으신분 구합니다.
이력서 보내주세요.
▶Resume : skim@skimcpa.com

보험회사 사무직 Annandale/Ellicott city
지역 근무시간 8시-5시(월-금)
401(K), 치과보험, 유급휴가 \$25.00/hr
▶이력서 joshuaoh123@gmail.com

애난데일에 위치한 K MARKET에서
CUSTOMER SERVICE 직원 구합니다.
- 경력자 우대
- 오후근무가능하신분
▶연락처 703-712-7089

정관장 애난데일 매장 직원 구함
풀 타임/파트 타임/일요일 판매 경험자 우대
▶문의: 571-348-3723

Fairfax 풀/파트타임 이중언어
사무직 유경험 40k-50k 베네핏 제공
▶571-232-0702
coverworldgr@gmail.com

탐 여행사 버스투어 가이드 구함
-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제출
- 제출 할 곳: ceo@toptravelusa.com
▶703-543-2322 (레나 고 실장)

애난데일 회계사사무실에서 회계업무직원 구

함. 유경험자 우대
회계사, EA 라이선스 소지자 우대
이력서: hr@yicompany.com

홈케어 에이전시 구인
애난데일 사무 및 리셉션 직원 구함
홈케어 또는 보험등 유경험자 우대
이력서: hr@firstthco.com
전화: 571-549-6789

센터빌, 찬틀리 지역 물리치료 병원
에서 한국어/영어 가능한 Receptionist 구함
이력서: coreptrehab16gmail.com
▶703-865-6455

나투라치와 어시스턴트 및 리셉셔니스트
월/화/목/금, 영어 가능자
Entery-Level Welcome
▶Resume to: naturadent@gmail.com

급구, 센터빌/찬틀리 지역
임플란트 전문 치과 풀/파트타임
유경력 어씨/리셉션 환영
이력서 첨부 govaepic@gmail.com
▶703-574-0528

치과병원 Front Desk(레스톤/타이슨스)
경험자 우대, Dentrix Plus Full/Part Time
No exp.require 이중언어,
▶tysondentalcenter@gmail.com

닥터오피스 리셉션니스트 구함
파트타임, 폴타임 가능
mercy4resume@gmail.com
▶703-256-3005/703-830-0993

식당/식품

파리바게트 베데스다에서 경험있는 제빵사
나 케익 데코분들 모집니다.
301-312-2328
Ackfandb@gmail.com

프레데릭스버그 일식당에서 일하실 히바찌
셰프 구합니다.
703-258-4356

애난데일 일본 라면 가게에서 파타임 홀직원
구함. 유/무 경험자 환영
703-338-3037

애난데일 치맥에서 Server구합니다.
학생 환영
571-352-4938 (문자) 또는
Chimc.va@gmail.com

엘리콧시티 헤반 한국 식당에서 하기 직원을
모집합니다.
한식 주방, 쿡 (숙소 제공 가능)
▶443-420-3096

애난데일에 새로 오픈하는 분식점에서 주방
헬퍼해 주실분, 파타임 카운터 캐쉬어 구함
703-401-9997

Dumfries 컨비니언 스토어 RT 1 & 234
야간 근무 가능하신분 (11PM-7AM)
나이 불문, 남자분 환영
703-291-7174/703-774-7443

H-Mart Herndon 직원 모집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임희상 이사
▶571-839-1647

H-Mart Falls Church 직원 모집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진욱

척추신경전문의

교통사고

직장사고

운동사고

• 최신형 의료시설 / X-Ray 완비

• 교정 및 물리치료 • 의료보험 취급

703-691-3111

7023 Little River Tpke #409
Annandale, VA 22003

동부 최대 스크린 골프

No.1

GOLF LOUNGE

“No.1골프에서
함께할 Staff를
구합니다”



571.591.4455

5938 Centreville Crest Ln
Centreville, VA 20121
https://no1golfounge.com

브래덕

패밀리 치과

진료 과목

• 임플란트

• 충치치료

• 전체/부분 틀니

• 교정

• 일반치과

• 미용치과

• 발치

• 잇몸치료

• 크라운

• 응급환자

• 임플란트 틀니

진료 시간

월 ~ 금: 8 AM ~ 5 PM

수요일: CLOSED

571-339-3628

571-339-3682

구인

메릴랜드 베데스다
한방병원에서

바디 마사지사 약간명
리셉션니스트

구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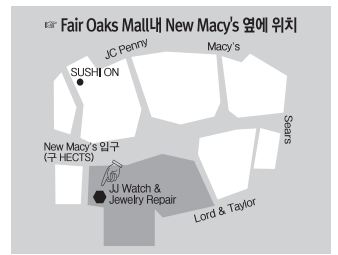
문자로만 연락 바람

301-787-4842

JJ Watch & Jewelry

www.jjwatchusa.com

페어옥스 몰 안에 있는
JJ Watch & Jewelry Shop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합니다.
캐시어 하시면서
기술 배우실 분
환영합니다.



703.691.1993

중앙생활안내 Classified

C14

구인/구직광고와 개인 렌트 유료 광고 내용 보내실 곳: kdclass2018@gmail.com (게재 중지를 원하실 경우 이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9월 10일 수요일 **중앙일보**

Customer Service, Cashier 유경험자 우대
매니저: 조성수 점장
▶703-573-6300

롯데프라자 스텔링점 구인
푸드코트 캐쉬어, 폴타임, 파트타임 가능
성함과 연락처 남겨주세요.
▶sijang.sterling@gmail.com

점보 인터내셔널 수퍼마켓
정육부 매니저 1명, 그로서리 매니저 1명
은퇴연금/건강보험,
내셔널하버 MGM 근처
이력서: jumbo.food@gmail.com
▶703-577-2425 (전화문의 Mr. 박)

H Mart 또는 롯데에서 시식 행사 진행하실
분 문자로 연락 주세요. 폴타임, 파트타임
▶571-991-4172

이미용

애난데일 미용실에서 리셉션리스트 구함
(일요일 근무가능 하신분)
703-750-2424/ 703-717-8256

세탁/얼터레이션

알렉산드리아 테일러 샵에서 일하실분
703-328-3064

비엔나 지역 세탁소에서 파타임으로 일하실
분을 모집니다.
-카운터 캐시어, 유틸리티 워커
(영어가능자)
7am - 3:30pm (월, 화, 목, 금)
4pm - 7:00pm (월-토)
유경험자 우대, 무경험자 트레이닝
703-499-7050

세탁소 픽업스토어에서 카운터 보실분
경험자우대, DC 전철역 옆
240-644-4190

알렉산드리아 픽업/카운터, 배강 하실분/
파/폴 타임(문자요망)
703-608-5183

DC 세탁소 픽업하실분 폴타임 메트로 3분
몽골분 환영
301-221-2463

알렉산드리아지역 세탁소 픽업 스토어에서
파트타임하실분.
703-300-4959

세탁소에서 수선하실분 구함
페어팩스 가버먼트 파크웨이
703-568-3574

자동차/정비/바디샵

폴스처치 지역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유 경험자 구함. 첫째/셋째 토요일 휴무
571-332-6110

엘리콧시티 자동차 정비소에서 메케닉 기술
자 구함
410-446-9981

첸틀리 자동차 정비소에서 성실히 일하실 분
모집합니다.
메케닉, 준메케닉, 헬퍼 구함.
703-266-1983

Chantilly VA(Ourisman Toyota Auto
mechanics) 경험에따라 우대함. 베네프!
Ask Service manager Joon
202-699-1805

자동차 정비사 구함 애난데일 지역
Mechanic or Mechanic Helper \$50k
-\$100k 가능 VA safety inspection 우대
(emissions test 없어도 됩니다)
Manager 하시면서 2-3년후 가게 맡아 하
실분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
571-376-7878

청소/기타구인

Office 청소하실분 구합니다.
경험있는 Area Manager, 매나사스 (VA)
▶301-537-3800

No.1 골프에서 Staff 모집합니다(센터빌)
▶571-591-4455

홈케어(센터빌) 업무팀 직원 구함
유경험자 우대 이중언어 구사자
이력서: hr@firstthco.com
▶571-549-6789

홈케어 오피스에서 HR, Billing Scheduling
하실 직원분들을 구합니다.
영어가능자 환영. 영주권 스폰서 가능합니다.
571-422-7189

사인 컴퍼니에서 일하실 성실하고
꼼꼼하신분. 유·무 경험자
703-499-0857

건물관리인(월-토), 스폰서가능
영어, 전기, 기계, 목공 모두 가능하신 분
240-903-0777

싱글/타운홈 렌트

애쉬번 타운하우스 렌트 \$3,300
전체 마루, 차고2, 덱, 267/607
Briar Woods 하이스쿨 학군
▶571-239-6054

페어팩스 비엔나역 타운하우스 렌트
2100 sqft, 방4, 화3.5, 워크아웃 베이스먼
트 \$3,200
470-485-1875

애난데일 엔드 유닛 타운홈스타일 콘도 렌트
방3, 화2, 나무 마루, 세탁기, 건조기, 1,2층
구조, 넓은 리빙룸 \$2,500(물값 포함)
▶703-477-3114

맥클린에 위치한 싱글하우스 전체 렌트하실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4, 화장실 3, 차고 2, 즉시 입주 가능
571-277-7758

애난데일 중심가 1 에이커 싱글하우스 반지
하전체 렌트
방3, 화2, 키친, 리빙룸, 세탁기, 입구 별도,
주차넵, 최근 전부 새로 수리하였으며, 전
화 하면 사진 보여 드림
703-395-4380

브리스토(게인스빌 옆) 타운 하우스 렌트,
엔드 유닛, 방 3, 화 3.5, 차고 2, 업데이트
된 주방, 세탁기, 건조기, 새 페인트, 넓은 덱,
2013년 지은 새 단지 새 집,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게인스빌 업데이트된 예쁜 벽돌 타운홈
방 3, 화 4, 차고 2, 탁트인 키친, 새 나무 마루,
새 페인트, 확장형 3층 구조, 가까운 곳에 큰
쇼핑센터, 레스토랑, 그로서리 있음.
\$3,2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센터빌 파월 초, 2 car 벽돌 타운하우스 렌트
\$3,400 방 3, 화 2.5, 덱, Faircrest, 루트
29/50/286/66/28, 9월 1일 입주
▶571-239-6054

페어팩스 Costco 뒤 타운하우스 렌트
\$3,900 방3/화3/차고2, 최고 학군,
29/50/66/286 최고 로케이션
▶571-239-6054

1. 센터빌 Fair Crest 타운홈 렌트 \$3,500
방3, 화3.5, 2car garage, 긴 드라이브
웨이, 주차다수, 콜린 파월 초, route
50/66/28/29
2. Lorton 타운홈 \$3,300
방3, 화3.5, 2car, 전부 마루, 주차다수
South County 하이, RT95/395/286/123
▶571-239-6054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End Unit 렌트
\$3,000, 방3, 화3.5, 차고2
703-489-6926

Haymarket 타운홈 렌트 End Unit, 66에서
가까움 \$3,900 방4, 화3.5, 차고2
703-489-6926

첸틀리 새타운 렌트 \$3,600 방3, 화
3.5, 차고 2, 2,300sqft, 교통요지
28/66/50/286, 웨스트필드하이,
웨그먼, 코스코, Dulles airport, Sully
station, Chantilly Shopping Center
▶571-239-6054

콘도 렌트

애난데일 콘도 렌트, Safe Way 건너편, 업데
이트한 밝고 예쁜 콘도, 방 2, 화 1, 새 카펫, 새
페인트, 물값과 가스비 포함 \$2,000
즉시 입주 가능
▶703-477-3114

애난데일 업데이트된 밝은 콘도, 엔드 유닛,
방3, 화2, 세탁기, 건조기, \$2,5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콘도 전체 렌트
방1, 화1, 주차 2, 완전 리모델링, 모든 가전
제품 새것, 즉시 입주 가능
703-268-8669 (문자요망)

현돈 새 콘도 렌트 \$3,000 방2, 화2.5, 차
고1, 이노베이션 메트로역 도보, Village
Center at Dulles shopping mall, 자이언
트, 1,600sf, RT267/28, 최고 교통요지
▶571-239-6054

1. 옥톤 싱글 \$3,600, 방 5, 화 2.5, 차고
2, 2.5acre 숲속, 아름답고 조용한
게이트 있는 집
2. 센터빌 stonegate, 콘도 렌트 \$2,100
방 2, 화 2, 2층 1100sqft, security gate
▶571-239-6054

방 렌트

센터빌 CVS 근처 깨끗한 싱글홈 2층 방하나
렌트, 가구/취사/세탁/인터넷 완비, 여자분

환영, 즉시 입주 가능
571-758-7117

페어팩스 방 렌트 또는 하숙 하실분 구합니다
GMU, 노바에서 5분거리, 방/화장실/부엌/
세탁기 모두 별도, 편리한 파킹
703-388-8518

페어팩스 왓슨 하이스쿨 건너편 타운 하우스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방1, 키친, 욕실, 워크아웃
571-643-8008

애난데일 H마트 근처 싱글홈 1층 렌트
방1, 화1, 주방, 여자분 환영 \$1,200
즉시 입주 가능
571-318-1119

애난데일 순복음 교회 앞 주택 지하 렌트
방2, 화장실, 큰 거실, 부엌, 방 하나 쓰실분
또는 전체 쓰실분
703-244-3453

애난데일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놓습니다.
출입문 별도, 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13-9080

센터빌 롯데근처 타운홈 이층 욕실 딸린 콘
방 하나 렌트합니다.
571-970-8048

센터빌 CVS 근처 타운하우스 마스터 베드
룸/개인욕실/워크인 클로젯/여성분 환영
571-243-7027 (문자요망)

스프링필드 지역 조용한 싱글홈 방 렌트
가구/인터넷/간단한 취사, 비흡연자, 학생
또는 직장인 여성 환영
571-286-2439

스프링필드(웨스트스프링필드 하이스쿨 근
처) 워크아웃 타운홈 베이스먼트 전체 렌트
가구일체/유포
703-887-8428

애난데일 싱글홈 아래층 495 조지메이슨
6분, 침대/가구/취사 가능, 여자분 환영
571-205-0903

애난데일 중심가 새로 수리한 싱글홈 반 지하
방 렌트 방 3, 화 2, 키친, 리빙룸, 입구 별도,
주차 편리
703-395-4380

센터빌 극장 근처 타운홈 방 렌트
방, 화장실, 가구, 세탁기, 인터넷, 파킹, 조용
한 여자분/학생, 가능한 잠만 주무실분
571-239-6054

애난데일 H마트 뒤 콘도 방1, 화장실1 렌트
인터넷 유포 \$800
703-577-3421 (문자요망)

센터빌 타운하우스 베이스먼트 세놓습니다
유포 \$1,100
▶301-928-4125

에난데일 예촌 앞 타운홈 방 렌트, 화장실 딸
린 큰방, 직장인, 학생 환영, 취사가능
703-622-2033

사무실/점포 렌트

애난데일 오피스 전체 렌트
나무 마루, Newer Windows, 계단 없는 1층
위치, 새로 단장한 화장실, 넓은 주차장, 교통

편리 \$2,000 즉시 입주
▶703-477-3114

애난데일 (자이언트 근처) 오피스 렌트
룸 4개, 화장실, 주차다수
301-741-6567

센터빌 던킨 뒤 환한 오피스콘도 렌트
\$1,900, 1,200sqft,
룸 3개, 화1, 오픈스페이스, 파킹다수,
RT29/66/28/286
▶571-239-6054

애난데일 지역 오피스 렌트
오피스 전체 4 Room \$1,600 1 사무실
\$500 (전기, Wifi 포함)
703-209-5150(문자요)

부동산 매매

부동산 매매

센터빌 벽돌 타운 하우스 \$589,000
방3, 화2.5, 차고 1 H MART 근처
29/28/66 Braddock
▶571-239-6054

1. 알렉산드리아 콘도 \$274,900
넓은 방2, 화1, 탁트인 넓은 뷰, 완전히 리모
델링한 콘도, 새 마루, 새 부엌, 새 화장실, SS
Appliances
2. 레스톤 콘도 \$499,900
고급 콘도, 방2, 화2, 나무 마루, 잘 리모델링
된 밝고 환한 콘도, 새 페인팅, 업그레이드한
부엌과 화장실, 에메티티가 좋음
3. 우드 브릿지 타운홈 \$410,000
방3, 화3 1/2, 잘 관리된 밝고 환한 집, 펜스
가 있는 뒷마당, 3층 구조, 업그레이드된 지
붕과 창문, 히팅 & 에어컨 시스템
703-813-8949

도미니언 밸리 컨트리 클럽, 헤이마켓 역서
리 싱글 \$1,699,000
1 에이커 숲속, 6700 sqft, 방5, 화 5.5, 3차
고, 야외 리조트 스타일, \$460K 업그레이드
(야외 주방, 백날로, 연못, 분소, 덱, 음향시스
템등) 골프장, 클럽하우스, 수영장, 테니스,
산책로, 최고 학군
▶571-239-6054

1. 메릴랜드 베데스다 싱글홈 \$1,295,000
방 4, 화 2.5
2. Gwynn Oak 메릴랜드 싱글홈 \$419,000
방 4, 화 3
▶301-318-4242

1. 워싱턴 디씨 듀플렉스 \$950,000
방4, 화장실 4+1, 차고1, 새집, 편리한 교통,
모던하고 예쁜 집
2. 워싱턴 디씨 SE 타운 \$649,000
방5, 화장실 3+1, 새 타운 하우스, 모던하게
지은 예쁜 집
▶410-417-7080

1. 메릴랜드 포토맥 싱글홈 \$1,075,000
방 4, 화장실 2+1, 차고 2 포토맥에 위치한
잘 꾸며진 집, 좋은 가격
2. Nottingham 타운홈 \$349,900
방 4, 화장실 3, 최근에 전부 새로 고쳤으며,
HOA가 없는 집
▶410-417-7080

※ 본지에 게재된 모든 광고는 광고주의 신청에 의해 게재된 것으로 본지는 그 내용에 대해 전혀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중앙생활안내 BOX 광고 가격표

(한달기준/흑백)

1 BOX	\$100
2 BOX	\$200
3 BOX	\$300
4 BOX	\$400
5 BOX	\$500

문의: 703-281-9660 / kdclass2018@gmail.com

정크 빨리빨리

이제
어떻게
버리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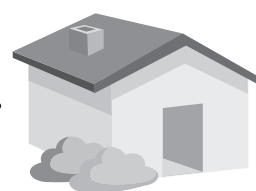
“ 가정, 사업체에 안쓰는
가구, 가전 등 버려드립니다. ”
각종 딜리버리 / 소량 이사 전문
비즈니스 폐업 / 각종 철거 전문



571-723-04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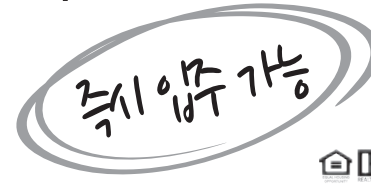
싱글홈 전체 렌트

맥클린에 있는 싱글홈
전체 렌트할 세입자를 구합니다.



방 4개, 화장실 3개, 차고 2개

대사관, 주재원 분들도
환영합니다.



자이언트 제니 지: 571-277-7758
부 동 산 insunchi@yahoo.com

보험

메디케어 신청 및 보험가입 60년생 무료상담!

서플리먼트·C 플랜·약보험·치과·안경·OTC

자동차·주택·사업체 보험

“보험료”를 확실히 내려 드립니다!

조은혜 종합보험 10560 Main St., Ste 201
Fairfax, VA 22030
☎ 703-591-0009 / 703-537-9899



냉·난방

“냉·난방은 제대로 설치해야 영구적”

오래되고 낡은 고장이 기계 디자인
망설이지 마세요. 유니버설이 최고의
기술과 최저의 가격으로 교체해드립니다.

히팅·에어컨 가정용/산업용 전문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큰 규모의 미국 회사는 너무 비싸고
혼자 일하시는 한국 회사는 잘 못 믿으시겠죠?
한인 최대 규모로 저렴하고 정확하게 서비스 해드립니다

VA·MD·DC 지역에서
제일 큰 규모의 냉난방 회사,
L&B Universal



L&B UNIVERSAL
HEATING AIR CONDITIONING MAINTENANCE
"Because Comfort Should Be Universal"

Office: 703-618-4822
Cell : 703-678-1749
신속한 A/S·기술력과 서비스·경쟁력있는 가격

3852 Dulles South Ct. #G Chantilly, VA 20151
www.LBuniversal.com
www.facebook.com/LandBUniversal

건축 / 페인트

TK 종합건축 Since 1988

30년 경력 종합건축·빌딩시설 관리 전문회사

- ▶ 건축·시공 및 건물·시설의 체계적인 유지보수 대행 관리
- ▶ 상가 및 빌딩 신축·리모델링 ▶ 식당 및 사무실 공사 일체
- ▶ 건물 및 시설 유지보수·관리 대행

무료견적
설계/허가/디자인
시공/유지보수관리

자체 라이선스 보유 및 건축공사 책임보험 가입

Tel : 703-504-6116 / Cell : 703-675-7401

와니건축

Repair Doctor

페인트, 마루, 타일, 부엌, 화장실, 욕,
그외 모든 공사

책임시공/신속처리

-주정부 라이선스/책임보험가입-

Call 24시간 가능

(사전보내주시면 즉시 무료견적)

카톡 ID : wani6811

571-331-6811

레드문 페인트

욕실, 주방, 지하실, 리모델링,
페인트 전문

목수, 타일, 마루, 욕, 캐비닛
샌딩 보수

핸디맨, 플로밍, 전기, HOA
지적 수리

703.965.3011

유리 / 이삿짐 / 재테크 / 건축 / 전기 / 헬스케어

JK 유리 & Window

C.703-346-5962

상점/가정집 유리·거울

Frameless 샤워도어/Aluminum/Door 설치

MD·VA·DC 지역, 신속시공

롱라이프 홈케어

571.623.0255

Annandale

귀국 이삿짐/차량운송



포장이사 및 단주이사 / 주재원 귀국이사 전문
범양해운이 책임지겠습니다.

- 자동차 운송
- 수출입 화물(선박, 항공)
- 소량화물 / 유학생 우대
- 분실 / 파손 보험커버
- 쓰레기 처리가능
- 무료견적
- Door to Door Service
- 창고 보관 및 유통관리
- VA/DC/MD↔NY 정기운행
- 타주이사

범양해운 USA Tel.703-298-1919

7000 Newington Rd. #H, Lorton, VA 22079

www.vapumyang.com / va@pumyang.com / vapumyang@gmail.com

KOREA(SEOUL) 02-2093-2093 KOREA(BUSAN) 051-469-4191 USA(LOS ANGELES) 310-767-5699 USA(SAN FRANCISCO) 510-887-2424

USA(SAN DIEGO) USA(NEW JERSEY) USA(TEXAS) USA(ATLANTA)

HD 현대 통운

귀국, 해외 이사
타주, 시내 이사
귀국, 타주 차량운송

한국 소량 화물 배송 서비스
고품격 포장이사 서비스
자체 창고 보관 서비스

미동부 최대의 운송회사

703.339.8844

www.HDmovingusa.com

고려통운

세계 어느곳이나! 세계 어디든지!

귀국이삿짐

타주이사

해외이사

시내이사

ICC인가업체

◆ 세계 84개국 체인 유통망 확보

◆ 100% 자체보험으로

고객의 추가 보험료 불필요

◆ 확실한 세관처리 및 서류작성

◆ 한국에서 지불가능 (후불)

Tel.703-550-2424 Fax.703-550-2426

GORYOEXPUS@hotmail.com

7350-E Lockport Pl., Lorton, VA 22079

조양운송

신속 안전

신용 저렴

20년 전문!!

▶ 귀국 이사 전문

▶ 자체 창고 보관

▶ 타주, 시내 이사

▶ 전문 포장 이사

(703)550-5550

choyangusa@hotmail.com

JJL Contractor Inc.

야곱의 사닥다리

지붕 고민 / 돈 걱정

이제 그만하세요

Tel. 703.835.0945

냉난방

JD 냉난방

Mr. 은

410-370-8057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인, 아이스 머신

소독

소독



JD Star Pest Control

Mr. 은

Owner / Certified Applicator

410-370-8057

410-370-8484

Rats/Mice, Insects, and Termites

JIP Electronic & Contractor Inc.

전기에 관한 모든 공사
Master Electrician
Class - A 라이선스 소지

전화상담 환영/무료견적/철저한 AS

대표 : 박을구

703.929.9601

보석

Golden Dew Jewelry



기쁨과 행복을 드리는

골든 듀 보석

다이아몬드
전문점

- 백금 (Platinum)
- K14, K18, Setting 전문
- G.I.A. E.G.L 다이아몬드 판매

- 결혼 예물 셋팅 전문
- 순금 아기들 반지 팔지
- 남양진주 각종 보석 취급

- 각종 결혼식, 약혼식 예물용
- 로렉스시계 전문 판매
- 각종 보석 감정 수리 상담



410-480-2477

8801 Baltimore Nat'l Pike

엘리컷시티 롯데플라자 내

Ellicott City, MD 21043

건축

Top 건축 MD

집수리 전문

각종 집수리 일체
지하실/주방/욕실/전기설비
타일 마루/루핑/카펫/페인트
각종 목수일 일체

443-980-1167

융자

United Mortgage Nation

소중한 주택 융자는 신뢰 받는 파트너,
United Mortgage Nation과
함께 하세요!

(NMLS #: 2425871)

703-204-0022

703-268-3954

WWW.UMNLOAN.COM

에어컨&히팅 / 핸디맨 / 건축 / 플러밍 / 카펫&크리닝 / 블라인드 / 마루 / 페인팅 / 이사 / 웨딩 / 부동산 / 데이케어

웨딩스토리

토탈 결혼 준비

●웨딩 플래너

●웨딩드레스 & 턱시도 대여

●웨딩플라워 데코

●결혼식 장소 및 비용예산 선정

703-642-2247

9502-A Lee Hwy., Fairfax VA 22031

홈스 플러밍 센터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플러밍

◆수도꼭지 교체

◆싱크 / 디스포저

◆워터히터 / 물새는것

◆하수막힘 / 변기교체

◆셉퍼프 교체

24 hours
7days
Service

571.594.4080

VA A 라이선스/보형 13908 Green Trails Ct, Centreville, VA 20121

토탈카펫

30년의 전통과 신용으로
최저가격 보장

카펫 / 하드우드 / 타일

주거용

703.909.0988

상업용

한번 시공한 것은 끝까지 책임집니다.

현대부동산

성실을 실천하는 부동산!
행복 가득하고 편안한 집을
소개해 드립니다.

내 집 마련의 꿈!
현대부동산이
함께 합니다.

*상담 환영 (집 파실 분, 사실 분, 경매)

Hyundai

703-813-8949

703-813-8150~5

Master Licensed & Insured Contractor

인터테크 냉난방

에어컨 / 히터 / 히트펌프

미국회사 10년 경력
Carrier, Trane 딜러
덕트, 드라이어 벤트 크린

가정용

상업용

www.intertechhvac.com

703.380.2282

궁금한 기사
중양 일보안에
있습니다

① 위싱턴 중양일보
7023 Little River Trpk., #310, Annandale, VA 22003 T. 703-281-9660

JGL Construction Inc.

Jglconstruction.com

JGL 건설회사

"하청없이 저희 25년 이상
숙련된 자랑스러운 시공 전문인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8001 Forbes Place, Suite 207
Springfield, VA 22151

Office: 571-213-8678

MI 이사집

첫번째 10% 할인
두번째 20% 할인

빠른·책임·값이 싼 24/7
포장이사·서비스·자재

571-364-4185

mimovingllc@gmail.com

조이텍 냉난방

에어컨

히팅

냉동

냉장

워킹롤러

워터히터

플러밍

전기

Master HVAC Contractor
Master Plumber/Gas Fitter

443.280.1873 Lee

joytechhvac.com

저렴한 가격! 최고의 만족!

SK 플러밍

▶ 화장실, 키친 리모델링

▶ 싱크, 욕실, 화장실, 부엌

▶ 수도꼭지 / 변기 / 하수도 뚫음

▶ 온수, 히터 (가스/전기)

▶ Dishwashers, Disposals

▶ 상하수도 수리교체 / 배수 펌프

▶ 철 핸드레일 리페어 및 각종 용접

MD·VA
24 hours
7days
Service

703-989-0103

골든 벨라
보석상

● 결혼 예물 전문

● G.I.A 다이아몬드

● 보석, 금 고가 매입

● 순금 아기 돌반지 팔찌

● 보석 세공, 시계 수리

703.988.0033 센터빌
301.792.5615 H-Mart 내

EVERSHINE Construction

KITCHEN & BATH BASEMENT REMODELING

HOME REMODELING

Patio / Fence / Deck / 기타 각종 집수리

VA Class A License / DC / MHIC

evershine-construction.com

info@evershine-construction.com

15년 이상의 경험

보험가입

703.994.2943

Ray Kim

BBG 블라인드
전문업체

● 한국산 콤비, 롤스크린 블라인드

● 한국산 전동 블라인드

● 한국산 Triple Shade 블라인드

● 한국산 나비주름, 형상 기억 커튼

● 한국산 Cordless 블라인드

● 한국산 Smart Curtain

● 상업용 블라인드 전문제작

● Interior의 완성 블라인드

VA-MD-D.C
무료견적

571.229.4633

www.bbgblinds.com / bbgblinds@gmail.com

H.P.C 집수리센터

집안밖에 문제를 도와드립니다!

● 집안-리페어, 핸디맨 서비스

● 집밖-창문, 사이딩, 거터, 루핑, 데크 등 일체

"일단 전화주세요!"
상세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VA Class A 라이선스 보유 *라이어빌리티, 워크스톱 보험 보유

571-594-4080

형제건축·지붕

H BROTHERS CONSTRUCTION, INC.

가정용

상업용

믿고 맡기시면 최상의 결과를드립니다.

부엌

화장실

지하실

703-928-6255

14516 Flag Staff Ct, Centreville, VA 20121

제임스 플러밍

저렴한 가격으로 최고의 만족을!

●수도꼭지, 변기, 하수도 뚫음

●온수, 히터 (가스,전기)

●상하수도 수리교체, 배수 펌프

●Gas 공사, 히팅, 에어컨,냉동

●집 안밖 물새는것

24Hr

703.499.5984

LOVE HAND

Home Health & Adult Daycare

러브핸드 홈헬스 & 시니어 데이센터

"간병은 단순한 서비스
제공이 아닙니다.
간병은 사랑입니다."

703-657-0944

14101 Parke Long Ct., Suite H, Chantilly, VA 20151

우주 Mechanical, LLC

●전기/플러밍/가스/히팅/에어콘

●역류장치(Backflow)

●MD Fire 스프링클러

●주방 화재 방지

●용접(철, 스텐, 알루미늄)

●제작 및 설치
(키친후드, 덕트)

●복구작업
(수해, 화재, 가구, 곰팡이) 보험처리가능

DC, MD, WV 라이선스 소지

301-222-3277

블라인드 / 틈트

"명품 블라인드"

블라인드 하나로 여러분의 집이 확 바뀝니다.

한국 명품 블라인드 드디어 미국 상륙!
LA 지역 10,000 스퀘어피트 자체 공장과 쇼룸 보유
메릴랜드, 워싱턴DC, 필라델피아, 노스캐롤라이나 전 지역
버지니아 동부지사 오픈 !!

● 한국산 지브라셰이드, 전동블라인드, 롤스크린, 허니콤, 스마트커튼

● 최상의 품질, 다채로운 색상과 디자인 및 A/S Team 보유

● 최고급 공기정화, 향균 원단, 방염 기능

● 가정/상업/교회용 등 다양한 맞춤 제작

"놀라운 품질
저렴한 가격"

Total Blackout LLC

Young Lee

703.600.9031

무료 방문
상담 및 견적



Jim & Roger’s 본바닥 영어

해설:스티브 박(CIU교수)

California International University
www.ciula.edu (213)381-3710

Anthony: Sorry I’m late, Been waiting long?
앤소니: 미안 늦었어. 오래 기다렸어?

Justin: No, I just sat down,
저스틴: 아니야. 나도 방금 자리에 앉았어.

Anthony: Good, My final travel plans came through today.

앤소니: 다행이다. 최종 여행 계획이 오늘 나왔어.

Justin: It took long enough. Do you have your passport?

저스틴: 걸릴 만큼 걸렸네. 여권은 있어?

Anthony: Yeah, My passport and visa, Everything has finally fallen into place.

앤소니: 응. 여권하고 비자다. 드디어 모든 게 다 제대로 됐어.

Justin: When do you leave?

저스틴: 언제 떠나는 거야?

Anthony: A week from tomorrow. Now reality is setting in.

앤소니: 내일로부터 1주일 뒤에. 이제야 실감이

나.

Justin: Don’t tell me you’re getting nervous,
저스틴: 떨리는 건 아니지.

Anthony: A little bit, I’ve never been out of the country before.

앤소니: 조금 떨려. 한 번도 외국에 나간 적이 없거든.

Justin: I hope you don’t get cold feet.

저스틴: 겁 먹지 않아도 돼.

Anthony: Don’t worry about that, I’m nervous not

get cold feet; 겁을 내다

(Anthony walks into a restaurant and sees Justin sitting in a booth…)

(앤소니가 식당에 들어가니 저스틴이 자리를 잡고 앉아있다…)

frighten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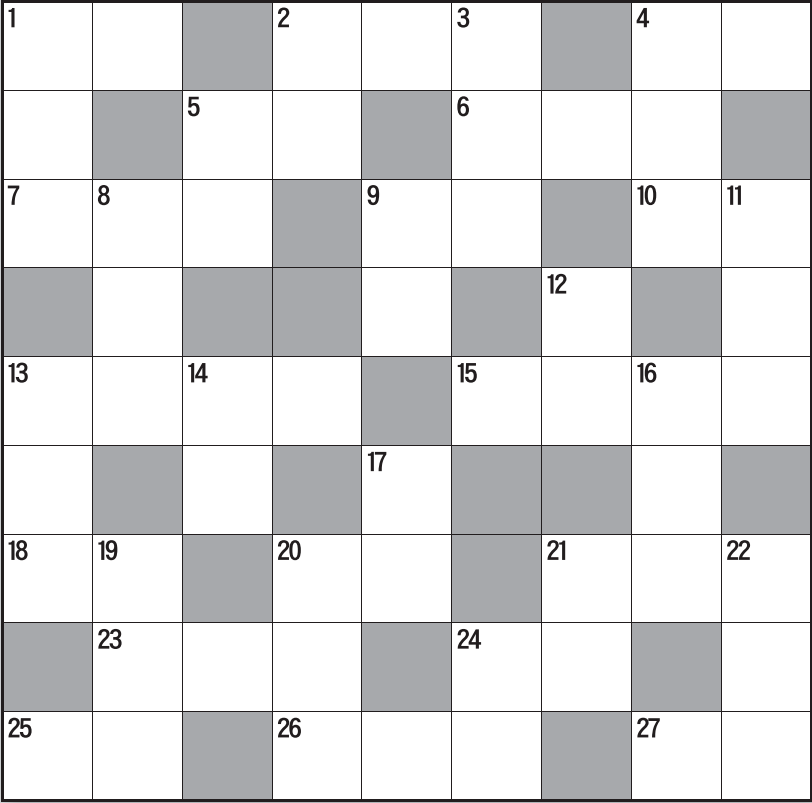
앤소니: 그런 걱정은 하지마. 떨리는 거지 겁나는 건 아니야.

기억할만한 표현

▶ *come through: (기다리던 것이) 나오다. 승인을 받다.

“I hope my social security will come through this month.”(소셜 시큐리티 카드가 이번 달에 나왔으면 좋겠다.)

날말퀴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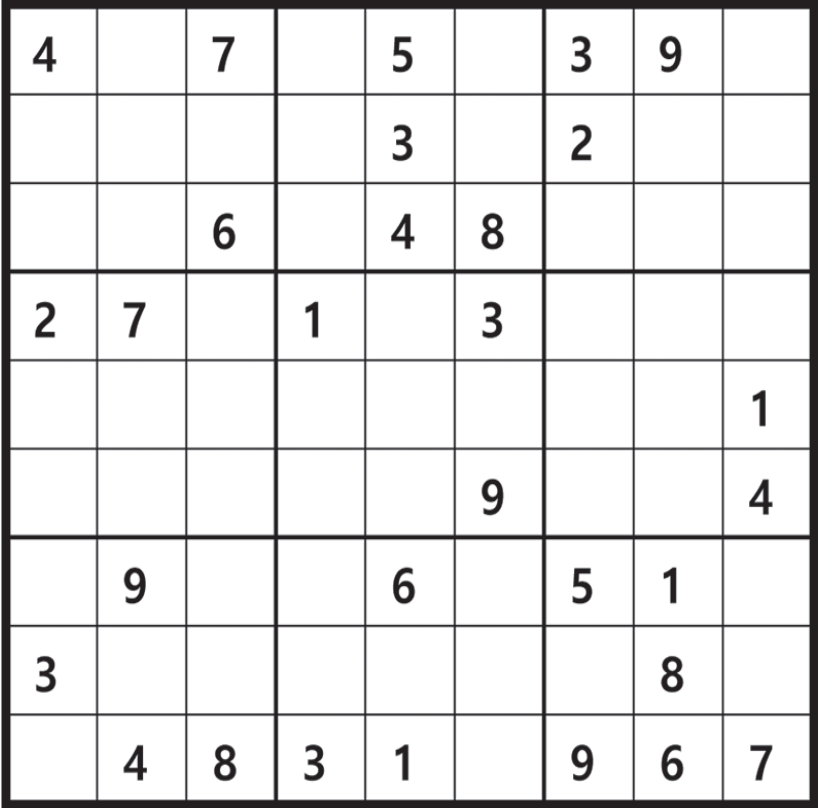
가로열쇠

(1)손가락을 모두 오므려 쥔 손. 두 ~을 쥐고 분 노하기보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2)자기 고장을 떠나 여행 중에 있는 사람. 지나가는 ~인데 하룻밤 묵어 갈 수 있는지요? (4) 거울이 붙어 있는 가구. 화장 용구를 넣기 위한 서랍이 있다 (5)쇠볼이로 만들어 불에 달구어 찌는 도장 (6)비행장에서 비행기가 뜨거나 내릴 때에 달리는 길 (7)마음속. 심성. 사내자식 ~가 그렇게 손바닥만 해서야 무슨 큰일을 하겠소 (9)품종이 섞인 일반 개 (10)고기나 굽은 떡 조각 따위를 굽는 기구 (13)쫄대가 없고 어머니에게 의존하는 나약한 남자 (15)터무니없이 거짓되어 실속이 없음. 허□□□ (18)몸안의 세포가 자율성을 가지고 과잉으로 발육한 혹 (20)마소의 목에 얹는 구부러진 막대 (21)어려움과 쉬움의 정도 (23)태어난 달을 상징하는 보석. 4월 다이아몬드, 5월 에메랄드, 6월 진주, 7월 루비 따위 (24)왕비를 높여 이르던 말 (25)쌀과 밀, 옥수수와 함께 4대 식량 작물 중 하나. 집을 만들조 (26)가랑이가 무릎까지 내려오도록 짧게 만든 홑바지 (27)지구상에서 가장 큰 동물

세로열쇠

(1)자동차에 기름을 넣는 곳 (2)궁궐 안에서 임금, 왕비, 왕세자를 모시고, 궁중의 일을 맡아보던 여자 (3)새의 날개처럼 크게 핀 양말과 다리 (4)공경하는 뜻으로 노인들만 앉도록 마련한 좌석 (5)여덟 개의 다리가 있고 위험이 있으면 먹물을 뿜고 도망친다 (8)머리털을 양쪽으로 갈라 붙이면 금이 생기조 (9)두 번째 손가락은 앞으로 모으고 상대방의 항문을 찌르는 행위. 위험한 장난이조 (11)손목에 걸쳐서 채우는, 쇠볼이로 만든 형구. 수갑 (12)노래와 춤. 차내의 음주 ~ 등 소란 행위 금지 (13)마늘의 꽃줄기 (14)파랑과 빨강의 중간색 (16)비가 오거나 날이 흐릴 때면 요란하게 운다. 아무지지 못하고 말이나 하는 것이 답답한 사람. 야, 이 ~야, 정신 좀 차려라 (17)뿔나무의 잎을 먹고 자라며 고치를 짓고 번데기가 된다 (19)양털로 짠 두꺼운 모직물. 카펫 (20)너무 피곤하여 아무 데서나 쓰러져 자는 잠 (21)허가 없이 길에 함부로 벌여 놓은 가재 (22)바퀴의 홈에 줄을 걸어서 돌려 물건을 움직이는 장치 (24)물고기 배 속의 알. 수컷의 배 속에 있는 흰 정액 덩어리는 아라이이조

스도쿠



자료제공=올드북 (www.gobook2.com)



스도쿠 문제풀이 스도쿠는 집중력을 필요로 하는 게임입니다. 가로·세로는 물론 사각형 3X3 안에도 1~9까지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적어 넣어야 합니다.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제일의 종합일간지!

① 워싱턴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 \$150

“ 중앙일보 1년 정기 구독료가 \$150(선납)으로 2024년 7월 1일 부터 조정된 것을 알려드립니다. 주요 한인 마켓과 식당 등 80여개의 기존 가판대에서는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 생활안내 구인/구직 줄 광고는 월 \$20로 계속해서 지역 한인 커뮤니티를 위해 게재됩니다. ”

워싱턴중앙일보는 애독자 여러분들을 위해 끊임 없이 노력하는 신문사가 되기를 약속드립니다.



정기구독 신청 및 문의: 703-281-9660, 1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① 워싱턴 중앙일보 구독신청서		
성명 (Name)	영문 (Eng)	한글 (Kor)
주소 (Address)		
연락처 (Phone #)	Home Cell	
구독료 (Subscription Fee)	1년 선납 \$150	지불 방법 Check ☐ Bill ☐ Credit Card ☐ Pay to the Order of: The Korea Daily
카드 정보 (Card Info)	카드 종류 VISA ☐ Master ☐ Amex ☐ Discovery ☐ 카드 번호 EXP. DATE: / month year	카드 뒷면 3자리 CVS:
신청서 보내실 곳	The Korea Daily 7023 Little River Tnpk., #310, Annandale, VA 22003	
20 년 월 일 서명 (sign):		

* 신청하신 신문은 신청일(구독료 완납기준) 2일 후부터 배달되며 2일이 지나도 신문이 배달되지 않을 경우 구독부(703-281-9660, 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Nation Wide

미전지역 안내광고 동시게재

LA • 뉴욕 • 시카고 • 애틀랜타 • 워싱턴 DC

광고문의
213-368-2525

**LIBERTY BANKCARD** Liberty www.worldpay.com
worldpay

투자자 및 창업자 모집 안내
세계 1위 결제 솔루션 기업 Worldpay의 공식 파트너사 Liberty Bankcard(MPS)

브랜드 창업자 & 소액 투자자 모집
캘리포니아와 미 주요도시
신규 브랜드 오픈 예정
2025년 9월부터 2026년 8월까지 총 100명 한정모집

모집 대상
소액투자자 (50명)
\$5,000 투자 참여 가능
운영 참여 없이 수익 배당
설명회 참여 필수
창업운영자 (50명)
지역 브랜드 창업 및 직접 운영
초기 6개월간 고객 유치 협력
월 수익 \$2,000 ~ \$5,000 이상 가능

철저한 교육 제공
▶ 가맹점 유치부터 수수료 배당까지 전 과정 안내
▶ 운영자 전용 창업/경영 교육 제공
▶ 투자자는 설명회 후 개별제 계약 가능

문의 (424)332-3779 미전지역가능
대표: 사라 류 박사 (경영학 & 영업학 박사, 하버드 경영, 정치, 교육 대학원 Alumni)
https://wikitia.com/wiki/Dr._Sarah_Sun_Liew 아브라함 리 (MBA)
Info@meridianwish.com www.worldpay.com

L.A. 

매매

여자웃 소/도매 컨설팅
머천다이즈와
바잉 가르쳐드립니다.
매상극대화
문의는 문자주세요.
(213)507-5258

이민생활의 나침판
중앙일보 안내광고
(213)368-2525

Hello Town
미국 생활에 대한
고퀄리티 리얼정보와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커뮤니티까지!
All about US Life!

구인
RENT
부동산
미국 라이프의 모든 것
자동차
전문업체
문의 213.368.2525

Dealer No 90-491972, Permit 007669

9월~12월 한정판매

자연산삼
청정지역 West Virginia에서
직접 캐오는 Wild Ginseng 입니다.

자연산삼의 효력
면역력 향상효과
당뇨 혈압
체력증강 등등.

5~20년 \$600
20~30년 \$1,000
30~50년 \$1,500
문의 (571)236-8591

미라클터치마 산맥 천중산삼

9월 햇산삼 세일

5파운드 이상 구입시 출세일 가격 판매

30년 1파운드 \$750 → \$550
40년 1파운드 \$1,500 → \$950
50년 1파운드 \$2,350 → \$1,500

US Wildlife & Natural Food Inc.(Dealer #90-447305)
3003 W. Olympic Bl., #201 LA, CA 90006
(213)800-3662 (213)407-4524

치질·치루 수술 안하고 OK

미라클터치로 발기능력 쑥쑥
항문폴립·변비·요실금도 해방
새끼손가락 크기 항문삼입형, 사용 간편합니다

위산역류 확실히 좋아집니다

미라클터치로 뱃속 독소 제거
불면증·이명·각종 통증도 탈출
아픈 부위 30초만 대면 독소가 빠져 나옵니다

LA (213)675-6877 | OC (213)255-1410

법무사가 되세요

“라이선스를 받으시고 고소득을 평생 올리세요”
학교 웹사이트 interpacU.com 에 둘러서
한국어 Sample 강의를
들어보시고 법무사반을 등록하시면 됩니다.
International Pacific University
(213)674-7000 (213)505-7703


총장 법학박사 허위트

Leisure World Seal Beach, CA

고품격 은퇴마을

주택 구매자 조건

1. 연령: 만 55세 이상
(부부일 경우 한분만도 가능)
2. 지난 2년동안 세금보고서 사본
(첫째와 둘째 페이지 필요)
3. 401K, 은퇴연금, \$2.5만 or \$5만
(6개월 이상 은행예치 증명서 사본)
4. 집구매는 일시불로 지불
(Monthly Association Due와 Property Tax를
합한 액수의 4배 이상 월수입이 있어야 됨)

"황혼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알고 계십니까? 유토피아 라고도
불리는 완벽한 시설
바닷가 인근에 시니어를 위한
실버타운 "레저월드"

레저월드에 거주하고 있는 전문 Agent
Philip Y. Bak (박윤택) Bre#01895031
Direct: (213)550-9991
Office: (562)235-3760
최선을 다해 도와 드립니다.


Berkshire Hathaway baksusa@yahoo.com

지긋 지긋한 **통증**과 **중풍** 치료로
기적을 경험!


성민 산삼 한방 병원 서영수 한의학 박사와
중풍 증상이 크게 호전된 델히노 고메즈 씨.

“중풍과 통증을 치료하는 한방의 신비!”
중풍으로 마비됐던 델히노 고메즈(51) 씨는 LA 한인타운 성민 산삼 한방병원에서 두 달간 치료를 받고 놀랍게 회복했다. 2022년 12월 중풍 발병 이후 지팡이에 의지해야 했던 그는, 침과 뜸, 약물 등으로 이루어진 6단계 한방 치료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서영수 한의학 박사는 "중풍은 불치병이 아니다. 기혈 순환과 혈전 제거가 핵심이며, 심혈관 치료에 좋은 금옥단과 위장 강화에 효과적인 도인벽사단을 병행 처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손발 저림, 어지러움 등 초기 증상이 있다면 철저한 건강 관리가 필수"라고 당부했다.
▶문의: (213) 503-3304
▶주소: 809 S. Hobart Blvd, LA

잠 못 이룰 정도로 지긋지긋한 모든통증

요통, 척추간 협착증, 오십견
[수술·진통제 없이 치료합니다!]

중풍·류마티스 관절염은 불치병이 아니다!

10여일 만에
빠아픈
류마티스
관절염 통증에서
벗어난
실제 치료 사례

치료전

치료후

성민산삼
한방병원

명약 산삼금옥단 도인벽사단
50% 특별할인가

Tel. 213.385.3304 Cell. 213.503.3304

깨끗하게 손질된 민물장어 판매
바로 구워드시세요

\$100 이상 무료 배송
장어판매할 식당 적극 환영

LW FISH MARKET 문의 (832) 605-4890 • (281) 501-2623
1249 Blalock Rd #201, Houston, TX 77055



2025학년도 가을학기

신입생 | 편입생모집

실시간 인터넷 소통 화상강의(Zoom)를 통하여,
전세계 어느곳에서나 함께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9월22일~12월5일까지

본교 지원시 특전

1) RPCA개혁 장로회 한미연합총회에서 목사안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목회자나 선교사님들,그의 자녀들에게 장학금 혜택이 있습니다.
3) 본교는 미국 신학교 협의회에 가입된 회원학교입니다.
서로 학점 교환이 가능합니다.

신학학사과정 (B.Th) 목회학석사과정 (M.Div)

목회학박사, 교육학박사, 신학박사, 철학박사과정 상담가능 (NYTS)

상담전화 | 213-272-6031



미주크리스천신학대학교(원)
CHRISTIAN THEOLOGICAL UNIVERSITY IN AMERICA
439S.WesternAve.#100LosAngeles,CA90020 | TEL:213-272-6031

엘리콧시티 · 락빌

환자분들의 편의를 위해 2 로케이션에서 진료합니다.

편한나라 척추신경 전문병원

편한 위치! 편한 치료! 편한 척추!

편한나라는 지난 20여년간 척추와 척추신경과 관련되어 발생하는 통증을 치료하고 있으며, 각 분야의 전문 의료인들의 협진으로 빠르고 정확한 치료를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

교통사고

- 교통사고 후유증 치료와 함께 척추 및 자세교정
- 통증 침 치료(Dry Needling)
- 마사지 치료(LMT 라이선스 소지자)
- 디지털 X-Ray. 디스크 감압치료
- 물리치료기구, 재활 프로그램 완비

■ **Dry Needling 이란?** 침을 근육이나 근막조직의 통증점에 자침하는 치료법으로 근육통의 완화, 근육 및 인대의 긴장 감소에 효과가 있습니다.

진료 과목

- ✓ 자동차 사고 후유증
- ✓ 손, 발 통증 및 저림
- ✓ 척추 디스크 통증
- ✓ 어깨 결림 및 통증
- ✓ 두통, 목, 허리 통증
- ✓ 만성근육통

취급 보험

- Blue Cross Blue Shield
- Blue Choice
- Anthem
- Aetna
- United Healthcare/GEHA
- CareFirst
- Innovation Health



Dr. 민혁기

원장 Dr. 송영성

Dr. 석호선

Dr. 민혁기

- 전 경기대 대체의학 대학원 외래교수
- Body Balance Center Director(압구정)
- MD & VA Board Licensed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Magna CumLaude(우등졸업)
- Life Univ. Doctor of Chiropractic 과정전액 장학생
- 단대부고 졸업

원장 Dr. 송영성

- 동아고, 경희대학교 졸업
- R.O.T.C 28기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 Graduated Magna CumLaude from Life Univ.
- Practiced in Choi Chiropractic
- Certified in Cox Technique-Low Back Pain
- Certified Dry Needling

Dr. 석호선

- Life University of Chiropractic 졸업
- 대구 대건고, 경북대학교 졸업
- MD Chiropractic Board Licensed
- Licensed Massage Therapist (LMT) of MD
- Completion of Asian Bodywork Therapy Program
- Member of Associated Bodywork and Massage Professionals

엘리콧시티 (410) 480-2331

3201 Rogers Ave. #102, Ellicott City, MD 21043

락빌 (301) 279-6960

2000A Veirs Mill Rd., #A, Rockville, MD 20851